

2023년 구미와 동아시아 세계사 교과서의 역사인식 국제학술회의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RECOGNITION OF HISTORY IN WORLD HISTORY TEXTBOOKS

일자 | 2023년 11월 4일(토)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Date | November 4(Sat), 2023

Venue | Conference Room,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23년 구미와 동아시아 세계사 교과서의 역사인식 국제학술회의 프로그램

- 주 제 : 구미와 동아시아 세계사 교과서의 역사인식
- 일 시 : 2023. 11. 4(토)
- 장 소 :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시간	주제	발표
개회식		
사회: 조운수 소장 (국제관계와 역사대화연구소)		
09:30~09:40	개회사	조운수 소장 (국제관계와 역사대화연구소)
09:40~09:50	기념촬영	
09:50~10:00	자리정돈	
제1부 :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사회: 한운석 교수(독일 튀빙겐대학 한국연구소)		
10:00~10:20	미국교과서의 동아시아사 서술과 역사인식	조영헌 교수 (고려대학교 역사교육학과)
10:20~10:40	영국교과서의 동아시아사 서술과 역사 인식 -중국사 서술과 한국사 인식을 중심으로	우성민 연구위원 (국제관계와 역사대화연구소)
10:40~11:00	독일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아시아사 인식	허은철 교수(총신대학교 역사교육학과)
11:00~11:10	휴식	
11:10~11:30	러시아 역사교과서의 중국과 일본의 현대사 서술	Kim Alexander 교수(모스크바 국립대학 국제문제학과)
제1부 토론		
11:30~12:30	토론자: 강선주 교수(경인교대 역사교육), 박재영 교수(대구대학교 교양학부)	
12:30~13:30	오찬	
제2부 : 일본, 베트남, 몽골 사회: 유인선 교수(전 서울대 동양사학과)		
13:30~13:50	일본교과서의 동아시아 고대사에 대한 서술과 인식 -법전 정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오우쓰미키요하루(大隅清陽) 교수 (山梨大学 대학원종합연구부 교육과학영역 인간과학부)
13:50~14:10	일본교과서의 임진왜란 및 조선사 관련 서술과 인식	호리신(堀新) 교수 (共立女子大學 문예학부)
14:10~14:30	휴식	
14:30~14:50	베트남 역사교과서의 동아시아 서술	쯔엉 투이 중(Truong Thuy Dung)박사 (베트남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시간	주제	발표
14:50~15:10	몽골 역사교과서의 동아시아 서술	오란고아 잠스란 교수(Urangua Jamsran) 몽골국립대 역사학과
제2부 토론		
15:10~16:10	토론자: 윤투숙 연구위원(한일 역사문제연구소) 권은주 연구위원(한국 고종세사연구소) 오미영 연구교수(단국대 몽골연구소)	
16:10~16:30	휴식	
제3부 종합토론		
16:30~18:00	사회: 우성민 연구위원(국제관계와 역사대화연구소) 폐회 (마무리발언) 발표자, 토론자, 교과서 연구센터 연구위원 및 참가자 전원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Recognition of History in World History Textbooks

- Theme : Historical Awareness in Europe, the U.S. and East Asia
 - With a Focus on Comparative Analyses of World History Textbooks in the U.S., United Kingdom, Germany, Russia, Japan and Vietnam, Mongolia,
- Date: November 4(Sat), 2023
- Venue : Conference Room,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th Floor)

Time	Topic	Presentation
Welcome Remarks		CHO Youn -Soo (Directo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istory Dialogue Research Institute)
09:30~09:40	Welcome Remarks	CHO Youn -Soo (Directo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istory Dialogue Research Institute)
09:40~09:50	Group Photo	All Participants
09:50~10:00	Break time	
Session 1: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Germany Moderator:: Prof. Han Un-seok (Korea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Tübingen, Germany)	
10:00~10:20	A Description of East Asian History and Awareness of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Textbooks	Prof. CHO Young-heon (Dept. of History Education, Korea University)
10:20~10:40	A Description of East Asian History and Awareness of History in the United Kingdom Textbooks	WOO Sung-min, (Research Fellow,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istory Dialogue Research Institute)
10:40~11:00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scription of East Asian History in German Textbooks	Prof. HEOEun-cheol (Dept. of History Education, Chongshin University)
11:00~11:10	Break time	
11:10~11:30	Toward the description of contemporary Chinese and Japanese history in Russian school textbooks of history	Prof. KIM Alexander(Moscow State University)
Session I: Discussion		
11:30~12:30	Prof. KANG Sun-joo (Dept. of History Education, Kyungin University of Education) and Prof. PARK Jae-young (Dept. of Liberal Arts, Daegu University)	
12:30~13:30	Lunch	
Session II:	Moderator:: Retired Prof. YU In-sun (Dept. of Oriental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13:30~13:50	Description and Perception of East Asian Ancient History in Japanese Textbooks-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code	Prof. OTSUMI Kiyoharu (Dept. of Education and Human Sciences, Yamanashi University)

Time	Topic	Presentation
13:50~14:10	Description and Perception of Imjin War and Joseon History in Japanese Textbooks	Prof. HORI Sin (Faculty of Arts and Letters, Kyoritsu Women's University)
14:10~14:30	Break time	
14:30~14:50	Description of East Asia in Vietnamese History Textbooks	Dr. TRUONG Thuy Dung (Institute of History, Vietnam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14:50~15:10	Description of East Asia in Mongolian History Textbooks	Prof. Khereid J. URANGUA (Dept. of History,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Session II : Discussion		
15:10~16:10	KWON Eun-ju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Korean Ancient and Medieval History & Textbook Research Center) YOON Yoo-sook (Research Fellow, Korea-Japan History Institute), Dr. OHMi-young (Oriental Studies Research Institute, Dankook University), Retired Prof. YU In-sun (Dept. of Oriental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16:10~16:30	Break time	
Session III: Discussion		
16:30~18:00	Moderator: WOO Sung-min, (Research Fellow,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istory Dialogue Research Institute), All Participants	

2023年欧米と東アジア 世界史教科書の歴史認識国際学術会議

- テーマ：欧米と東アジアの歴史認識
- アメリカ、イギリス、ドイツ、ロシア、日本、ベトナム、モンゴル世界史教科書を中心に
- 日時：2023年11月4日(土)
- 場所：北東アジア歴史財団大会議室(11th Floor)

時間	主題	発表
開会式		
司会：趙胤修(チョ・ユンス)所長 (国際関係と歴史対話研究所)		
09:30~09:40	開会式	司会：趙胤修(チョ・ユンス)所長 (国際関係と歴史対話研究所)
09:40~09:50	記念撮影	参加者全員
09:50~10:00	休憩	
1 部:	アメリカ、イギリス、ドイツ 司会：韓雲錫(ハン・ウンソク) 教授 (ドイツ・チュービンゲン大学 韓国研究所)	
10:00~10:20	アメリカの教科書の東アジア史の記述と歴史認識	曹永憲(チョ・ヨンホン)教授 (高麗大学校歴史教育学科)
10:20~10:40	イギリスの教科書における東アジア史の記述と歴史認識	禹成旼(ウ・ソンミン)研究委員(国際関係と歴史対話研究所)
10:40~11:00	ドイツの歴史教科書における東アジア史認識	許恩哲(ホ・ウンチョル) 教授 (総神大学校歴史教育学科)
11:00~11:10	休憩	
11:10~11:30	ロシアの歴史教科書における中国と日本の現代史の記述	Kim Alexander 教授 (モスクワ国立大学)
第1部 討論		
11:30~12:30	討論者：姜鮮珠(カン・ソンジュ)教授(京仁教育大学歴史教育)、 朴宰栄(パク・ジェヨン)教授(大邱大学教養学部)	
12:30~13:30	午餐	
第2部:	日本、ロシア、ベトナム、モンゴル 司会：劉仁善(ユ・インソン)教授(元ソウル大学東洋史学)	
13:30~13:50	日本の教科書における東アジア古代史の記述と認識 - 法典整備の評価をめぐって -	大隅清陽 教授 (山梨大学大学院総合研究部教育学域)
13:50~14:10	文禄・慶長の役及び朝鮮史に関する日本の教科書の記述と認識	堀新 教授 (共立女子大学 文芸学部)

時間	主題	発表
14:10~14:30	휴식	
14:30~14:50	ベトナムの歴史教科書の東アジア記述	ツオントウイジュン(Truong Thuy Dung) 博士 (ベトナム社会科学院 歴史研究所)
14:50~15:10	モンゴルの歴史教科書の東アジア記述	オランゴア・ジャムスラン(Uranga a Jamsran)教授 (モンゴル国立大学歴史学科)
第2部 討論		
15:10~16:10	討論者: 尹裕淑(ユン・ユスク)研究委員(韓日歴史問題研究所)、 呉美英(オ・ミヨン)研究教授(檀国大学モンゴル研究所)、 権恩姝(クオン・ウンジュ)研究委員(韓国高中世史研究所、教科書研究センター)	
16:10~16:30	休憩	
第3部 総合討論		
16:30~18:00	司会: 禹成旻(ウ・ソンミン)研究委員(国際関係と歴史対話研究所) 教科書研究センターの研究委員および参加者全員	

목 차

발표1. 미국교과서의 동아시아사 서술과 역사인식	13
- 조영헌 교수(고려대학교 역사교육학과)	
발표2. 영국교과서의 동아시아사 서술과 역사 인식	25
- 중국사 서술과 한국사 인식을 중심으로	25
- 우성민 연구위원(국제관계와 역사대화연구소)	
발표3. 독일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아시아사 인식	47
- 허은철 교수(충신대학교 역사교육학과)	
발표4. 러시아 역사교과서의 중국과 일본의 현대사 서술	65
- Kim Alexander 교수(블라디보스톡 국립대 교수)	
발표5. 일본교과서의 동아시아 고대사에 대한 서술과 인식	77
-법전 정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77
- 오우쓰미키요하루(大隅清陽) 교수(山梨大学 대학원종합연구부 교육과학영역 인간과학부)	
발표6. 일본교과서의 임진왜란 및 조선사 관련 서술과 인식	97
- 호리신(堀新) 교수(共立女子大學 문예학부)	
발표7. 베트남 역사교과서의 동아시아 서술	109
- 프엉 투이 중(Truong Thuy Dung)박사 (베트남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발표8. 몽골 역사교과서의 동아시아 서술	151
- 오란고아 잠스란 교수(Urangua Jamsran) 몽골국립대 역사학과	

미국교과서의 동아시아사 서술과 역사인식

조영헌 교수
(고려대학교 역사교육학과)

미국 AP 역사 교과서의 동아시아사 서술과 인식

조영현 (고려대)

1. 분석 대상 미국 역사 교과서의 구성적 특징

이번 교과서 분석 프로젝트에서 미국 분야는 1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미국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AP(Advanced Placement) 과목 가운데 <세계사: 근대(1200년에서 현재까지)>(World History : Modern (1200-Present))의 교과서로, Perfection Learning 출판사의 2022년 출간본이다. AP 프로그램은 대학 수준의 수업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수강하고 시험을 보아 학점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2023년 현재 예술(Arts) 분야로 6과목, 영어 분야로 2과목, 역사 및 사회과학(History and Social Sciences) 분야로 9과목, 수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로 7과목, 과학 분야로 7과목, 세계 언어와 문화로 8과목이 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역사 및 사회과학 분야의 3가지 역사 관련 과목 가운데 하나인 <세계사: 근대> 과목의 교과서이다.¹⁾

AP는 1900년 미국에 설립된 대학입학시험위원회(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줄여서 College Board)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칼리지 보드에서는 AP뿐 아니라 SAT 프로그램처럼 표준화된 시험과 과정을 주관한다. 칼리지 보드에서는 2019년부터 <세계사> 과목을 <세계사: 근대>로 수정했다. AP <세계사: 근대> 과목의 교과서는 주로 3개 출판사에서 출간한 교과서가 활용되는데, 분석 대상인 Perfection Learning 출판사의 교과서는 2023년 현재 아마존(Amazon) 사이트에서 세 출판사 가운데 가장 많은 평가를 받은 교과서이다.²⁾ 이 교과서의 저자이자 검토자(Writers and Reviewers)는 8인으로 모두 AP 역사 교사이거나 시험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고, 선임 검토자(Senior Reviewers)는 모두 AP 시험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다. AP 관련자가 저술 및 검토자로 다수 참여했다는 점이 Perfection Learning 출판사의 교과서가 AP <세계사: 근대>

1) <역사와 사회과학> 분야의 역사 과목은 유럽사(European History), 미국사(United State History), 세계사(근대)(World History: Modern)이다. 사회과학 분야로는 비교 정부 및 비교 정치학, 인간 지리,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심리학, 미국의 정부와 정치학이 있다.

2) Perfection Learning 출판사 외에 Barrons 출판사와 The Princeton Review 출판사의 교과서가 있다.

과목의 교과서로 많이 활용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2022년 기준 31만 4천여 명의 고등학생이 AP <세계사: 근대> 과목에 응시했다.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AP <세계사:근대> 과목의 시험은 3시간 15분 동안 진행된다.³⁾

2019년 개정된 과목명이 세계사 가운데 '근대'에 해당하는데, 구체적 시기는 1200년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아우른다. 유럽사와 미국사가 따로 존재하는 가운데, 오늘날의 세계를 형성하는 세계사의 기원을 대략 1200년 무렵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이채롭다. 1200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대를 크게 4개의 시간대로 구분하고, 각 시간대별로 2개 정도의 유닛(unit)을 구성했다. 대략적인 이해를 위해 목차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시기	유닛	세부 목차
약 1200년- 약1450년	1. 다양한 글로벌 조합 (The Global Tapestry)	1.1. 동아시아의 발전 1.2. 다르 알 이슬람의 발전 1.3.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발전 1.4. 아메리카의 발전 1.5. 아프리카의 발전 1.6. 유럽의 발전 1.7. 1200-1450년 시기의 비교
	2 교환의 네트워크	2.1. 실크로드 2.2. 몽골 제국과 근대 세계 2.3. 인도양의 교환 2.4. 사하라를 초월하는 무역 루트 2.5. 연결성(connectivity)의 문화적 영향 2.6. 연결성의 환경적 영향 2.7. 경제적 교환의 비교
1450-1750년	3 대륙형 제국	3.1 유럽, 동아시아, 그리고 화약 제국의 확장 3.2 제국: 행정 3.3 제국: 종교 체제 3.4 대륙형 제국의 비교
	4 초해양적 상호 접촉 (Transoceanic interconnections)	4.1 기술적 혁신 4.2 탐험: 이유와 사건 4.3 콜럼버스의 교환 4.4 해양 제국이 지역을 연결하다 4.5 해양 제국이 발전하다 4.6 국가 권력에 대한 내부적 외부적 도전들 4.7 변화하는 사회의 위계질서 4.8. 1450-1750년의 연속성과 변화
1750-1900년	5 1750-1900년의 혁명들	5.1 계몽주의 5.2 민족주의와 혁명 5.3 산업혁명이 시작하다 5.4 산업화의 확산 5.5 산업화 시대의 기술 5.6. 산업화: 정부의 기능 5.7. 경제 발전과 혁신 5.8. 산업화된 경제에 대한 반응 5.9. 사회와 산업화 시대 5.10. 산업화 시대의 지속과 변화

3) AP 역사 과목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역사적 사고력의 세 요소는, 1) 비교, 2) 인과관계, 3) 연속성과 변화에 대한 설명 능력이다. 시험 문제는 1) 선다형, 2) 단답형, 3) 자료를 근거로 한 에세이 문제, 그리고 4) 긴 에세이 문제로 구성된다. 학점은 1점에서 5점까지 5단계로 구분되며, 3점(Qualified) 이상을 맞으면 대학교 개론 수업 수준으로 해당 과목의 지적 자질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산업화의 결과들	6.1. 제국주의를 향한 합리화 6.2. 제국의 확산 6.3. 제국 확산에 대한 현지의 대응 6.4. 지구적 경제 발전 6.5. 경제적 제국주의 6.6.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이주의 원인 6.7. 이주의 영향 6.8. 제국 시대의 영향
1900년-현재	7. 1900년 이후의 지구적 충돌	7.1. 변화하는 권력 7.2. 1차 세계대전의 원인 7.3. 1차 세계대전의 양상 7.4. 1차와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경제 7.5.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 7.6. 2차 세계대전의 원인 7.7. 2차 세계대전의 양상 7.8. 집단 학살 7.9. 지구적 충돌의 원인들
	8 냉전과 탈식민화	8.1. 냉전과 탈식민화의 배경 8.2. 냉전 8.3. 냉전의 영향 8.4. 공산주의의 확산 8.5. 1900년 이후의 탈식민화 8.6. 신생 독립 국가들 8.7.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한 지구적 저항 8.8. 냉전의 종식 8.9. 냉전과 탈식민화의 인과관계
	9. 1900년 이후의 세계화	9.1. 기술의 진보와 교환 9.2. 기술적 진보와 한계 - 질병 9.3. 기술과 환경 9.4. 세계화 시대의 경제 9.5. 개혁에 대한 요구와 반응 9.6. 세계화된 문화 9.7. 세계화에 대한 저항 9.8. 세계화된 세상에서의 국제 기구의 발전 9.9. 세계화된 세상에서의 지속과 변화

2. 동아시아 서술과 인식의 특징과 쟁점

<세계사: 근대> 교과서의 전체 내용 및 동아시아 관련 서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현대 세계의 근대적 기원을 13세기 몽골제국부터 파악한다는 점이다. 이는 과목명이 세계사 전체를 다루는 것에서 근대를 다루는 것으로 바뀌었던 2019년 교과목 개정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서구에서 근대의 기원을 유럽의 르네상스나 소위 '대항해 시대'로부터 파악하는 것에 비해서도 사뭇 다른 설정이다. 교과서의 맨 앞에 '서론: 1200년 이전의 역사'를 배치시키면서 간단하게 이전의 역사를 22페이지 분량으로 언급한 부분이 그 이전 역사에 대한 서술의 전부이다. 그 중에서도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후 600년까지의 기간에 등장한 각지의 전통적인 고대 제국에 대한 언급과 불교, 이슬람, 기독교 등 주요 종

교의 전파를 지도로 자세히 언급하였다. 긴 분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언급은 충분히 많고 일본에 대한 언급도 따로 있지만, 한국에 대한 언급은 발견할 수 없다.

1200년 경의 세계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서술은, 중국은 더욱 부유해지고, 이슬람 국가들은 더욱 강해지고, 유럽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학습을 계속한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직후에 등장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몽골 제국의 팽창과 해양 세계에서 유럽의 팽창을 누구도 쉽게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는 ‘유닛1. 다양한 글로벌 조합 (약 1200년에서 1450년)’을 시작하면서 맥락 이해를 위한 두 가지 조건으로 1) 거대한 제국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1200년에서 1450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혁신적인 제국은 중국의 송(宋)이다. 통일되고 번영한 중국을 다스린 일련의 국가 가운데 가장 최근의 왕조”라는 언급과, 2) 중앙 유라시아의 통합을 가져온 현상으로 1200년에서 1450년 사이의 몽골의 등장을 적시한 것과 호응한다. 유라시아 대륙이 몽골 제국을 통해 하나의 통합성을 경험함으로써 1450년 이후를 특징짓는 ‘지구적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관점이다(1). 몽골의 지배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몽골의 지배로 인한 정치적 안정은 유라시아 전역의 무역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었다. 다문화적 교류와 이전(transfer)이 심화되었고, 고대 제국 이래로 유럽과 중국 사이의 첫 직접적인 접촉 가운데 상당수는 몽골의 지배로 촉진되었다.”(67)고 언급하며, “몽골 제국의 부상만큼 무역의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원인은 없었다”(78)고 단언한다.

이는 상호 연관되고 직접 교류하는 글로벌한 세계사의 기원을 1450년 해양 세계를 개척한 유럽이 아니라 그 이전, 즉 13세기부터 등장한 유라시아 대륙의 몽골제국과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인 나라인 중국의 송으로부터 파악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세계사 인식이자 서술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유럽중심주의’로부터 비켜 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틀림 없으며, 1989년 처음 출간된 제닛 아부-루고드의 『유럽 패권 이전 : 13세기 세계체제』 이래 최근 출간된 티모시 메이의 『칭기스의 교환: 몽골 제국과 세계화의 시작』(원서는 2012년 출간)까지 몽골제국에 대한 학계의 뜨거운 관심과 재조명의 결과일 것이다.⁴⁾ 서구 학계에서 15세기 ‘대항해시대’ 이전인 13세기 몽골제국 시기로 글로벌한 세계사의 ‘탄생’을 앞당기는 노력이 상당히 대중적으로도 반향을 일으킨 결과이며, 최근에는 그 탄생을 1000년 경으로 더 앞당기는 저작도 발간되었다.⁵⁾

둘째, 세계사에서 ‘지구적 상호교류’의 관점이 강조되고 역사적 사고의 평가 항목에서 ‘비교(comparison)’가 설정되면서, 동아시아 서술에서도 교류 및 비교의 관점이 강조되었

4) 제닛 아부-루고드 저, 박흥식·이은정 옮김, 『유럽 패권 이전 : 13세기 세계체제』, 까치글방, 2006 : 티모시 메이 지음, 권용철 옮김, 『칭기스의 교환: 몽골 제국과 세계화의 시작』, 사계절, 2020.

5) 발레리 한센 지음, 이순호 옮김, 『1000년 : 세계가 처음 연결되었을 때』, 민음사, 2022. 원서는 2020년 출간되었다.

다. 이에 조공 관계를 통해 중국의 송과 한국이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송과 한국(고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언급했다. 이 부분은 한국에 대한 교과서의 첫 번째 유의미한 언급이기에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조공 관계를 통해 한국(Korea)⁶⁾과 중국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한국은 중국의 정치와 문화의 많은 측면을 모방했다. 한국은 중국 스타일로 정부를 중앙집권화했다. 문화적으로 한국인들은 유교적인 신앙과 불교적인 믿음을 모두 받아들였다.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은 유교 고전을 공부했고, 불교 교리는 농민 대중을 끌어들이었다. 한국인들은 한자 표기법을 채택했는데, 이것은 매우 어색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구조적으로 매우 다른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15세기에, 한국은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개발했다. 한국과 중국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토지를 기반으로 한 귀족 사회가 중국보다 한국에서 더 강력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엘리트들은 중국과 같은 개혁이 실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과거시험이 있었지만, 그것은 농민들에게 개방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료 체제에 진입하기 위한 진정한 능력 기반의 시스템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11) 송과 한국(고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짧은 문장 속에서 이루어진 비교와 대조이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토지를 기반으로 한 귀족 사회’의 강력함이 중국과 같은 개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았다는 언급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이고, 한국의 과거제도에 대해서 ‘진정한 능력 기반의 시스템’이 없었다고 평가하는 대목 역시 중국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부분이지만 한국적 특수성을 배려하지 않은 서술이라 판단된다.

다만 중국과 한국 사이의 조공 관계를 동아시아의 특수한 질서가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보편성이 있는 위계질서로 자리매김하는 서술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도 참신한 접근이다. 명·청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서술하는 부분에 등장하는 서술인데, 조공 관계를 “제국들이 그들의 권력과 권위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다른 국가들로부터 재물, 존경, 복종, 충성 등 다양한 방식의 조공을 받는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공 관계는 아즈텍 문명과 송하이 제국에도 존재했기에 동아시아만의 특수성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도했다(163). 페어뱅크의 조공체제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가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 관계사를 연구하는 서구 학계에서 조공 질서를 21세기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흐름과 연동된 결과라고 사료된다.⁷⁾

6) 교과서의 Korea라는 표현을 ‘고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해당 문장에 송을 ‘China’라 표현했기에 ‘한국’으로 번역하는 적당할 것이다. 해당 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분량이 적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고려와 조선 등 왕조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7) David C. Kang, *East Asia Before the West: Five Centuries of Trade and Tribute* (Contemporary Asia in the World),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 Wang, Yuan-Kang, *Harmony and War: Confucian culture and Chinese power politic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

셋째, 중국이 명 시기에 해양으로의 교류를 중단하고 대륙형 제국으로 전향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강조되었다. 가령 “영락제의 후계자인 그의 아들 주고치(홍희제)는 평화의 여행을 끝냈으며, 그는 또한 모든 중국인들이 중국을 떠나는 것을 중단시켰다.”(99)는 서술이나 “몽골의 새로운 힘이 대한 반응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만리장성의 보호에 의존했다. 몽골의 지배 시기에 장성이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명나라 때 북쪽의 침략자들을 막기 위해 복원되고 확장되었다.”(145)는 언급은 그 일부이다. 그리고 평화의 해양 원정 이후 개인적인 대외 무역을 금지하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이전에 중국을 지배했던 몽골 원나라의 영향력을 되돌리기 위한 명나라 치하의 광범위한 보수주의 패턴의 일부”라고 평가했다.(220) 이는 한국의 교과서에서 보통 ‘해금 정책’으로 간단하게 언급하는 조치의 시대적인 의미 부여인데, 이를 “만리장성을 재건”하면서 몽골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명의 절박함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참신한 해석이다.⁸⁾ 명이 해양으로의 교류를 중단하고 대륙형 제국으로 전향한 것을 북방 지역의 국제정세 속에서 해석한 것으로, 근거 없는 고집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보수주의 패턴”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이후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아메리카의 은과 아시아의 비단, 도자기, 철강 제품이 활발하게 교류를 확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쾌한 해석을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은 유통과 교역망’의 설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진다.⁹⁾

명 시기에 중국에 도착했던 유럽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비교적 정확했다. 가령 “포르투갈의 초기 방문은 중국 사회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상인들의 뒤를 이어 도착했던 프란치스코회나 도미니크회 등 중국인 개종자들을 얻기 위해 노력한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이 뒤따랐다. … 그러나 그들을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 적대적인 신사층 사이에서 많은 개종자들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200-201)는 언급은 상인과 선교사의 흐름이 서로 다른 영향을 주었음을 적시하면서도 그 한계점을 정확하게 서술했다. 다만 이러한 종교적 교류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예수회 선교사들과 중국인 지식인들 사이의 지적 교류와 서학(西學)에 대한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열린 태도에 대한 적극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¹⁰⁾

Feng Zhang, *Chinese Hegemony :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 East Asian History*,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 Lee, Ji-Young, *China's Hegemony: Four Hundred Years of East Asian Dominati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 William Christie, Angela Dunstan and Q.S. Tong eds., *Tribute and Trade : China and Global Modernity, 1784-1935*, Sydney, Australia : Sydney University Press, 2020

- 8) 조영현 지음, 『대운하 시대 1415-1784: 중국은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는가?』, 민음사, 2021, pp.35-37.
 9) 조영현,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은 유통과 교역망' - 주제의 설정과 그 의미』, 『동북아역사논총』 39, 2013 ; 조영현, 『은 유통과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사 입문』, 동북아역사재단, 2020.
 10) 데이비드 문젤로 지음, 김성규 옮김,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만남 1500-1800: 대항해 시대 중국과 유럽은 어떻게 소통했을까』, 휴머니스트, 2009 ; 데이비드 문젤로 지음, 이항만 장동진 정인재 옮김, 『진기한 나라, 중국: 예수회 적응주의와 중국학의 기원』, 나남, 2009.

이에 비하여 청 시기에 해당하는 18세기 후반 영국의 자유 무역 요구와 청 건륭제의 일방적인 답변 등에 대해서는 양자의 주장만 인용할 뿐 이러한 대립이 발생한 근원적 사회변동이나 국제 교역의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이 결여된 점은 아쉽다(146). 또한 “중국은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의 산업화로 인해 중국의 지위는 위협에 직면했다”(455)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극적 대조와 전환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국내적이거나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다. 다만 중국인들이 당시 유럽인들을 “폭력적이고 덜 문명화된 것으로 경멸”했다면서 이러한 보수주의자들이 서태후의 뒤에 모였다는 언급을 할 뿐이다. 사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중국과 유럽 사이에 발생했던 이러한 위상 변화는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고, 포머란츠는 이러한 ‘대분기(great divergence)’를 나름의 관점으로 해석한 바 있다.¹¹⁾ 포머란츠의 문제 제기 이후 서구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교과서에는 이러한 해석이 담겨 있지 않다. 몽골 제국사에 대한 연구 성과의 적극적인 수용과 서술에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청 제국에 대한 서구 학계의 새로운 연구인 ‘신청사(New Qing History)’ 연구가 지난 20여년 동안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의 청에 대한 서술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넷째,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언급에서 중국의 통제 정책과 소수민족의 저항을 서술하고 있다. 가령 청의 건륭제 시기에 합병된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언급을 보면, “건륭제는 서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시작했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대량 학살을 동반한 신장 지역의 합병으로 이어졌다. 오늘날에도 신장의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위구르족이라고 불리는 현지 무슬림 인구는 중국 문화의 나머지 부분에 완전히 통합된 적이 없다.”(145-146)고 명확하게 비판적인 시각을 노출했다. 또한 현대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55개 소수민족들의 요구와 씨름해 왔다. 티베트인들이 더 많은 자치권과 독립을 요구한 것과 신장 북서부의 종교적, 정치적 차별에 대한 위구르인들의 불만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1년에는 중국 내몽골 자치구인 내몽골로 이주한 한족이 그들의 유목 생활에 지장을 준 것에 대해 일부 몽골인들이 항의하기도 했다.”(673-674)는 언급을 덧붙였다. 이는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인권 등에 대한 서구의 비판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중국과 일본 서술 분량에 비하여 한국에 대한 서술 분량은 너무나도 빈약하다. 물론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언급이 훨씬 많지만, 일본사의 중요 맥락은 중간 중간에 계속 등장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 대한 서술은 딱 세 부분에 그친다. 그것도 시작은 앞서 언급했듯, 조공 제도에 대한 중국의 대외 관계를 설명하면서 조선이 잠시 언급된 것이다. 하지

11) 케네스 포머란츠 지음, 김규태 등 옮김, 『대분기: 중국과 유럽, 그리고 근대 세계 경제의 형성』, 예코리브로, 2016.

만 이러한 서술을 통해 13-18세기 동아시아에서 한국(고려와 조선)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에 대한 침묵은 19세기까지 이어지다가, 20세기에 접어들어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과 민족주의 서술이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첫 서술로 등장한다. 이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중국, 일본은 유럽에 의해 공식적으로 식민지화되지는 않았지만 유럽의 지배에 시달렸다. 동아시아 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결권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는 1890년대부터 증가하는 일본의 영향 아래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1910년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중동에서 유럽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이 확대하기를 기대했다. 더 강한 일본에 대한 유럽의 지지와 한국 황제의 의문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1919년 3월 1일 1,7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2백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일련의 시위를 시작했다. 일본 점령군은 이들을 가혹하게 진압하여 수천 명의 한국인이 사살되었으나 3.1운동은 한국 민족주의의 힘을 보여주었다.”(497) 그리고 다시 한국에 대한 전문적인 언급은 사라졌다가 21세기에 대한 언급에 케이팝 문화의 발원지로 언급된다. “다양한 전통을 융합하고 세계적인 히트를 친 또 다른 음악 스타일은 K-pop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국 음악이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노래를 불렀던 예술가들은 21세기 초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그들의 인기는 또한 다른 한국의 문화적 수출품들의 인기를 높였다. 한국 정부는 이를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K-Pop 콘서트와 투어에 투자했다. 유튜브와 비메오와 같은 인터넷 기반의 스트리밍 비디오 사이트들은 K-Pop과 다른 음악 스타일을 세계적인 관객들에게 대중화하는 것을 도왔다.”(682) 이러한 서술만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 및 일본과 차별되는 한국의 위상을 전혀 감지할 수 없다. 심지어 21세기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조차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현상적인 서술이 되어 버렸다. 이는 본 역사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요구했던 바 ‘역사적 사고력’이나 인과관계에 대한 사고력을 전혀 키워줄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제 위안부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는 점인데, 이 역시 일본군의 중국 침략과 관련된 부분에서 서술이 이루어졌다.¹²⁾

결론적으로 AP 교과과 <세계사:근대> 교과서의 동아시아 서술과 인식은, 중국사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반하여 일본사에 대해서는 평점이고, 한국사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국사에 대한 빈약한 서술 분량이나 존재감의 결여는 큰 문제일 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일본사에 대한 서술도 참신한 해석은 거의 보이지 않고 기존의 서술을 답습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가령 예도 막부까지 해양 세계에 대해서 ‘쇄국’처럼 보일만큼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어떻

12) “일본군은 한국, 중국 등 점령국의 여성들에게 일본군의 성적 노리개인 ‘위안부’가 되도록 강요했다.”(524)

게 예도 막부 말기인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처럼 모호한 서술 체계였다. 몽골 제국사에 대한 지나치리만큼 긍정적인 인식 및 서술¹³⁾과 극적 대조를 보이는 이러한 동아시아 인식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균형 문제와 한국사 부분의 분량과 내용 조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13) 가령 “칭기스칸은 역사상 어떤 통치자보다 더 많은 문화적 연결 고리를 건설했다고 볼 수도 있다. 칭기스칸의 사회 정책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자유주의에 가깝다. 예를 들어 그는 13세기에 미래적으로 제국 전역에 종교적 관용 정책을 도입했다.”(87)는 언급은 일정 부분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흥미로운 해석이지만, 편향적인 해석이라 보이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영국교과서의 동아시아사 서술과 역사 인식

- 중국사 서술과 한국사 인식을 중심으로

우성민 연구위원
(국제관계와 역사대화연구소)

영국 세계사교과서의 동아시아 서술과 역사 인식

- 중국사 서술과 한국사 인식을 중심으로

우성민(동북아역사재단 국제관계역사대화연구소)

목차

- I. 서론
- II. 영국의 세계사 교과서의 동아시아
- III. 영국의 세계사 교과서의 중국사 서술과 한국사 인식
- IV. 결론

I. 서론

최근 국내 학계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갈등 상황이 학술 차원을 넘어서 국가가 정치 외교 및 국민 정서로 확대된지 오래지만 개선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국 중심적 역사인식이 더욱 심화되어가는 실정이다.¹⁾

국내외적으로 자국사와 세계사의 융복합을 추구하며 국제학계와의 학술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각국의 세계사 및 동아시아사 교재 집필진들이 동아시아 역사의 다양성과 상호작용성을 새롭게 발견하며 상호교류와 상호협력의 동아시아상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장애요소로 역사 갈등이 현존하는 것이 현실이다.²⁾

2001년 당시 일본 후소샤(扶桑社) 출판사에서 발간한 우익교과서 파동으로 일본 교과서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적 마찰이 있었고, 국내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던 상황에서 2002년부터 고구려사를 중국의 동북지역사에 귀속시키고자 하였던 중국

1) 오병수, 『한중 역사 교과서 대화-근대의 서사와 이데올로기』,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21

2) 宋成有, 「류공동발전을 위해 동북아국가가 응당 기여해야 할 공헌」-『중한일(中韓日)삼국정립론』, 동아시아LOPS포럼 발표집, 2009, pp.199-220

의 '동북공정'의 추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동북공정'이 추진되기 이전에는 고구려사를 비롯한 한국사를 일정 부분 역사 교과서에 기술하고 있었지만 '동북공정'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중국의 역사 인식이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양국 간의 역사 분쟁을 공식화시킨 것이다.³⁾

이처럼 역사교과서는 동아시아 역사 문화 갈등의 동인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관련 서술문제가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교과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의 의지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며 그 나라 국민의 의식을 인도하는 길잡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지만,⁴⁾ 역사교과서는 차세대의 역사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매체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 주류의 이념을 반영하여 기술된다는 점에서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서구 사회의 탈사회주의 정책에 따른 정체성의 위기, 미중 관계를 축으로 한 국제질서의 변동 등 중국이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응의 일환으로 시진핑 집권 이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여 2017년에 중학교, 2019년에 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역사 인식에 대한 수정을 공식화하였다.⁵⁾

지난 2020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 선전부와 교육부는 《신시대 학교 사상 정치 이론》을 배포하여 중고등학교 역사교육과정과 대학 단계의 교양 필수 과정 '중국 근현대사 강요'가 결합될 것을 요구하였다.

문제는 사상정치 이론 과목에서 역사 교육이 강화되는 이유가 중국 교육부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당의 19대 정신,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 관철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사상정치 이론과목 교사는 마땅히 국가 '통편 교재'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어른 바 '중국 학술을 번영시키고, 중국 이론을 발전시키며, 중국 사상을 전달할 것'을 주문하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반영한 '통편 교재'는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와 중화민족 스타일을 강조하는 바, 중국의 초·중·고등학생에 이어 대학생까지 중국 중심의 팽창주의가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교롭게도 중국 고등교육은 신중국 성립시기 이전부터 대학의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소련 등의 선진국들의 경험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자체의 발전 경로를 탐색해왔다. 발전모델로는 미국과 유럽각국의 특징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미국

3) 권은주, 책머리에, 『중국 시진핑시대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담론』, 2021, 동북아역사재단

4) 권소연, 김유리의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 서울 : 고구려연구재단, 2006, p.9

5) 유용태, 「'중국의 중국'에서 '세계의 중국'으로-중국 국정 역사교과서(2019)속의 중국과 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중국·대만·홍콩 등 중화권 역사교과서 서술 비교 분석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21, 동북아역사재단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가지 개선부분이 적용되었다. 그러다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소련형 대학을 모델로 하여 전면적으로 소련을 학습하였지만 실패를 경험한 이후 개혁개방 이래 서양의 발달한 교육개혁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세계대학의 주요 모델이었던 미국 대학의 체제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중국 학계에서 대학이 서양대학의 종속물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⁶⁾ 사상, 학술, 문화, 교육 등의 차원에서 중국인들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급기야 오랫동안 서구를 모방했던 중국대학이 세계 지식체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서구가 설립한 규범과 제한에서 독립하여 중국 민족문화의 특징을 지닌 대학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0년대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고 글로벌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자, 해외의 교육 모델을 따라가는 단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체 교육 모델을 확립하고자 하였고, 중국식 사회주의 이념 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명 전통을 교양교육의 핵심 주제로 삼아 국가 정체성을 재구축하고 국가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사례에서 확인하였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등 유럽의 모든 학생에게 전수해야 할 공통의 자원으로 간주한 서구문명 전통의 자리를 중국문명의 제도적, 사상적, 문화적 자원으로 대체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학계의 중국사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 인식과 역사교과서 속의 서술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역사 시리즈 중 가장 권위 있는 영문 출판물로서 세계의 중국사 및 동아시아사 강의에서 교과서 또는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케임브리지 중국사』의 경우 최근 출판된 『구미학계의 중국사 인식과 한국사 서술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구학계와 중국학계의 역사 인식의 차이와 대립점 등이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영국 세계사교과서 속의 동아시아 역사인식을 검토하면서 동일한 주제를 두고 중국 역사교과서의 서술과의 차이점과 특징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를 위해 영국 교과서 속의 동아시아 서술 내용을 파악을 전제로 한다. 이는 영국인들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 대한 역사 인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아시아의 역사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이해와 우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동아시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6년 고교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 과목을 신설한 이래 국내에서는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유익한 시사점을 찾고자 당시 동아시아사가 유럽의 교육과정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미국과 함께 유럽 역사

6) 최은진, 「1990년대 이래 중국의 대학개혁과 서구대학모델 수용의 함의」, 『中國近現代史研究』 75.

의 교육과정을 주목하였다. 영국·프랑스·독일과 러시아의 역사교과서들은 전반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근현대사에 상당한 관심과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지만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고 일부에는 아직도 서구중심적인 시각이 남아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유럽 중 영국, 독일, 프랑스의 동아시아사 서술과 교육을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외국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였는지를 분석하고 해당 국가의 교육 당국에 시정을 건의하는 수준에서 전개되었음을 밝혔다. 환언하면 미국과 유럽 교과서들에서의 한국사에 대한 서술은 많이 분석되었지만 동아시아사를 함께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없었던 것이다. 이에 동아시아를 지역으로 묶어서 서양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동아시아사 서술하고 교육하는지 분석한 『유럽과 미국의 동아시아 교육』(2009)으로 발간하였다.⁷⁾ 또한 영국의 가장 최근의 국가 교육과정인 2014년 9월 시행된 이래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을 연구하면서 2016년 영국의 유럽회의주의 역사교육과 브렉시트라는 주제로 국가주의, 영국 예외주의관점에서 영국 가치교육 추구로의 전환을 다룬 연구성과도 발표되었다.⁸⁾

본 연구는 이를 대표적인 선행 연구 성과로 활용하였으며, 2019년 이후 출판된 영국 세계사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특히 영국 세계사교과서 속의 동아시아 역사인식을 검토하면서 동일한 주제를 두고 중국 역사교과서의 서술과의 차이점과 특징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를 위해 영국 교과서 속의 동아시아 서술 내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영국인들이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인식과 함께 중국과 한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영국의 세계사 교과서의 동아시아

영국의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책, 심지어 전문적인 출판사에서 발행되지 않은 교재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교과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도서'와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교사가 출판사의 목록에서 선정한 도서' 등 교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책들을 총칭하고 있기에 해마다 2,000종 이상의 교과서가 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최대 규모의 글로벌 학술 출판사로 언급되는 영국의 대표적 다국적 출판 회사인 라우틀리지(Routledge)에서 출판한 세계사⁹⁾와 세계적인 백과사전 전

7) 한운석, 『유럽과 미국의 동아시아 교육』 동북아역사재단, 2009

8) 강선주, 「영국의 유럽회의주의 역사교육과 브렉시트」, 『세계의 역사교육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동북아역사재단, 2019

9) 라우틀리지(Routledge)에서 출판한 세계사에 대한 검토는 추후 보완할 예정이다.

문 출판사로 평가되는 1974년 영국에서 처음 설립된 국제출판사 돌링 킨더슬리(Dorling Kindersley)에서 출판한 세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돌링 킨더슬리(Dorling Kindersley)에서 2017년 출판한 『세계사, 고대세계로부터 정보시대까지(World History: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Information Age)』의 경우 『눈으로 보는 세계사 Eyewitness : World History』 등 전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여러 책들을 집필한 필립 파커(Philip Parker)가 저자로 목차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World History: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Information Age』 목차

세부 목차	
내용	초기 메소포타미아 49 선사 시대 이집트 49
서문 10	고대 세계 50 기원전 3000~700년의 세계 52
역사란 무엇인가요? 12	근동 지역
고대의 과거 16	우르 55
최초의 역사가 18	아카드 제국 55
학문의 시대 20	바빌론의 부상 56
새로운 제국의 시대 22	히타이트 57
과거, 현재, 미래 24	청동기 시대 후기 붕괴 58
선사 시대 세계 26	페니키아 58
기원전 3000년까지의 세계 28	아시아 제국 59
인류의 조상	문자의 발명 60
오스트랄로피테쿠인 30	이집트
호모 하빌리스 31	고대 왕국 62
호모 에렉투스 31	피라미드 63
도구 제작과 언어 32	중왕국 66
네안데르탈인 33	이집트의 종교 67
최초의 인류	신왕국 이후 68
빙하기 34	유럽
아프리카의 호모 사피엔스 35	미노스 크레타 70
세계 정착 36	크노소스 궁전 71
수렵 채집인 38	미케네 71
예술과 의식 39	남아시아
초기 사회	인더스 밸리 문명 74
농업의 요람 42	모헨조다로 75
농경의 확산 43	동아시아
최초의 마을 44	초기 중국 문화 76
금속의 발견 45	상 중국 77
거석 46	(이하 중략)
최초의 마을 48	대초원의 사람들
초기 메소포타미아 49	스키타이 116
선사 시대 이집트 49	훈족 117
고대 세계 50	쿠산족 117
기원전 3000~700년의 세계 52	

<p>근동 지역 우르 55 아카드 제국 55 바빌론의 부상 56 히타이트 57 청동기 시대 후기 붕괴 58 페니키아 58 아시리아 제국 59 문자의 발명 60</p> <p>이집트 고대 왕국 62 피라미드 63 중왕국 66 이집트의 종교 67 신왕국 이후 68</p> <p>유럽 미노스 크레타 70 크노소스 궁전 71 미케네 71</p> <p>남아시아 인더스 밸리 문명 74 모헨조다로 75</p> <p>동아시아 초기 중국 문화 76 상 중국 77</p> <p>아메리카 대륙 페루의 차빈 78 올멕 79</p> <p>고전 세계 80 기원전 700~기원후 600년의 세계 82 (이하 중략)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동일된 중국 136 당나라 중국 137 송 중국 138 몽골과 명나라 중국 139 몽골 142 초기 일본 144 아스카 시대와 나라 시대 144 헤이안 시대 145 가마쿠라 시대와 무로마치 막부 146 화약 무기 148 중세 한국 150 크메르 제국 152</p>	<p>인도 찬드라굽타와 마우리아 인의 부상 118 아쇼카와 불교 119 굽타 인도 119 세계 종교 122</p> <p>중국 전쟁 국가 124 초대 황제 125 한 중국 126 아메리카 대륙 테오티우아칸 128 자프텍 129 고전 마야 문화 130 초기 남아메리카 131</p> <p>중세의 세계 132 600~1450년의 세계 134 비잔틴의 서발과 몰락 179</p> <p>아메리카 대륙 돌텍 180 마야 180 아즈텍 182 초기 북아메리카 아메리카 문화 183 초기 문화 남아메리카 184 잉카 제국 185</p> <p>폴리네시아 폴리네시아의 확장 그리고 항해 188 마오리족 189 이스터 섬 189</p> <p>초기 근대 세계 190 1450~1750년의 세계 192</p> <p>아시아 명나라의 쇠퇴 194 청의 부상 195 청나라의 중국 195 일본 통일과 도쿠가와 막부 196 무굴 제국의 인도 198 오스만 제국 202 사파비 페르시아 204 디스코의 항해 206</p> <p>아메리카 대륙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다 208</p>
---	---

<p>이교도 버마 152 참파 153 다이 비엣 153 스리비자야 153 중동 및 북아프리카 154 이슬람의 부상 154 이하 중략</p> <p>유럽 이탈리아의 오스트로고스 및 롬바르드족 162 이하 중략 흑사병 176 백년전쟁 177</p> <p>비잔틴 제국 초기 비잔틴 제국 178</p> <p>위대한 북부 전쟁 227 17세기 프랑스 그리고 절대주의 228 자본주의의 부상 그리고 노예 무역 229 그리고 계몽주의 230</p> <p><i>제국의 세계 232</i> <i>1750~1914년의 세계 234</i></p> <p>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의 유럽인 236 이하 중략</p> <p>유럽 (이하 중략)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 260 산업 혁명 264 산업화와 노동 운동 266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267 과학적 진보 268</p> <p>아시아 플라시 전투 270 인도의 영국 271 인도 반란 272 버마 전쟁 272 과학 혁명 터키 개혁 운동 273 청나라 274 메이지 유신 276 이하 중략 일본의 패전 332 원자 폭탄 334</p>	<p>스페인, 멕시코 정복 209 스페인, 페루 정복 209 스페인 제국 신대륙 210 유럽 식민지 북아메리카 211 무역 제국 212</p> <p>유럽 휴머니즘 214 르네상스 215 종교 개혁과 반개혁 218 인쇄술 220 이탈리아 전쟁 221 프랑스 종교 전쟁 221 스페인의 부상 222</p> <p>태평양 탐험 278 제1함대 279 호주 탐험 279 호주 연방 280 유럽 정착 뉴질랜드 280 뉴질랜드 전쟁 281 남극 탐험 281</p> <p>아프리카 초기 탐험가들 282 아프리카를 향한 출격 283 무하마드 알리 치하의 이집트 284 마흐디스트 운동 284 보어 전쟁 285 현대 세계 286 1914-현재의 세계 288 제1차 세계 대전 사라예보에서의 암살 290 전쟁으로의 확대 291 서부 전선 292 바다에서의 전쟁 294 동유럽 전쟁 294 갈라폴리 295 발레스타인과 아랍 반란 295 서부의 교착 상태 296 미국의 참전 296 전쟁의 종결 297 베르사유 조약 300</p> <p>전쟁 사이 러시아, 혁명으로 향하다 302 1917년 혁명 303 러시아 시빌 전쟁 304</p>
---	---

<p>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 마셜 플랜 336 유럽 공동체 337 유럽의 동구권 337 냉전 338 아일랜드와 문제 340 ETA 341 페레스트로이카 341 공산주의의 붕괴 342 유고슬라비아 전쟁 346 유럽의 새로운 도전 347</p> <p>아메리카 대륙 미국 경제 성장 348 메카시즘 349 JFK 암살 349 시민권 350 우주 경쟁 352 쿠바 혁명 353 아옌데와 피노체트 354 페론과 아르헨티나 354 라틴 아메리카의 미국 355 민주주의의 귀환 라틴 아메리카로 356 포클랜드 전쟁 356 북미자유무역협정 357</p> <p>아시아와 중동 인도 국민 회의 358 인도의 분할 359 탈식민지화 360 이스라엘의 탄생 362 아랍-이스라엘 분쟁 364 석유와 정치 366 이란 혁명 367 소베트남 침공 아프가니스탄 침공 368 인도-파키스탄 전쟁 368 이란-이라크 전쟁 369 제1차 걸프전 369 공산주의 중국 370 한국 전쟁 372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372 베트남 전쟁 373 일본, 중국, 그리고 호랑이 경제 374</p>	<p>레닌과 스탈린의 러시아 305 대공황 306 파시즘의 부상 308 스페인 내전 312 여성과 투표권 313</p> <p>제2차 세계 대전 독일이 전쟁으로 가는 길 314 전격전과 프랑스의 몰락 315 영국 전투 316 제2차 세계대전의 공군력 317 독일의 소련 침공 318 스탈린그라드 전투 319 북아프리카 전쟁 320 이탈리아 전쟁 321 진주만 322 일본의 진격 323</p> <p>아프리카 로디지아와 UDI 375 식민지 이후 아프리카 376 아파르트헤이트의 종말 378</p> <p>새로운 도전 생명공학 382 의료 발전과 새로운 질병 383 세계화 384 기후 변화와 친환경 운동 386 통신 혁명 390 9/11 391 아프간 전쟁 392 이라크 전쟁 393 국민 국가를 넘어서 394 아랍의 봄 396 ISIS와 글로벌 테러 397 유럽 연합과 포퓰리즘의 위기 398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99</p> <p>색인 400 감사의 말 414</p>
---	--

목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는 단편적으로만 서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 관련 부분은 전체 분량의 1% 미만으로 매우 소략하게 서술하고 있고, 일본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중국 관련 서술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영국의 세계사 교과서의 중국사 서술과 한국사 인식

다음은 돌링 킨더슬리(Dorling Kindersley 이하 DK)에서 2017년 출판한 『세계사, 고대세계로부터 정보시대까지(World History: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Information Age)』의 동아시아 관련 서술 중 중국사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초기 중국 문화(76쪽)

중국 기원전 4500~1800년 전

후기 신석기 시대 중국에서는 다소 복잡한 마을 문화가 생겨났다. 양샤오 문화는 중국 중부의 황하 유역을 따라 등장했으며, 현재까지 천 개 이상의 유적지가 발굴되었다. 가장 잘 알려진 유적지 중 하나인 반포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양샤오 사람들은 기장을 재배하고, 연마한 석기를 사용했으며, 대미와 비단을 입었다. 그들은 종종 나선형 무늬로 장식된 황토로 만든 항아리를 만들었으며, 마을에서 발견된 일부 매장지에서는 영계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볼 수 있다. 황하 하류의 산둥성 용산에서는 또 다른 문화가 더 정교한 검은색 도자기(일부는 물레를 사용)와 돌도끼를 만들었다. 이 문화는 양쯔강 중하류 유역을 따라 남쪽으로 멀리 퍼져나갔다. 1959년 고고학자들은 허난성의 황하 계곡에서 얼리토우 문화를 발견하여 궁전과 같은 건물, 무덤, 청동 유물을 발굴했는데, 이는 중국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유물이다.

DK 『세계사』에서는 초기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중국 기원전 4500~1800년 전으로 해석하면서 양샤오 문화와 얼리토우 문화 등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2기 이래 국정화된 중국 역사교과서에서는 고고학자들에 의해 운남성 원모현에서 발굴된 상고시대 인류의 앞니 화석 두 개와 거친 석기, 숯가루, 불에 탄 뼈 등을 근거로 원모인이 지금으로부터 약 170만년전 중국 국경내에서 확인된 최초의 고대 인류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7,000~8,000년 전 장강유역에서 발굴된 난간식 다락집 건축을 근거로 절장성 余姚에 위치한 하모도 유적지 하모도인의 가옥을 중국에서 가장 이른 목조 건축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이 외 2070년 우(禹)가 부락 연맹 국면의 막을 내리고 하왕조를 세웠다고 서술하고 있다.禹 재위시 남방의 삼묘족을 정복하고 양성(陽城)에 성지(城池)를 건설하고 각종 제도를 제정한 내용을 설명하며 군대를 만들고, 형법 제정, 감옥 설치, 하력(夏曆, 하나라 역법) 제정하였음을 상세히 다루면서 고고학자들이 낙양에서 하왕조의 도성 유적지인 이리두 유적지를 발굴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곳에 궁전 건축군, 대형 묘장, 수공업 작업장, 제기로 사용된 목기, 악기, 청동 주기, 녹송석(綠松石)이 상감된 청동 방패, 왕실에서 사용한

예기 등이 출토되어 하조의 문명의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 고대사 기원에 대한 영국학계와 중국학계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서구학계가 중국의 전래문헌 등을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있으며, 의고학풍이 만연하고 '의고', '신고'에 대한 논쟁이 현재도 진행중임을 보여주는 서구학계의 중국 고대사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¹⁰⁾

(2) 최초의 황제 중국 기원전 246-206년

기원전 246년 진시황은 진나라의 왕위에 올랐다. 활기차고 무자비한 통치자였던 그는 기원전 230년부터 다른 모든 중국 국가를 흡수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221년 제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과정을 마무리했다.

진시황은 '초대 황제'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 진시황은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련의 개혁을 시작했다.

초대 황제의 개혁

진시황은 재상 이사의 지도 아래 법가 개혁을 단행하여 봉건적 호족제를 폐지하고 표준화된 문자를 채택하고 무게와 길이에 대한 공식적인 도량형을 제정하도록 명령했다. 기원전 213~212년에는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는 서적의 불태우기를 명령하고 학자들을 숙청하여 약 450명을 처형했다. 진시황은 중국의 국경을 강화했다. 그의 장군 몽염은 내몽골 오르도스 지역(만리장성의 전신)에 방어벽을 건설했고, 수도 시안에서 오르도스 지역까지 500마일(800km)에 이르는 직선 도로를 건설하여 군대를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둥의 새로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중국 역사교과서에서는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적 다민족 봉건국가를 세우고 통일을 견고히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한 내용을 강조한다. 한편 진시황의 폭정으로 인해 결국 농민 반란이 일어나 멸망하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진시황의 '분서갱유'에 대한 서술은 기피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DK 『세계사』에서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는 서적의 불태우기를 명령하고 학자들을 숙청하여 약 450명을 처형했다'는 사건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 외, 한중 역사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리장성의 동단 연장 학설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역사의 시간적 공간적 확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장성의 확장이 포함될 것이다. 만리장성의 동단 연장 학설이 비록 중국학계 내에서도 아직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교과서상에는 다소 무리하게 반영한 인상을 준다

10) 심재훈, 『『케임브리지 중국고대사』의 의고와 신고』, 『구미학계의 중국사 인식과 한국사 서술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21

예를들면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진시황은 몽염 대장을 파견하여 북쪽으로 흉노를 치고 장성을 쌓게 하였다. 장성은 서쪽의 臨洮로부터 동쪽의 요동까지 이르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 알려진 "만리장성"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DK 『세계사』에서 장성에 대한 범위도 내몽골 오르도스 지역(만리장성의 전신)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한족의 전성기

무제(기원전 141~87년 재위)의 통치 아래 한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무제는 귀족들의 남은 권력을 줄이고 직접 뽑은 관료에게 의존했으며, 기원전 124년에는 미래의 공직자를 위한 사관학교를 개교했다. 기원전 115년에는 물가를 정부 통제하에 두기 위해 국가 곡창지대를 설립하기도 했다. 무제는 기원전 114년부터 91년까지 북쪽의 유목민 흉노족과 오랜 전쟁을 치르며 중국 제국의 국경을 확장했지만, 북동쪽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어 기원전 128년, 한국에 4개의 군현을 세웠고, 기원전 111년에도 광둥, 광지, 그리고 북부 베트남에 사령부를 세웠다. 그러나 황제의 통치 후반부는 황제의 내면 성찰과 불멸에 대한 추구로 인해 손상되었다.

이상의 서술과 관련하여 국내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역사가 중국 한나라의 식민지인 한사군(漢四郡)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서술한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역사교과서에서는 A.D. 200년 이전의 한국 고대국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정치체의 언급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신판 중국 역사교과서에서는 한무제이후 서한의 상인들은 늘 바다에 나가 무역하면서 해상교통요도를 개척하였다고 소개하고 이것이 바로 유명한 해상 실크로드라고 설명을 추가하였다. 다만 일본을 왜로 표기하였지만 한반도가 '朝鮮半島'로 표기되고 국호가 없이 공백지대로 표현하고 있는 점은 국내학계가 중국학계와 다른 서구학계의 한국 고대사에 대한 인식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¹¹⁾

(4) 당나라 중국 중국 618-907

617년, 불운한 고구려 침공으로 지쳐 있던 수나라에 맞서 국경 장군 이연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해 말 수나라의 수도 장안을 점령한 이연은 624년까지 중국 전역을 장악하고 당나라의 초대 황제인 고조로 즉위했다. 당 왕조는 특히 고조의 후계자 태종(재위 626~649)의 통치 아래 번영을 누렸다.

중략

11) 이정빈, 「중국 개정 중등 역사교과서(2016~2018)의 한국고대사상」, 『시진평시대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담론』, 동북아역사재단, 2021

- 이연

귀족 가문 출신인 이연은 613년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장군으로 참전했다. 618년 양무제가 군사 쿠데타로 죽자 이연은 혼란을 틈타 마지막 수나라 황제를 몰아내고 자신이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 역사교과서는 수양제가 세 차례 대거 고구려를 '정벌'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DK 『세계사』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설명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양제의 고구려 '침략'을 '정벌'로 표현하여 독립 국가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 아닌, 중국 중앙왕조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국내학계의 지적을 상기한다면¹²⁾ 구미학계의 한국 고대사 인식을 반영한 상기 서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1206-1405

13세기 초 이전에는 중국 북쪽과 서쪽의 여러 유목민 집단이 주기적으로 정착 지역으로 들어왔다. 일부는 전투에서 패배했고, 다른 일부는 억류되었으며, 다른 일부는 여전히 중국 문화에 동화되었다. 몽골족도 이러한 집단 중 하나였지만 1206년 칭기스칸이라는 칭호를 얻은 테무친이 지도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절망적으로 단결하지 못했다. 칭기스칸은 자신의 최고 통치를 선포하며 몽골 부족들을 하나로 묶었고, 대초원과 주변 땅을 지배한 그의 통치는 한 세기가 넘도록 계속되었다.

몽골의 정복

1218년 칭기스칸은 중앙아시아의 카라 키탄 칸국을 정복한 후,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현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크와레즈미드 제국을 상대로 3년간에 걸친 파괴적인 전쟁을 벌였다. 이 기간 동안 몽골은 실크로드의 도시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약탈하고 학살하면서 무자비한 전사로 명성을 얻었다. 감히 저항하는 모든 마을의 주민들을 학살했다. 기동력이 뛰어나고 빠른 속도로 공격할 수 있는 뛰어난 기병이었던 몽골군은 잘 조직된 국가에게도 강력한 적이었다. 칭기스칸은 1227년에 죽었고, 1229년 '대칸'이라는 칭호를 물려받은 오구데이는 몽골 군대를 중국으로 보내 여진족을 밀어냈다(p. 139 참조)를 1234년까지 북쪽에서 몰아냈다. 그 후 오게데이는 서쪽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1240년까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키예프를 포함한 거의 전역을 점령했다. 그럼에도 몽골의 영토 확장 욕구는 꺾이지 않았고, 이듬해 레그니차에서 폴란드-독일 연합군을 격파했다. 폴란드는 다음 차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 서쪽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중략

DK 『세계사』에 다른 몽골사에 대한 서술은 구미와 중국학계의 역사 인식의 간극을 보

12) 권은주, 『『중외역사강요』의 한국고대사·동아시아사 서술 내용과 역사인식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2020

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왜냐면 구미학계의 경우 한족왕조에 비해 출시되던 북방민족 왕조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정복왕조 거란, 대하, 금, 몽골이 중원을 정복하고 다민족·다언어·다문화 제국을 통치하게 된 배경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북방민족이 한족 문화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한족과 별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중국 역사교과서에서는 몽골족은 중국 북방의 오래된 민족으로 강조하고 있다.¹³⁾ 쿠빌라이는 칭기스칸의 손자로 1260년에 칸의 자리를 계승하였다고 설명하면서 1271년 쿠빌라이는 국호를 원으로 바꾸고 다음해 대도(大都)에 도읍을 정한 사건을 다루었다. 이어서 원조는 남송을 멸망시키고 전국 통일을 완성하여 '우리나라(중국)' 역사상 비교적 장기간 분열되었던 할거 국면을 종결하고 통일된 다민족국가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하여 기초를 닦았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구미학계, 일본 등 학계에서 원나라를 포함한 몽골제국 역사를 몽골사로 간주하는 것과 달리 중국사임을 강조하는 중국 학계의 역사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6) 공산주의자 중국(370쪽-371쪽)

중국 1949~현재

1934년 10월, 중국공산당은 민족주의 국민당 경쟁자들에 의해 대부분 농촌에 갇힌 재지안시 기지를 버리고 민족주의 봉쇄를 뚫고 더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위해 '대장정'을 시작했다. 대장정은 약 6,200마(10,000km)의 행군이 이어졌고, 1935년 10월 공산당이 옌안에 새로운 본부를 세웠을 때, 행군 대원 중 약 1/10만 살아남았다

- 마오쩌둥 후난성의 농민 가정에서 태어난 마오쩌둥(1893-1976)은 1919년 베이징으로 이주하여 처음으로 공산주의를 접했다.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과 함께 중국공산당에 입당했고, 1927년 '가을 수확' 공산주의 봉기를 이끌었다. 1935년 당을 장악했다. 1949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의 지도자로 오랫동안 재임하면서 중국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1966~1976) 당시 배우들이 전통적인 보수적 사고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공자를 비판하는 연극을 공연하고 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은 재편성되었고, 1946년 7월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중국의 지배권을 빼앗기 위해 내전을 시작했다. 마오쩌둥의 군대는 초기에 심각한 좌절을 겪었지만, 지원군을 모집할 수 있었고 1947년 겨울에는 만주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민족주의자들의 최정에 군대는 그곳에서 전사했고 1948년 내내 후퇴했다. 마침내 1949년 1월 마오쩌둥은 승리를 거머쥐고 베이징에 입성했고, 남은 민족주의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중공)과 경쟁하기 위해 대만 섬으로 피신해 중화민국을 세웠다. 처

13) 윤영인, 「서구학계의 정복왕조 거란-서하-금-몽골제국사 서술: 『케임브리지 중국사 6권: 외국정권과 변경 국가, 907-1368년』, 『구미학계의 중국사 인식과 한국사 서술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21

음에 중국은 1950년 동맹 및 상호 원조 조약에 동의하면서 소련과 정치적으로 협력했다. 그러나 1960년대 스탈린이 중국의 개입을 부추긴 한국전쟁(372쪽 참조)의 희생에 대한 중국의 분노와 1969년 3월 소련과 군사적 충돌로 번진 영토 분쟁은 양국 관계를 긴장시켰다.

국내적으로 마오쩌둥은 급진적인 산업화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1958년 공업 협동 조합과 농업 협동 조합을 공동체로 통합하고 산업 목표를 높이는 '대약진'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중국이 눈부신 생산량 증가를 달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이러한 정책이 재앙적인 기근을 초래했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1966년, 중국에서 '부르주아'의 영향력을 청산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다. 어린이들은 홍위병으로 모집되었고, 정권에 반대하는 징후를 보이는 학교 선생님과 친척을 제보하도록 장려되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그의 아내 장칭과 '4인방'으로 알려진 당파가 권력을 장악하려 했으나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대신 이후 15년 동안 중국은 덩샤오핑은 중국 경제를 중앙 집중식 계획에서 벗어나 대외 무역 규모를 늘리고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일련의 조치를 도입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중국 경제가 매년 약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1988년 다른 공산주의 정권이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중국은 자체적인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고, 1989년 6월 한동안은 당의 정치적 독점 체제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리펑 총리는 군대에 진압을 명령했고, 1989년 6월 4일 군대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약 400~8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비슷한 규모의 반대 운동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 국민과의 암묵적인 거래는 경제적 복지의 대가로 공산당의 중심 역할을 수정하지 않고 모든 반대를 억압한다는 것이었다.

신중국 성립 이후를 다룬 중국 현대사의 경우 전근대사보다 중국학계와의 역사인식의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역사교과서에는 문화대혁명에 대해 소략하거나 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화대혁명의 발발은 복잡한 사회역사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국가의 역사는 매우 짧아 중국공산당은 무엇이 사회주의인지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여서 탐색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두둔하고 있다. 개정판 중국 역사교과서에는 인간 세상에는 순풍에 돛다는 식으로 순조로운 일이 없으며 세계역사는 언제나 파란만장한 곡절을 겪으면서 전진한다는 새로운 해석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기피하는 천안문 사건에 대해 서구학계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과 달리 중국 역사교과서의 학습지도 요령에 의하면 '동란'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한국사에 대한 서술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7)중세 한국

한국 기원전 108년-1910년

한반도는 아주 초기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기원전 108년, 한(漢) 군대가 정복하여 (127쪽 참조) 그곳에 일련의 군현을 설치했다. 기원전 1세기부터 한나라가 쇠퇴하면서 세 개의 라이벌 왕국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경쟁했다: 남동쪽의 신라, 남서쪽의 백제, 북쪽의 고구려. 가야로 알려진 작은 도시 국가 그룹도 기원전 40년경부터 532년경까지 동남부에서 번성하여 더 큰 이웃 국가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 왕건

고려 왕조의 시조인 왕건(재위 918-943)은 반신라 반란군 궁예의 장군으로 왕건을 총리로 하여 태봉국을 세웠다. 궁예의 통치가 폭압적이 되자 왕건은 그를 폐위시켰다.

한국의 통일

신라, 백제, 고구려의 패권 다툼은 668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를 삼국 시대라고 한다. 기원전 57년에 건국된 신라가 세 나라 중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했다. 불교를 받아들인 법흥왕(재위 514~540년)의 치하에서 신라는 백제의 영토를 침범했다. 백제는 일본과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4세기에 불교가 한국에 전파되는 통로 역할을 했다. 4세기 백제는 일본과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660년 백제가 신라에 멸망한 후 많은 백제 귀족들이 일본으로 망명하여 여러 다이묘(군주) 가문의 조상이 되었다.

고구려는 중국의 잦은 개입으로 수도 환도가 여러 번 파괴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왕국은 회복되었고 광개토대왕(재위 391~413년)은 한반도 대부분을 정복했다. 그러나 내부 분쟁과 백제, 신라의 압력, 7세기 초 수나라 및 당나라와의 갈등(136~7쪽 참조)으로 인해 고구려는 쇠퇴했고, 668년 신라에 함락되어 신라 문무왕에 의해 한국의 통일이 완성되었다.

통일 신라에서 중국식 관료제를 도입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귀족들의 저항에 부딪혀 9세기 후반에 고려는 다시 분열되었다. 내전이 이어지다가 935년 고려 왕조의 시조 왕건에 의해 다시 한번 통일이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번영했지만 12세기에는 내전을 겪었고 14세기에는 중국 몽골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고려는 1392년 이성계 장군의 반란으로 마침내 멸망했다.

조선 왕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건국하였고, 조선 왕조는 근대까지 한국을 통치하고 1910년에야 마침내 사라졌다. 이성계의 아들 세종은 인간 행동의 모든 측면을 근본적인 보편적 질서와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일련의 신유교적 개혁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세종은 중국식 공무원 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한글을 위한 새로운 표음문자(한글)를 창제했습니다. 또한 천문학과 기상학 등 과학의 발전을 장려하고, 농촌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농업 개혁을 추진하였다.

세종의 후계자들은 관료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학자-관료 간의 경쟁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로 인해 조선의 국력은 약화되었고, 1590년대에 일본이 침략했을 때 조선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다. 6년 동안 두 차례의 침략으로 조선은 황폐화되었지만, 일본군은 결국 격퇴되었다. 조선은 17세기에 재건되었고, 영조(1724-1776)와 그 후계자들의 통치는 19세기 말까지 평화를 가져왔지만, 한국은 일본, 러시아, 중국 간의 경쟁에 휘말려 결국 일본의 보호령이 되었다(274-7쪽 참조). 조선의 왕은 결국 1910년에 왕위에서 쫓겨났다.

2018년 9월부터 사용중인 개정판 중국『세계역사』(9학년, 상권)의 한국사 서술 내용을 비교하자면 제4단원 봉건시대의 아시아 국가 제11과 '고대 일본'에서 일본사를 4페이지에 걸쳐 설명하면서¹⁴⁾ '지식개척'라고 하는 작은 박스에 '고대 조선'제하에 다음과 같이 한국사를 소개하고 있다.

〈표2〉 개정판 중국 『세계역사』(9학년, 상권)의 한국사 서술 내용¹⁵⁾

지식개척

고대 조선

3-4세기, 조선반도에 기본적으로 고구려, 백제와 신라 삼국이 정립하는 국면이 형성되었다. 676년 신라가 조선반도의 대부분 지역을 통치했다.

10세기, 왕건이 고려 왕조를 건국했고, 당왕조의 제도를 모방하고 따라서 3성 6부제를 설립했고, 과거제 시험을 도입하여 관리를 선발하였다. 14세기 말 고려대장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세워 국호를 조선으로 개칭하였다.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사에 대한 서술이 일본사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중국『세계역사』(9학년, 상권)의 한국사 서술의 분량과 내용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2003년 3월 출판된 『세계역사』제2단원 '아시아와 유럽의 봉건사회'에서는 일본 봉건사회 특징과 아랍국가의 건립을 독립적으로 서술한 반면 한국에 대한 서술은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동북공정 이후 한중, 고구려사 왜곡 5개항 구두양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4) 教育部組織編纂, 齊世榮 總主編, 『義務教育教科書 世界歷史 九學年』 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8), pp.68-71

15) 教育部組織編纂, 齊世榮 總主編, 『義務教育教科書 世界歷史 九學年』 上冊.

(8) 372쪽 한국 전쟁

한국 1950-1953

1910년 일본에 병합된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항복으로 분단되었다. 북위 38°N의 분단선은 "38도선"으로 알려졌다. 소련군은 이 선의 북쪽 땅을 점령했고, 미국은 남쪽을 점령했다. 1949년 소련과 미군이 모두 철수하면서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산주의 지도자 김일성. 김일성 주석이 남침 명령을 내렸다. 대부분 미군으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UNC)가 '남한'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그들과 한국군은 곧 한반도 최남단의 작은 지역에 갇히게 된다. 9월,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북쪽으로 150마일(240km) 떨어진 인천에 병력을 상륙시켜 북한군의 방심을 유도했다. 10월이 되자 유엔군은 38도선을 넘어 중국 국경까지 북상했다. 중국 정부는 재빨리 반격에 나서 유엔군을 38도선 이남으로 밀어냈다.

□ 전쟁의 종말

전쟁은 2년 동안 더 계속되었다. 마침내 1953년 7월, 남북한은 휴전 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분계선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38도선 부근에 거의 그대로 남게 되었다.

□ 미 해병대원들이 하선을 준비하고 있다.

1950년 9월, 대한민국 인천에서 미 해병대가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공세로 친공 세력은 중국 국경까지 밀려났다.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을 대변하는 항미원조(抗美援朝)와 달리 6·25 전쟁에 대해 스탈린이 중국의 개입을 부추긴 한국전쟁이라고 명시하며 북한의 공산주의 지도자 김일성 주석이 남침을 명령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서구학계에서 중국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구미학계와 중국학계의 역사 인식의 차이와 대립점 등이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음은 중국이 이룬 바 '항미원조' 70주년을 맞이한 이래 '항미원조'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지속적으로 방영하였고, 이에 한국 전쟁에 대한 중국 역사 교과서상의 서술 내용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된 시점에서 2018년 인쇄본과 2022년 인쇄본의 관련 서술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표3〉 2018년 인쇄본과 2022년 인쇄본 『중국역사』 하책의 한국 전쟁 관련 서술 비교

2018년 인쇄본	2022년 인쇄본
<p style="text-align: center;"><제1단원>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공고 제2과 항미원조</p> <p>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은 제멋대로 군사를 파견하여 북한을 침략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중국변경의 압록강가까지 치고 들어왔고 미군 비행기는 중국영공에 침입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변경도시들을 폭격하였으며 미국 제7함대는 중국 타이완해협에 침입하여 인민해방군의 타이완해방을 저지하였다. 미국의 침략 활동은 중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였다.</p> <p>북한정부는 중국정부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항미원조와 보가위국을 위하여 1950년 10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평덕화이를 사령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전선을 향해 북한 군민과 함께 미국침략자에게 저항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단원> 중화인민공화국의성립과 공고 제2과 항미원조</p> <p>1950년 6월 25일 조선(한반도)내전이 발발했다. 미국 정부는 무장으로 조선(한반도) 내전에 간섭할 것을 결정했고, 또한 제7함대를 파견하여 타이완 해협을 침입하였다. 1950년 10월 초, 미군은 중국 정부의 재사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38선을 넘어 전쟁의 불길의 증조(북중)변경까지 미치게 되었다.</p> <p>조선(북한)을 침입한 미군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동북지역의 변경도시들을 폭격하였으며,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엄청난 손실과 우리나라의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조성하였다. 1950년 10월 조선(북한)당과 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중국 당과 정부는 북한에 들어가 전투할 것을 결정하였다. 마오쩌둥은 평덕화이를 사령원 겸 정치위원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북한)의 전쟁터를 향해 출동하였고, 항미원조(抗美援朝)와 보가위국(保家衛國)을 위하여 조선(북한)군민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싸웠다.</p>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국 '인민지원군'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고도의 애국주의, 혁명영웅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중국측 입장을 반영한 한국전쟁을 중국인들의 단결을 촉구하기 위한 자극제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중양국의 전략 경쟁이 격해질수록 반미의식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한국 전쟁이 향후 더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영국 세계사 교과서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¹⁶⁾.

16) 정재운, 「영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전쟁」, 『국제문화연구』, 13, 2020. 영국 역사교과서에서 한국 전쟁은 냉전시기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시작되었고, 전쟁의 기원은 내전과 국제전쟁의 결합으로 보이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한국전쟁의 시작과 과정부터 전후 영향력까지 전쟁 전과정 서술을 분석하고 있어 참조가 된다.

IV. 결론

지난 2016년 5월 17일 사회과학철학사업 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학 필수과목으로서의 '대학 역사' 개설을 건의하면서 인용한 청대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공자진(龔自珍)의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그 나라의 역사를 없애야 한다. 다른 나라의 정권을 전복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그 나라의 역사를 없애야 한다."¹⁷⁾는 구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 중국 대학 필수과목으로서의 '대학 역사' 개설을 건의한 이유가 국내외 '적대세력'이 중국 혁명사, 신중국사를 문제 삼아 공격하고 모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본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와 중국 사회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선동하는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교육 현대화 2035』를 발표한 이래 중국 교육은 당의 큰 계획이자 국가의 큰 계획이며 고등교육을 잘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영국 세계사 교과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비교사적 시각에서 분석한 검토와 서구학계의 중국사를 포함한 동아시아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사나 서구 중심의 세계사에서 벗어나 동서 교류의 역사 속에 상호 존중과 역사 화해의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외학계의 공동 연구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

17) (清)龔自珍『定盦全集』續集卷二, 清光緒二十三年萬本書堂刻本·清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독일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아시아 인식

허은철 교수
(총신대학교 역사교육학과)

독일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동아시아사 인식

허은철(총신대)

I. 서론

동아시아의 갈등은 정치, 경제, 역사 문제와 맞물리면서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미국과 패권 경쟁, 일본의 군사 대국화, 북한의 핵 문제 등 동아시아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갈등을 줄이고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 오랜 갈등의 기저에는 역사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복잡한 동아시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 또한 동아시아 시민들이 동아시아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¹⁾

하지만 현재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는 여전히 역사적 갈등이 진행 중이며, 역사 인식의 간극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내부에서 간과했던 시각과 해석을 새롭게 인식하고, 내부와 외부의 시선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통합 노력을 한 독일의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동아시아 인식을 분석하는 일은 동아시아의 내부적 관점에서 벗어나 외부에서 동아시아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내부와 외부의 관점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오랫동안 독일을 비롯한 서구인들이 동아시아에 대해 지녀 왔던 역사 인식을 검토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역사 교과서의 동아시아사 분석은 1997년 마석한의 연구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박사 논문에서 23종의 독일 교과서에서 동아시아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상세히 조사하였다. 그는 독일 역사 교과서의 종류에 따라 서술의 편차는 크고, 상급 학년에 올라갈수록 자신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고 유럽사, 독일사, 자기 지방의 역사를 더 많이 가르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동아시아사 서술 비중이 미미한 것이 한계라고 밝혔다.²⁾ 최근의 독일 역사 교과서에 대한 연구도 여전히 독일 역사 교과서에서 제국

1) 한운석, 「유럽통합을 위한 역사교육: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7, 동북아역사재단, 2015.
2) S. Ma, Sued-, Ost- und Innerasien in deutschen Schulbuechern-Bestandsaufnahme und

주의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과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유럽 중심주의적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등이 지적되고 있다.³⁾

본 연구는 독일이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역사 교과서를 통해 알아보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독일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3종을 분석하였다.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타자의 동아시아 읽기'를 통해 외부의 시선으로 동아시아사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외부의 시선에서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동아시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독일 역사 교과서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사 인식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단순히 독일이라는 한 나라에 대한 개별적인 역사 연구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내부와 외부의 역사 인식을 확인하여 동아시아사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독일 역사 교과서 동아시아사 서술의 특징

독일 역사 교과서의 동아시아 서술과 관련하여 가장 서술이 풍부한 곳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이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우 인문계 중등학교에서 학생은 5-10학년의 6학년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배운다. 한국과 달리 역사를 자국사와 세계사의 과목으로 분리하지 않는다. 5-9학년은 독일과 서유럽의 역사를 주로 배우고, 9학년에서 배운 현대에 초점을 맞추되 공간을 이동하여 10학년에서 러시아, 중국, 터키의 역사를 현대사 위주로 학습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역사 교육과정은 중국을 '변화하는 제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역사와 서유럽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사회의 구조와 당면 과제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하위 교육과정 목표는 아래와 같다.⁴⁾

중국을 제국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다민족 제국, 제국, 유교, 문자, 관리, 문명)

서쪽으로의 창: 중국의 무역 정책을 설명하고, 유럽으로부터의 고립과 인도양에서의 유럽 지배력의 발전을 분석할 수 있다.(정화의 대항해, 인도로 가는 항로)

중국을 비공식 제국주의의 예로 특징지을 수 있다.(아편전쟁, 개방)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원과 발전, 인구의 생활 조건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마오주의, '대

Verbesserungsvorschläge. Dissertation, Erlangen-Nuernberg, 1997.

3) 배지혜, 윤세병, 「독일 역사교과서의 세계사 내용구성 및 탐구활동 분석 중국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5-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박혜정, 「유럽을 위한 유럽에 의한 유럽의 역사 독일의 역사교과서 5종을 통해 본 유럽사 패러다임」, 『독일연구』 38, 한국독일사학회, 2018.

4) 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Baden-Württemberg, 2016, p. 12.

약진', 문화대혁명, 재교육, 인격숭배)

당사오피 이후의 개혁을 특징지을 수 있다.(시장경제, 사회주의, 개혁정책)

역사적 관점에서 현재 중국의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10학년 역사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사 내용구성의 원리는 세계화, 이주민 사회의 상호문화적 역사학습, 그리고 현재 관련성이다. 이 중 독일 역사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동아시아 서술 관점은 '현재와의 관련성'이다. 현재와의 관련성은 학생에게 학습을 권하는 즉, 역사학습 내용의 선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기준이자 전제 조건이다.⁵⁾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역사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동아시아사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채택률이 높은 10학년 역사 교과서 3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코넬젠(Cornelsen) 출판사, 체.체. 부흐너(C.C. Buchner, 이하 부흐너) 출판사, 클렛(Klett) 출판사 3종 교과서의 중국사 단원 내용을 소제목과 주제를 중심으로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1. 동아시아 전근대사

독일 역사 교과서의 동아시아 관련 내용 구성은 역사 교육과정이 현재 중국 사회의 구조와 문제점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전근대사 보다는 근현대사의 비중이 높다. 전근대사 내용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개의 대표적인 주제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china'라는 명칭이 전에서 유래한다는 것, 제국 지배와 관련하여 진시황제의 지배체제,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만리장성,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 요소인 한자와 유교 등을 다루고 있다.⁶⁾ 이는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도외시한 것이어서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정화의 향해 그리고 전통의 왕조 중 가장 넓은 판도를 구축한 청의 사회와 문화 등 중국의 현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근대를 30% 정도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전근대의 동아시아 왕조 및 그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전근대사의 경우, 하-상-주에서 시작해서 송나라로 연결되는 왕조를 학습하기 보다는 중국의 제국성이나 중화주의적 세계관 등 중국사의 특징을 학습한다. 이는 현재 전개되는 시진핑의 '중국몽'이나 '일대일로' 그리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 문제를 관련시키려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5) 배지혜, 윤세병, 「독일 역사교과서의 세계사 내용구성 및 탐구활동 분석 중국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5-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84쪽.

6) 배지혜, 윤세병, 「독일 역사 교과서의 세계사 내용구성 및 탐구 활동 분석 중국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5-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94쪽.

2. 동아시아 근대사

동아시아 근대사는 아편전쟁 이후 중국과 서양의 만남과 개항 그리고 외세의 간섭에 맞선 중국인의 대응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제를 큰 비중으로 다룬 것이다. 독일 역사 교과서에서 근대 중국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18세기까지도 강성했던 청 왕조가 왜 몰락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쟁탈과 영토적 야욕의 희생물이 되었는데에 대한 것이다. 독일 역사 교과서에서는 청 왕조의 국력이 쇠락한 원인을 중국 전통사회의 자족적인 경제 구조와 중국인들의 비자본주의적 경제 관념에서 찾고 있다. 중국은 모든 것이 풍부하여 외국의 상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청 왕조의 생각은 무역대표부를 중국에 파견하려는 영국 왕의 간청을 거절하는 중국 황제의 답서(1793년)에도 잘 나타나 있다. 독일 역사 교과서는 중국의 경제와 사회의 근대화를 가로막는 원인을 유교와 황제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지배질서로 보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의 영향을 차단한 무역 정책으로 인식하였다. 이외에도 황실의 중화주의 사상을 폐쇄적인 대외정책의 원인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18세기 중엽 이후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경작지 증가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식량부족 현상이 심화해 농민 봉기와 도적들의 출몰이 잦아진 적이 제국주의 세력의 침입을 쉽게 했다고 보았다.

아편전쟁과 관련한 서술에서는 대부분 교과서가 전쟁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패전으로 인해 중국이 감수해야 했던 불평등 조약만 다루고, 아편 무역의 발전과정과 중국 정부의 아편수입 금지 이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독일 역사 교과서는 제국주의와 관련해서 중국이 인도 등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처럼 공식적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은 채 서구 열강과 일본의 이권 침탈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이유를 독일 역사 교과서에서는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의 경쟁과 특히 미국의 문호개방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반식민주의적인 원칙을 표방하고 있던 열강인 미국의 국익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독일 역사 교과서에서는 1900년 의화단 봉기의 원인을 아편전쟁 이후 열강의 중국 진출과 불평등 조약으로 중국 경제가 더욱 피폐해지고 서양인들의 거만한 태도에 분노한 중국인들의 민족주의 감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교회를 불사르고, 선교사와 중국인 기독교 신자들을 죽이고, 북경의 대사관 거주지역을 습격하였으며, 독일과 일본 대사를 살해했다는 것을 기술하였다. 또 이 봉기를 중국 황실이 묵인했다는 것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제국주의 국가들은 국제적인 진압군을 결성하고 선전포고도 없이 북경을 점령하였고, 유럽의 군인들은 황궁까지 약탈하여 서태후가 농민 복장을 한 채 도피했다는 것을 기술하였다. 마치 독일을 비롯한 서구 열강이 피해자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고, 전쟁 책임을

중국 정부와 국민에게 돌리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태평천국운동 또한 식락한 청 왕조가 외부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더는 사회적 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서술하고 있다. 태평천국운동이 시기적으로는 의화단의 봉기보다 앞서지만, 청 왕조를 종식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추구했던 시도로 1911년의 신해혁명과 연관시키고자 태평천국운동을 의화단보다 더 뒤에서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서구 열강이 제국주의 침략을 감춘 채 열강 간의 세력 각축장으로서 그들의 이해관계와 세력권을 확장하려는 무대로 중국을 서술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저항으로서 태평천국운동이나 의화단운동이 다뤄지고 있지만, 이 시기 중국인들의 사회경제적 삶과 문화가 제국주의 침략의 결과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한 서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시기 중국의 지식인들과 개혁 지향적인 관료들에게 중요한 주제였던 중국근대화의 방법을 둘러싼 논쟁(동도서기론 등), 양무운동이나 변법자강운동은 거의 소개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부흐너 출판사의 경우에는 1898년 독일에 의한 산둥 칭다오 점령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독일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 동아시아 현대사

현대사를 살펴보면, 부흐너 출판사와 코넬젠 출판사의 경우 현대사의 출발점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1949)으로 단원을 시작하고 있다. 반면에 클렛 출판사는 '중국은 왜 공산주의 사회가 되었나?'라는 설정 아래 중화민국의 수립(1912)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거쳐 문화대혁명이 종료되는 시점이자 마오쩌둥이 사망하는 시점(1976)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묶어 다른 두 교과서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토지 국유화,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홍위병 등의 주제를 공통으로 다루는 한편,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숭배 현상을 상세히 조명하였다.

이어지는 덩샤오핑의 개혁에 따른 시장경제 도입과 경제성장은 통계 자료의 표와 그래프를 통해 살피고 있다.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원인, 전개, 결과를 서술하면서는 탱크맨 사진 및 자유의 여신상 주변으로 모인 대학생의 사진과 함께 비중 있게 다루었다. 클렛 출판사의 경우 '톈안먼 사건'이 아닌 '톈안먼 학살'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희생자의 숫자를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코넬젠)" 또는 "2,000에서 3,000명으로 추측된다(부흐너)"라고 명기하였다. 현재의 중국을 기술할 때는 시진핑의 '중국몽', '일대일로' 정책, 정치 제도, 빈부 격차, 사상개조와 인권 탄압, 홍콩의 민주화 시위, 타이완과의 갈등, 한 자녀 정책의 부작용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었다.

독일 역사 교과서에서 현대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마오쩌둥 개인숭배,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덩샤오핑의 개혁 정치, 톈안먼 사건, 시진핑의 정책, 인권 문제, 홍콩 및 타이

완의 관계 등 현재 중국의 사회적 현안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구성은 독일 역사교육의 원칙인 '현재 관련성'의 원칙 즉 학생의 현재 삶에서 의미를 지니는가를 기준으로 학습 내용을 선정하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독일의 역사교육은 학생이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와 관련을 염두에 두는 현재 관련성을 역사학습의 내용 선정에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Ⅲ. 독일 역사 교과서 동아시아사 서술의 문제점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역사 교육과정 문서는 10학년의 학습 내용에 대해 “9학년의 현대사 학습의 성격을 이어서 세계화 시대의 현재적 문제에서 출발하여, 기존에는 역사교육의 주요 내용이 아니었던 중국, 러시아, 터키의 세 지역으로 (주제를) 전환한다.”고 진술하고 있다.⁷⁾ 역사 교과서도 해당 교육과정에 따라 서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역사 교과서에서 동아시아사 서술은 역사학습의 상위 주제가 '제국과 국민국가'인 만큼 전근대사는 중국의 제국으로서의 특징인 황제 지배체제, 중화주의적 세계관, 유교 정치 철학 등을 다루고, 이어서 명대 정화의 항해와 해금 정책을 다루었다. 근대사는 외세의 중국 간섭 그리고 중국의 저항을 다루었다. 특히, 영국의 조지 3세와 청 건륭제 간의 서신 자료와 메카트니 사절단(1792/93)의 동등한 교역 요구의 결렬을 소재로 당시 중국의 세계관을 조명하고, 유럽의 중국 분할 통치를 저지한 미국의 개방 정책을 공통으로 다루고 있다. 교과서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태평천국운동, 의화단운동,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신해혁명, 5.4운동 등을 다루고 나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의 이전 역사라 할 수 있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 대장정, 국공합작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독일 역사 교과서의 전체적인 서술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독일의 역사 교과서는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다루면서 간략하게 부수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독일 역사 교과서에서 동아시아사 관련 내용은 10학년에 배치되었고, 대부분 중국사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을 따로 기술하고 그 공통의 연관성을 동아시아라는 관점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역사 교과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부속품처럼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나 체제에서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가 아닌 중국에 부수적으로 취급되는 것은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보다는 동아시아라는 역사 인식 위에 독일 역사 교

7) 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Baden-Württemberg, 2016, p. 12.

과서가 서술되어야 하며, 특별히 한국사 서술에서 단절적이고 중국에 부속적인 역사 서술보다는 짧게라도 독립적인 한국사 전체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을 '제국'이라는 관점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10학년 역사에서는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의 국가들이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갖는 데 비해, 낯선 세계로서의 러시아, 중국, 터키가 독재적인 정치 체제를 갖는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전근대사의 내용도 과거에 제국의 역사를 갖는 이들 국가의 현재 사회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학습한다. 독일 역사 교과서는 비유럽세계의 주요 국가인 오스만, 중국, 인도를 '제국'이라는 이름을 부각하여 서술함으로써 제국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은폐하려는 시도이며, 제국이라는 관점 이외에 동아시아의 개별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독일 역사교육의 의도가 잘 드러난 것이 역사 교과서에 보이는 질문들이다. 독일 역사 교과서의 질문 내용은 상당히 수준이 높고, 학습자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동아시아는 비민주적이며, 제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심어주려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역사 교과서 기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셋째,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낯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세계를 '친숙한 서유럽'과 '낯선 공간인 비서유럽'으로 구분하여 동아시아를 타자화할 우려가 있다. 이는 독일이 서유럽 이외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하다는 기존의 비판과 일치한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지만, 그 서술 방식은 동아시아를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렇듯 독일이 동아시아에 접근하는 맥락이 한국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시대별 서술 비중의 편중성이다. 독일의 역사 교과서는 전근대사에 비해 근현대사의 비중이 크고, 그중에서도 현대사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의 서술 분량은 전체에서 거의 절반에 이른다. 이렇게 현대사 내용이 많은 것은 독일 역사 교육과정의 '현재와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역사 교과서가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전근대사보다는 현재 동아시아 사회 구조와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한 현대사 학습이 학생의 삶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현대사 중심의 역사교육은 학생들이 역사를 실용적으로 접근할 위험성을 가진다. 현재 기준에서 중요한 것만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은 역사적 사건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독일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중국은 여전히 독일이 '경계하는' 대상이다. 독일 역사 교과서에서 중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을 능가할 부상하는 경제 대국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중국을 묘사하는 말로 "비상하는 나라"와 같은 표현이 자주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독일 역사 교과서는 동아시아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것이 유교적 전통이며, 현재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에 유교가 중국을 비

롯한 동아시아의 역사와 현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비중을 두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이끈 동인으로서 교육과 학습에 대해 강조한다. 동시에,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요소로 사회의 위계질서와 위로부터의 권위를 존중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들고 있다. 독일 역사 교과서 말미에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서방식 민주주의를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서술되어 있다. 이외에도, 최근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하여 각종 전염병이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기원하였다는 것을 그림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독일의 역사교육이 제국주의 잔재를 극복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역할모델로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독일 역사교육이 민족사 패러다임의 유럽적 재생산이라는 비판을 받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사 패러다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유럽주의, 서구적 기독교 유럽, 비유럽적 연계성 등이 독일 역사교육에 남아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⁸⁾ 독일 역사 교과서의 동아시아 서술도 세계화를 표방하면서도 동아시아를 타자화하고 있으며, 중국사에서 '제국'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경계'하는 서술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동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한국사와 일본사를 중국사 서술에 부수적으로 다루는 것은 독일 역사 교과서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이렇게 독일의 역사교육이 여전히 많은 비판과 도전을 받고 있지만, 오랜 시간 주변국과 역사적 갈등을 줄여나간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 귀한 역사교육의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중국, 일본과 역사갈등을 빚고 있고, 북한과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한국은 독일의 역사교육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여전히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적 범위나 동아시아를 묶는 어떤 사상이나 속성, 상징이 있는지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이라는 외부의 시선을 통해 동아시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그동안 내부에서는 인식하지 못했던 동아시아에 대한 공통된 속성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이라는 동아시아 외부의 시선은 동아시아 내부의 시선과 비교하고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8) 박혜정, 「유럽을 위한 유럽에 의한 유럽의 역사 독일의 역사 교과서 5종을 통해 본 유럽사 패러다임」, 『독일연구』 38, 한국독일사학회, 2018, 224쪽.

The Perception of East Asian History in German History Textbooks

Huh Euncheol (Chongshin University)

I. Introduction

Conflict in East Asia is fueled by political, economic, and historical issues. With the hegemonic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Japan's military expansion, a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East Asia is literally living with a time bomb. Therefore, reducing conflict and working towards peace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is not just a rhetoric, but a matter of survival. However, it is no secret that what underlie the long-standing conflicts in East Asia are historical issues. The solution to the complicated problems in this region must begin with a shared understanding of East Asian history among its population.

However, historical conflicts are still ongoing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the three countries that make up East Asia, while the gap in their historical understanding is widen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new perspectives and interpretations that have been overlooked within East Asia, and to compare internal and external perspectives. In this regard, analyzing the perception of East Asia in history textbooks of Germany, a country that has paid a significant attention to history education and made great efforts for integration,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to break away from the internal point of view and to look at East Asia objectively from an outside perspective.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perspectives can provide a basis for a multi-dimensional view of East Asia, and the opportunity to examine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that Westerners, including the Germans, have maintained about East Asia for a long time.

The analysis of East Asian history in German history textbooks can be traced

back to the work of Ma Seokhan in 1997. In his doctoral thesis, Ma examined in detail how East Asia is represented in 23 German textbooks. According to his study, there was a wide variation in the narratives across different types of German history textbooks.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 more advanced grades tended to teach more European history, German history, and the history of their provinces in order to increase interest in their own region, but the overall share of East Asian history in the textbooks is still limited. Recent studies of German history textbooks have also pointed out the imperialistic aspects of the textbooks, the failure to move away from Orientalism, and the limitations arising from Eurocentrism.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Germany perceives East Asian history through its history textbooks. To do so, three current Germa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have been analyzed. Although there is a controversy over the geographical scope of East Asia, the study focuses on Korea, China, and Japan. The goal is to look at East Asian history from an outside perspective, through "reading East Asia from the outside," in order to see what we have failed to see and to identify whether there are any biases or prejudices about East Asia, such as Orientalism, from an outside point of view. The analysis of German history textbooks to pinpoint the problems in the perception of East Asian history and seeking alternatives will not only offer an individual historical study of Germany as a country, but also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East Asian history by understanding the perception of history in and outside of East Asia.

II.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ives about East Asian history in German history textbooks

The richest narratives about East Asia in German history textbooks can be found in the Baden-Württemberg State. In Baden-Württemberg, students of academic secondary schools study history in a chronological manner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starting from the sixth grade (grade 5-10). Unlike Korea, history is not separated into the subjects of national history and world history. Students of grades 5 to 9 primarily study the history of Germany and Western Europe. The grade 9 curriculum is focused on contemporary history. Grade 10 students are taught about

the contemporary history of Russia, China, and Turkey. The history curriculum of Baden-Württemberg approaches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a "changing empire." Specifically, the goal of this curriculum is "to be able to explain the structure and challenges of Chinese society based on the history of China and its relations with Western Europe." The goals of the sub-curricula are as follows:

- *To be able to characterize China as an empire (multi-ethnic empire, empire, Confucianism, writing system, officials, civilization)*
- *Window to the West: to be able to explain China's trade policy and to analyze China's isolation from Europe and the development of European dominance in the Indian Ocean (the Great Voyage of Zheng He, the sea route to India)*
- *To be able to characterize China as an example of informal imperialism (Opium War, opening)*
- *To be able to analyze and evaluate the origin, development,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oism, "Great Leap Forward," Cultural Revolution, re-education, cult of personality)*
- *To be able to characterize the reform after the era of Deng Xiaoping (market economy, socialism, reform policy)*
- *To be able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social issues in China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The content of the grade 10 history curriculum of Baden-Württemberg consists of globalization, intercultural history education of migrants' communities, and relevance to the present. Among them, the perspective emphasized in the German history textbooks in relation to their representation of East Asia is the "relevance to the present." The relevance to the present is not optional. It is a requirement and a prerequisite in selecting the content to be taught in history education.

For a detailed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East Asian history in the history textbooks compiled according to the history curriculum of Baden-Württemberg, three history textbooks for the 10th grade with high adoption rates have been selected. These textbooks are published by Cornelsen, C.C. Buchner (hereafter "Buchner"), and Klett. The lessons on Chinese history in these three textbooks have been organized by subtitles, topics, and period.

III. Problems with the narratives of East Asia in German history textbooks

According to the history curriculum guidelines of Baden-Württemberg, history education for grade 10 "starts from the current issues in the globalization era and continues the learning of contemporary history in grade 9, and shifts (the topic) towards China, Russia, and Turkey, which have not traditionally been a key aspect of history educa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descriptions in the history textbooks are in line with this curriculum.

The narrative of East Asian history in the German history textbooks is under the overarching theme of "empire and nation-state." Therefore, the pre-modern history section covers the emperor system, Sinocentric worldview, and Confucian political philosophy, as well as the voyage of Zheng He and the policy of maritime trade ban during the Ming period. In modern history, the textbooks describe foreign interference in China and China's resistance. In particular, the correspondence between King George III of England and the Qing Emperor Qianlong, and the failure of the Macartney Mission (1792/93) to demand equal trade are used to highlight the Chinese worldview at the time, with a common theme of the American open-door policy that prevented Europe from dividing China. Although it varies by textbook, the Taiping Rebellion, the Yihetuan Movement, the Yangwu Movement, the Wuxu Reform, the Xinhai Revolution, the May Fourth Movement, and more are discussed before presenting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Kuomintang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Long March, and the Kuomintang-Communist Party United Front, which took place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following problems can be pointed out about the overall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German history textbooks.

First, German history textbooks use the concept of East Asia, but Korea and Japan are only briefly mentioned on the sidelines of China-related content. In German history textbooks, East Asian history is placed in the grade 10 curriculum, and primarily focused on Chinese history. There is little effort to describe China, Japan, and Korea, separately, and to explore their common conne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East Asia.

East Asia is composed of Korea, China, and Japan, which are independent states. Nevertheless, the German history textbooks treat Korea and Japan as an appendix to China. The fact that Korea and Japan are treated as an adjunct to China, rather than East Asia,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historically and systematically different countries, is indicative of the perception of East Asia in Germany and other Western countries. In that regard, in the future, German history textbooks should be written based on a historical perception of East Asia rather than of China. In particular, Korean history should be addressed independently, even briefly, rather than as a disjointed history that is adjunctive to Chinese history.

Second, China is only discussed as an "empire." The 10th grade history education emphasizes that "Germany and other We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whereas Russia, China, and Turkey in the unfamiliar, foreign world have autocratic political systems. The pre-modern history sections of these textbooks also provide a historical context for the current social issues in these countries that were once empires. The textbooks emphasize the "empire aspect" of Ottoman, China, and India, the major countries of the non-European world. This is an attempt to cover up Germany's imperialist aggression and shows a lack of interest in the individual peoples and states in East Asia, apart from the perspective of empire. The questions in the history textbooks are a good indication of such an intention of German history education. Although these questions are of a high standard and seem to allow learners to think in a variety of ways, there is an impression that the textbooks are written with the intention of instilling in students the image that "East Asia is undemocratic and has imperial characteristics".

Third, East Asia, including China, is perceived as an "unfamiliar space." This view may lead to the othering of East Asia by dividing the world into "familiar Western Europe" and "unfamiliar non-Western Europe." This is in line with the conventional criticism that Germany remains indifferent to the history of non-Western European world. While China and East Asia ar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ization," the way they are described corresponds to the othering of East Asia. As such,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at the context in which Germany approaches

East Asia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Fourth, there is an uneven distribution of share in the descriptions across different periods. In the German history textbooks, a larger proportion is devoted to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compared to pre-modern history. Contemporary history takes up a higher share than modern history, as nearly half of the entire textbook is about contemporary history. This is because the textbooks are written on the basis of the "relevance to the present," which is stressed in the German history curriculum. The idea is that modern history of East Asia, rather than its pre-modern history, is more relevant to students' lives in understanding the current social structures and issues in East Asia. However, an overemphasis on contemporary history runs the risk of giving students a pragmatic approach to history. The perception that only what is important by today's standards is historically significant can make students overlook the importance of historical events themselves.

Fifth, Germany is still "wary" of China in its history textbooks. China, in the German history textbooks, is presented as a rising economic power that will soon surpass the US. This is evidenced by the frequent use of phrases like "emerging power" in the descriptions about China in history textbooks. The German history textbooks describe that it was the Confucian tradition that underpinned East Asia's rapid growth, and that the tradition continues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today. The textbooks emphasize the role that Confucianism has played in the history and present of China and East Asia. Education and learning are stressed as drivers of economic growth. At the same time, Confucian values of hierarchy and respect for top-down authority in society are cited as obstacles to democracy. The German history textbooks, at their end, have the nuance that China must ultimately embrace Western democracy in order to continue its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in the context of the recent COVID-19 pandemic, illustrations in the textbooks emphasize that various infectious diseases originated in East Asia, including China, which is a dangerous narrative that can incite hatred against East Asians.

IV. Conclusion

While German history educ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 role model for overcoming the remnants of imperialism and moving toward integration, it has also received many criticisms. Although German history education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a European reproduction of the national history paradigm and has been advocating a global history paradigm to overcome thi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Western Europeanism, Western Christian Europe, and non-European connections remain in German history education. The narratives of East Asia in German history textbooks promote globalization while at the same time othering East Asia. There are an emphasis on "empire" in Chinese history as well as many narratives that indicate "caution" against China's rapid economic rise. In particular, using the term "East Asia" while treating Korean and Japanese history as secondary to Chinese history is an issue that German history textbooks urgently need to address.

Although German history education is still facing many criticisms and challenges, Germany's experience in reducing historical conflicts with its neighbors over the years should be a valuable example of history education. In particular, South Korea needs to find lessons from German history education, as it is involved in historical conflicts with China and Japan and it should prepare for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There is still no consensus on the geographical scope of East Asia or what ideas, attributes, or symbols bind it together. Therefore, examining how East Asia is perceived through the lens of Germany will help us to identify the common attributes of East Asia that we may not have recognized from within. The German perspective of East Asia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to see ourselves objectively by comparing it with the perspectives from within East Asia.

러시아 역사교과서의 중국과 일본의 현대사

Kim Alexander 교수
(블라디보스톡 국립대 교수)

러시아 역사 교과서의 중국 및 일본 현대사 서술

러시아에서는 학년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여 역사를 가르친다. 이것이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온 전통이나, 교육과정이 조금씩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5학년은 고대사를, 6학년은 중세사를, 7학년은 보통 1500-1800년, 8학년은 19세기와 20년대 초반, 9 /10/11학년은 19-20세기의 역사를 학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발표는 9학년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다.

2022년까지 러시아의 역사교육은 러시아와 유럽의 역사에 초점을 두었다. 교과서 집필진은 다른 지역의 역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아시아 역사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기는 했다.

그러나 250-350 페이지 중 10-20 페이지 정도만 아시아 역사에 할애되었고, 10-20 페이지를 통해 아시아 국가 전체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련 시절의 역사교과서는 유럽사 연구자들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았고, 아시아 역사에 할애된 분량이 지금보다도 적었다). 2022년 이후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 러시아 역사교과서 편집진이 세계 정세를 간과할 수 없게 되면서 중국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소련과 러시아 초기에 제작된 교과서에 비해 중국이 긍정적으로 서술되었다. 2023년 메딘스키가 펴낸 세계사 교과서를 예로 들 수 있겠다.¹⁾

현대사 (9-10학년)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면 러시아 교과서에서 아시아 역사가 차지하는 분량이 15-25 페이지까지 늘어나고, 중국사와 일본사를 핵심으로 다루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사 보다 중국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중국사의 여러 상황과 사건들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러시아 고등학생들은 1900년 아무르 대학살 등의 사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편집진은 9학년 교과서의 아시아 관련 챕터, 특히 동아시아에 대한 서술에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초점을 두었다. 교과서에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보다는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 학자들은 유럽 국가들이 중화제국을 압박하던 이 시기에 중국은 정부 내 보수파와 개혁파의 분열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일본과 (아마도) 한국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러시아 교과서에서 중국사가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신시대사 (History of the New Age)」 (9학년)와 「역사일반: 신시대사, 19세기-20세기초 (General history,

1) 「역사일반 (General history), 1914-1945」, 10학년, 기초, 저자 V.R. 메딘스키 (V.R. Medinskij), A.O. 추바리안 (A.O. Chubaryan). 모스크바: 프로스베세니에, 2023.

History of the New Age, XIX - beginning XX century)」(9학년)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이러한 갈등이 언급되어 있다. 청의 광서제 (Zai Tian)는 일본과 같은 개혁을 원했다.²⁾ 일본의 성공을 보고 개혁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³⁾ 광서제는 일본의 성공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 중국이 일본과 같이 힘을 가진 개혁국가가 되기를 바랐다. 서태후가 이끄는 보수파가 몇 차례의 개혁 시도를 무산시켰다. 서태후는 광서제를 유폐한 후 (아마도) 제거했고, 개혁의 지지자들을 숙청했다. 개혁파를 이끈 Kang Youwei는 중국에서 탈출했다. 그러나 서태후가 개혁파를 상대로 얻은 승리는 청제국의 쇠퇴와 몰락으로 이어졌다. 개혁주의자들은 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움직임을 원했지만 중국 귀족과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1800-1900 역사일반: 신시대사, 1800-1914 (General History 1800-1900. History of the New Age. 1800-1914)」(9학년)에서 볼 수 있듯이 귀족과 관료들은 서태후를 등에 업고 개혁파의 활동을 중단시켰다.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이 무너질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 서태후와 보수파는 19세기 초와 같이 살고 싶어 했다. 보수파도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지배/통제체계의 변화는 원하지 않았다. 「1800-1900 역사일반: 신시대사」에 따르면 부패가 크게 증가했고, (대부분 부패했던) 고위관료들은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⁵⁾

「역사, 역사일반: 근대사 (History, General history, Modern history)」 교과서 (10학년)(기초 및 심화)에는 후에 서태후가 광서제와 같이 개혁을 시도했으나, 뒤늦은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고 서태후가 1908년에 사망했다고 서술되어 있다.⁶⁾ 중국은 보수적이고 부패한 시스템으로 인해 취약해졌고, 국가와 군을 믿을 수 없었던 민중은 변화를 원했지만 방법을 알지 못했다. 모두 서태후의 통치가 가져온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제국이 오래 지속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했다. 러시아 교과서에서 서태후는 교활하고 잔혹한 인물로 묘사되지만, 서태후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표현은 아니다.

- 2) 「신시대사 (History of the New Age)」, 9학년, 교육기관을 위한 교과서, 편집자: A.A. 이스칸데로프 (A.A. Iskenderov), 제 2판, 모스크바: 프로스베세니예, 2019. 대표 저자: A. Ya. 유도프스카야 (A. Ya. Yudovskaya).
- 3) 「역사일반 신시대사, 19세기-20세기 초 (General history, History of the New Age, XIX - beginning XX century)」, 9학년, 저자: A. Yu. 모로조프 (A.Yu. Morozov), E.N. 압둘라예프 (E.N. Abdullaev), S.V. 티린 (S.V. Tyrin), K.P. 칠리킨 (K.P. Chulkin), 편집자: V.R. 메딘스키, 모스크바: 프로스베세니예, 2021.
- 4) 자글라딘 N.V. (Zagladin N.V.), 벨로우소프 L.S. (Belousov L.S.), 「역사일반 1800-1900: 신시대사, 1800-1914 (General History 1800-1900. History of the New Age. 1800-1914)」, 9학년, 모스크바: Russkoe slovo - uchebnik, 2020.
- 5) 「역사일반, 1800-1900: 신시대사」, A. Ya. 유도프스카야, P.A. 바라노프 (P.A. Baranov), L.M. 바뉴쉬키나 (L.M. Vanyushkina), 8학년, 교육기관용 교과서, 제 4판, 모스크바: 프로스베세니예, 2015. 편집자: A.A. 이스칸데로바 (A.A. Iskenderova).
- 6) 「역사, 역사일반: 근대사 (History, General history, Modern history)」, 10학년, 기초 및 심화 교과서, O.S. 소로코/츠유파 (O.S. Soroko-Tsyupa), A.O. 소로코-츠유파 (A.O. Soroko-Tsyupa), 개정: A.A. 이스칸데로프, 모스크바: 프로스베세니예, 2019.

서태후는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교과서 집필진 (『역사일반: 신시대사, 18세기』(8학년) 등)은 한국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중국의 지배를 받던 조선이 조공을 바치고 중국의 시스템과 정책을 모방했으며 청제국의 정책을 따랐고, 일부 조선 학자들이 유럽의 과학과 기술을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만 언급되어 있다.⁷⁾ 조선에서는 보수파의 세력이 강했고 군이 서구 국가들의 공격을 몇 차례 막아냈기 때문에 보수파는 조선에 문제가 없고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러시아 교과서에서 조선의 개혁 시도에 대한 사례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개혁이 시도되었다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실패를 맛보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수주의 정책으로 인해 조선은 일본이 펼친 침략정책의 손쉬운 표적이 되었다.

일본의 상황은 달랐다. 권력투쟁에서 승기를 잡은 개혁파가 국정, 경제와 사회의 개혁에 돌입했다. 일본은 빠르게 발전하며 서구 국가가 주도하는 협정의 체결을 거부했다. 또한 강력한 군대와 함대를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서구 국가들은 일본을 공격할 수 없었다. 이길 수는 있었겠지만 엄청난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전쟁은 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고 갈취하는 것이 나왔다. 결국 일본도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한국을 점령했다. 그러나 개혁의 모든 요소가 발전적이지는 않다. 자국민뿐만이 아니라 한국인과 중국인까지 착취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한 자이바츠(zaibatsu)가 일본을 이끌었다. 이 시스템은 저렴한 노동력과 제품이 존재하는 새로운 시장을 필요로 했지만 커다란 수익도 가져다주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한반도를 점령하고, 중국을 공격했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역사, 역사일반: 근대사』(10학년, 기초 및 심화)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중국은 개혁과 혁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⁸⁾ 개혁을 원하지 않은 중국 보수파 관료들이 1911년에 혁명을 일으켰다. 1911년 이후 중국에서 여러 세력이 경쟁을 벌였지만 평화와 발전을 가져오지는 못했고, 일본은 중국을 공격했다. 개혁을 거부한 대가로 수천만 명의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중국 본토는 1949년이 되어서야 통일을 이루었다.

한국에서는 해방이 개혁에 대한 저항에 수년간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현대사 교과서 편집진은 동아시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동아시아 사에 대한 서술을 보면 중국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으로 일본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했음이 분명하다. 교육자들은 개혁파와 보수파의 갈등에 대해 말한다. 한쪽이 승리하면서 수년간 국가의 운영방식이

7) 『역사일반: 신시대사, 18세기 (General history: History of the New Age, 18th century)』, 8학년, 저자: A.Yu. 모로조프, E.N. 압둘라예프, S.V. 티런, K.P. 칠리킨, 편집자: V.R. 에딘스키, 모스크바: 프로스베세니에, 2021.

8) 『역사, 역사일반: 현대사』(10학년, 기초 및 심화 교과서, O.S. 소로코-츠유파, A.O. 소로코-츠유파, 개정: A.A. 이스켄데로프, 모스크바: 프로스베세니에, 2019.

정해지고 (중국과 조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웃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경우 보수파의 득세가 국가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개혁파가 승리하며 전략적 발전의 가능성이 열렸지만, 자이바츠가 이러한 가능성을 이용하여 침략정책을 펼쳤다.

Toward the description of contemporary Chinese and Japanese history in Russian school textbooks of history.

Kim Alexander 교수 (블라디보스톡 국립대 교수)

The study of history in the Russian schools divided in several temporal periods by different classes. This tradition began from Soviet schools. However, sometimes this system can little changed. For example, 5th class usually studies ancient times, 6th class- medieval history, 7th class- usually period of 1500-1800, 8th class- 19th C. first half 20th C., 9th, 10th class and 11th C. class, depended of schools and directions, studies 19th C.- 20th C.

In this our presentation we conducted our attention mainly in information from textbooks of ninth classes in world history.

Clearly, until 2022 Russian schools in the study of history conducted in Russian and European history. Other regions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from authors of textbooks, but Asian history had place.

However, usually it was near 10- 20 pages from 250-350 from total pages in the textbook. Moreover, these 10-20 pages covers all states in the Asia. (However, in the Soviet textbooks in history had more influence from scholars of European history, and description of Asian history was more short. Clearly, after 2022 situation was changed cardinaly, editors of modern Russian textbooks of history must note political situation in the world. Therefore, place of Chinese history became more important in textbook and description of China will be more positive in comparison with the Soviet and early Russian textbooks. We can see it on example of textbook of world history by Medinskij in 2023¹⁾).

If we shall consider situation with contemporary history (9-10 classes) we must note that pages about history of Asia in the Russian textbooks can be increased to

1) "General history", 1914-1945. 10th class. Basic level. Authors- V.R. Medinskij, A.O. Chubaryan. Moscow, Prosveshchene, 2023.

15-25 pages, main part of them have dealing with the history of China and Japan. Clearly, in some cases the description of Chinese history was and will more than Japanese. However, for different reasons many processes and events in the Chinese history were avoided. Therefore, many Russian high school students don't know about some incidents, like, Amur incident 1900 and other.

Russian editors paid attention to period of the second half of 19th C. – beginning 20th C. in Asian chapters in the textbooks for 9th classes. Especially, it had relation to the East Asia. In some cases, specialists did not write about their opinion directly but demonstrated their tendency. Russian scholars noted that at this period, when European states pressed Chinese Empire, China had problem with conservator and reform tendencies in the government. Same struggle had place in Japan and, probably, Korea.

Clearly, Chinese history received dominated attention in the Russian school textbooks. As we can see in History of the New Age. Class 9 and General history. History of the New Age. XIX – beginning XX century: 9th class, Russian specialists considered this struggle in China and Japan. Qing Emperor Zài Tián wanted to create reform²⁾, like in Japan, because he checked situation with Japanese successes and understood that only reform can save China³⁾. He really stayed under influence of the Japanese victories and wanted to establish Chia as reform state with power, like Japan. Conservator party under Empress Cixī was winner in the war with several reform attempts. She arrested and later probably liquidated Emperor Zài Tián, executed many supporters of reforms, leader of reform party Kāng Yǒuwéi escaped from China. However, her victories in the struggles with reformists were defeats and future destruction of Qing Empire in the world. Reformists tried to create many actions for support state but it met resistance from Chinese nobles and officials. As we can see in General History 1800-1900. History of the New Age. 1800-1914. 9 class, they stopped activity by reformists with support from Cixī⁴⁾. However, Empress

2) History of the New Age. Class 9. Textbook for educational organizations. Under the editorship of A.A. Iskenderov. 2nd edition. Moscow. Prosveshhenie, 2019. Head of the team of authors A. Ya. Yudovskaya

3) General history. History of the New Age. XIX – beginning XX century: 9 class. Authors A.Yu. Morozov, E.N. Abdullaev, S.V. Tyrin, K.P. Chilikin; under ed. V.R. Medinsky. - Moscow. - Prosveshhenie, 2021

and her conservators did not understand that without reform Chinese state would be destroyed. They wanted to live as in the beginning 19th C. Clearly, conservators tried to create reform but without changes in system of govern and control. Therefore, according to General History 1800-1900. History of the New Age, corruption increased in great scale, high-level officials (almost all from them were corrupted persons) could not understand why they must provide reforms⁵⁾.

According to History. General history. Modern history. Class 10: textbook, basic and advanced levels, later Empress Cixi tried to create reform, like Emperor Zai Tian, but not successfully, because it was later and she was die in 1908⁶⁾. She remained weak China with very conservative and corrupted system, population who did not believe state and army who wanted changes, but can't understand how they can do it. All of it was result of govern by Empress Cixi. Clearly, in this situation Qing Empire could not exist a long time. In Russian textbooks, Empress Cixi considered as cunning and cruel person, but it is not enough for ruler.

Moreover, her activity was example for Choson. Russian authors of textbooks (like, in General history. History of the New Age. 18th century: 8 class) did not pay much attention for Korean history, they only mentioned that Choson stayed under control of China, paid tribute, imitated Chinese system and policy, and moved according policy of Qin Empire, sometimes some Korean scholars tried to use in Choson the European science and technics, but without good results⁷⁾. Conservator position in Choson was strong, Korean army stopped several attempts of attack by groups from western states, therefore conservators believed that all is ok and state does not need in reforms. Russian educators did not give examples of the attempts of the reform in Choson, but we can guess if these attempts had place, they were

-
- 4) Zagladin N.V., Belousov L.S. General History 1800-1900. History of the New Age. 1800-1914. 9 class. Moscow. Russkoe slovo- uchebnik, 2020.
 - 5) General History 1800-1900. History of the New Age. Authors A.Ya. Yudovskaya, P.A. Baranov, L.M. Vanyushkina. 8th class. Textbook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4th edition. Moscow: Prosveshhenie, 2015. Ed. A.A. Iskenderova
 - 6) History. General history. Modern history. Class 10 : textbook, basic and advanced levels. /O.S. Soroko-Tsyupa. A.O. Soroko-Tsyupa. / under redaction by A.A. Iskenderov, Moscow, Prosveshchenie, 2019
 - 7) General history. History of the New Age. 18th century: 8 class. Authors A.Yu. Morozov, E.N. Abdullaev, S.V. Tyrin, K.P. Chilikin; under ed. V.R. Medinsky. - Moscow. - Prosveshhenie, 2021

unsuccessfully, like in China. As result of this conservative policy, Choson very easy became victim for Japanese aggressive policy.

Situation in Japan was different. Reformists was winner in the struggle for power. Therefore, they started reforms in the state management, economic and society. As result, Japan very quickly developed and refused from agreements with domination by Western states. Moreover, Japan created strong army and fleet. Therefore, Western states could not to attack Japan- clearly, they can win, but with using a great number of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For European countries this war can't give profit, for them will better to press and rob China. As result, Japan started wars against China too, Korea was occupied. However, reforms is not mean progressive system in all aspects. Japan was under control of zaibatsu, who create very strong system of exploitation for not only Japanese, but Koreans and Chinese too. This system demands new markets of cheap workers and products, but gave many profits too. Therefore, later Japan occupied Korean Peninsula, attacked Chinese areas and took part in both World wars.

As results of this situation in China, according to History. General history. Modern history. Class 10: textbook, basic and advanced levels, state has only two choices- reform or revolution⁸⁾. Because Chinese conservative officials refused from reforms, they provoked revolution, which had place in 1911. After 1911 in China existed several powers, who fought again each other, but can't give peace and development, moreover Japan actively attacked China. As result a great number of Chinese (some tens millions peoples) were die, it was payment for refusal of reform. United mainland China started to exist only from 1949.

For Korea the refusal of reform became loose of independence for many years.

As we can see, Russian editors of textbooks in contemporary history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East Asia. However, their episodes of East Asian history can give understanding how they consider history of China at first, history of Japan at second. Clearly, they conducted in political tendencies in the East Asian regions. Educators consider struggle between reformists and conservators parties. Victory of

8) History. General history. Modern history. Class 10: textbook, basic and advanced levels. /O.S. Soroko-Tsyupa, A.O. Soroko-Tsyupa. / under redaction by A.A. Iskenderov, Moscow, Prosveschenie, 2019

one side created specific way of state for many years and influenced to neighboring states (on example of China and Choson). As we can see, victory of conservators in China was reason for destruction of state. Victory of reformists gave in Japan possibility of strategic development, but zaibatsu used it for aggressive policy in the different directions.

**일본 교과서의 동아시아 고대사에 대한
서술과 인식**
-법전 정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오우쓰미키요하루(大隅清陽) 교수
(山梨大学 대학원종합연구부 교육과학영역 인간과학부)

일본 교과서의 동아시아 고대사에 대한 서술과 인식 -법전 정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오오스미 키요하루(大隅 清陽),
아마나시대학(山梨大学) 대학원 종합연구부 교육학영역 교수

1. 중국 율령(律令)의 수용과 당 율령 복원에 대한 연구

7세기 중반인 다이카(大化) 원년(647)에 일어난 정변, 다이카 개신(改新)을 계기로 왜(倭, 일본)에서는 중국 당나라의 율령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8세기 초에는 일본 독자적인 다이호(大寶) 율령이 제정·시행되었다. 오늘날의 일본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틀이 유지되었던 10세기 무렵까지의 고대국가를 '율령 국가', 그 국가 체제를 '율령제'라고 부른다. 율령 중에서 율(律)은 형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컬어지는데, 그 대상은 오늘날보다 훨씬 넓어서 국가 행정과 사회 질서의 이상적인 모습을 형벌을 포함한 금지 항목의 총체로서 나타낸 것이며, 령(令)은 주로 관료 기구에 의한 행정 수순을 형벌을 포함하지 않는 조문(條文)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이른바 법가 사상에서 두드러지듯이 전근대 중국의 법이란, 일반적으로 형벌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령보다도 율이 기본법으로서 중시되어 왔으며, 당률(唐律)의 내용도 거의 완전한 상태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행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에 따른 변화가 많아 당령(唐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흩어져버리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다이호 율령의 개정판인 요로(養老) 율령 중, 요로율(令)은 극히 일부만이 남아있지만, 요로령의 본문은 헤이안(平安) 시대의 주석서인 "료노기게(令義解)"나 "료노슈게(令集解)" 등의 형태로 90% 이상이 현존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본 율령에 대한 근대적인 연구는 19세기 말에 주로 법제사 분야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메이지(明治) 유신의 왕정복고(王政復古)라는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하여 당시 공표된 직후인 대일본 제국 헌법을 고대의 율령과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을 통해 일본의 '국가 체제'의 연원을 탐구하고자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법인 일본 율령의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태가 되는 당율령과의 비교가 필요한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령의 사본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법학계의 법제사학 분야에서는 주로 요로령을 참고로

하면서 중국의 다양한 출판물들에 인용된 당령의 일문(逸文)을 모아서, 실전(失傳)된 당령을 추측하여 복원하는 것을 시도해 왔다. 그 성과는 "당령습유(唐令拾遺)"¹⁾, "당률습유보(唐令拾遺補)"²⁾ 등으로 집성되었다.

2. 사카모토 타로(坂本太郎)의 율령제 성립사 연구과 교과서 서술

법학계의 법제사 연구가 진행되는 한편, 일본사학의 입장에서 율령제를 연구 주제로 하여 고대 국가의 성립사와 연관 지어 논의한 것이, 쇼와(昭和) 전쟁 전기부터 전후에 걸쳐 도쿄대학 문학부 국사학과 교수로서 활약한 사카모토 타로이다. 사카모토 타로는 1938년 간행된 "다이카 개신의 연구(大化改新の研究)"³⁾에서 "일본서기(日本書紀)" 고토쿠(孝德) 천황 다이카 2년(646) 정월 갑자삭(甲子朔) 조에 보이며, 후에 일본 율령제의 큰 틀을 규정했다고 여겨지는 다이카 개신조(詔)가 덴지(天智) 천황 7년(668) 제정되었다고 하는 '오우미료(近江令)'의 내용을 근간으로 수식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츠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⁴⁾에 대해, 개신조는 당시 그대로의 것이라고 반론하는 한편, 개신 이후인 7세기 후반의 역사를 '오우미료', 지토(持統) 천황 3년(689) 시행된 '아스카키요미하라리츠료(飛鳥淨御原律令)'를 지나 다이호 원년~2년(701~2) 시행된 다이호 율령에 이르는 율령제도의 형성 과정을 처음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다이카 개신을 일본사상 최초의 왕정복고로서, 이후 당율령의 수용을 통해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로서의 율령제가 정비되어 간다고 한 사카모토 타로의 역사관은 근대 천황제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다이카 개신, 켄무(建武) 중흥, 메이지 유신을 일본사상의 3대 변혁기로 봐온 메이지 정부의 역사관을 관학(官學) 아카데미즘의 입장에서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한 것이기도 했다. 일부 연구자들이 사카모토 패러다임이라고도 부르는 이 강력한 틀은 현재의 일본 중·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에서도 큰 틀로서 유지되고 있고, 초등학교 역사 교육에서도 다이카 개신은 고대사의 변혁기로서 크게 다뤄지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 중에 탄압받았던 츠다 소우키치의 업적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던 중, 그 영향을 받은 이노우에 미츠사다(井上光貞)는 7세기의 금석문 등에서 다이호료(大寶令) 시행 이전에는 지방 행정 단위원 '군(郡)'이 '평(評)'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일본서기"의 개신조는 편찬 당시의 현행법이었던 다이호료를 가지고 수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⁵⁾, 사카모토 타로와 이른바 군평논쟁을 벌였다. 이 논쟁은 1966~7년에 행

1) 仁井田, 1933.

2) 池田責任編集, 1997.

3) 坂本, 1938.

4) 津田, 1930~31.

5) 井上, 1952.

해진 후지와라쿠(藤原宮)의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목간들의 검토를 통해 '군'이라는 글자의 사용이 다이호료 시행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이 확정되면서 이노우에 미츠사다의 주장이 통설이 되었다. 또한 아오키 카즈오(青木和夫)는 율령의 말 뜻을 중국 선진(先秦) 시대 이래의 역사 연혁에 따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즉 단순한 법규를 의미하며 조(詔)·칙(勅) 등의 형태를 취하는 단행법(單行法)만으로 구성되는 '넓은 의미의 율령'과 호령(戶令), 부역령(賦役令) 등 편목으로 분류되어 체계성을 갖춘 편찬 법전으로서의 '좁은 의미의 율령'으로 구분하여, 이른바 '오우미료'는 전자에 해당하며, 체계적인 편찬법으로서의 령은 '아스카키요미 하라리츠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오우미료 부정론을 주장했다.⁶⁾ 현재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군평논쟁이 사료 비판의 사례 중 하나로서 들어지며, 또한 오우미료의 성격에 대해서도 아오키 카즈오의 학설에 따라 서술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8세기 이후의 일본 고대 국가를 '율령 국가'로 보고, 그 성립을 다이카 개신부터 다이호 율령의 시행에 이르는 법전의 정비를 통해 설명하는 사카모토 타로 학설의 틀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3. 동아시아 세계론과 '율령 국가들'

앞서 서술한 연구들의 흐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율령'과 '율령제'를 어떠한 특정 역사적 단계에 대응하는 법체계·국가체제로 보는 발상은 근대 일본의 역사 연구에서 유래했다. 중국이나 한국 등지의 역사 연구에서 쓰이는 '율령'이라는 말은 '법률'이나 '법령'과 다를 바 없는 보통 명사로 쓰이며, '율령 국가', '율령 시대'라는 말 또한 '법치 국가', '법치 시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에 특정 시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또 두 지역에서의 '법'은 유교가 이상적으로 보는 행위 규범·사회 질서인 '예(禮)'보다도 한 단계 낮은 필요악으로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근대 이전에는 '법'의 정비를 국민 의식(national identity)과 연결 짓는 발상 자체가 희박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세계 대전 후의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중국사의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가 동아시아 세계론을 제창하며 역사적 문화권으로서의 동아시아를 특징짓는 4가지 지표로서 한자 문화, 유교, 한역(漢譯) 불교와 함께 율령제를 들면서기 율령제·율령국가라는 개념이 일본사 뿐만 아니라 동양사 연구에 있어서도 공유되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당대사(唐代史)연구회 등에 모인 연구자들에 의해 조선·일본·베트남·티벳 등 중국 주변 국가들을 '율령 국가들'로서 규정짓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명확한 형태로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세계사를 포함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속에서는 통일기의 신라가 당의 제도를 채용하여 중앙집권의 틀을 정비했다는 점에 대한 서술도 보인다.

6) 青木, 1954.

7) 西嶋, 1970.

니시지마 사다오의 동아시아 세계론에 영향을 받은 일본 고대사 연구자 요시다 타카시(吉田孝)는 "7세기 동아시아에서 왜 일본 만이 율령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이유로서 모태가 되는 중국 율령이 사회 규범인 예제(禮制)와는 별도의 존재이면서 기본적으로 행정 법규만으로 성립되어 왕권의 존재 방식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더하여, 조선 등의 나라와는 달리 왜가 당(唐)으로부터 책봉 받지 않았던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⁸⁾ 이러한 요시다 타카시의 견해는 니시지마 사다오의 동아시아 세계론에 더하여 이시모다 쇼(石母田正)의 '동이(東夷)의 소제국(小帝國)'론⁹⁾을 전제로 두고 있는데, 두 학설에 대해서 최근, 일견 세계사적인 시야에 서있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본사의 틀을 주변으로 확장시킨 것에 지나지 않고 일본사에서 밖에 통용될 수 없는 단일 국가사적인 견해라는 비판도 있다.¹⁰⁾

"7세기 동아시아에서 왜 일본 만이 율령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은 메이지 이래의 법제사 연구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실은 "(독자적인) 율령을 만든 일본은 (조선 등의 나라들 보다) 뛰어나다"라는 인식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본인이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하고 있는 '율령', '율령제'라는 용어는 근대 이후에 형성된 '단일 국가사'적인 역사 인식의 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4. 북송(北宋) 천성령(天聖令)의 발견과 다이호료(大寶令) 변혁기설

앞서 메이지 이래의 율령제 연구의 흐름과 교육 현장 및 일본인의 역사 인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는데, 20세기 말에 이러한 전제를 뒤흔드는 커다란 발견이 있었다. 1999년 중국 상해사범대학(上海師範大學)의 대건국(戴建國)이 절강성(浙江省) 영파시(寧波市)의 천일각(天一閣) 박물관에 "관품령(官品令)"이라는 이름으로 소장중이었던 명대(明代)의 사본이 실은 북송 천성(天聖) 7년(1029)에 완성된 천성령의 끝부분 1/4(권21~30)의 사본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2006년에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간행되어 그 전체상이 명확해진 천성령은 당대(唐代) 최후의 령(令)인 개원(開元) 25년(737)령을 근간으로 개변(改變)한 송대의 현행법인 송령(宋令)의 조문을 먼저 기록하고, 그 뒤에 당시 이미 사용되고 있지 않았던 당령(唐令)의 조문을 그대로 실고 있다.¹¹⁾ 그 결과, 이전에는 일문(逸文)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복원할 수 밖에 없었던 당령의 조문이 그대로 대량 알려지고, 당령을 고친 송령의 조문도 당령을 고쳐 쓴 것이기에 당령의 복원과 일본령(日本令)과의 비교 연구의 세밀함이 비약

8) 吉田, 1983-1997.

9) 石母田, 1963.

10) 李, 2000 등.

11) 天一閣博物館·中国社会科学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2006.

적으로 높아짐과 동시에, 당·일령 비교 연구 전반에 있어서도 새로운 과제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동향 속에서 발표자는 689년 시행된 키요미하라료(淨御原令)와 701년 시행된 다이호료(大寶令)의 성격의 차이점에 대해 재검토하여, 최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게 되었다.¹²⁾ 키요미하라료는 그 이전부터 개별로 반포된 조(詔) 등의 법들을 집성한 것으로 제정 시에는 당령의 조문을 개별적·선택적으로는 수용하였어도 편목으로서 체계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다. 그에 반해 다이호료의 편찬에서는 당령을 편목마다 제 1조부터 순서대로 검토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본령의 조문을 확정해 가는 축조(逐條)적·체계적인 수용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 발표자는 이와 별도로 일본의 율령제(가칭 '넓은 의미의 율령제'라고 부름)를 위진남북조부터 수대(隋代)까지의 율령제를 한반도를 경유해 수용한 부분('Pre율령제'라 가칭)과 일본령의 편찬 과정에서 당령의 체계에 준거해 기술한 부분('좁은 의미의 율령제'라 가칭)의 2층 구조로 보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¹³⁾ 'Pre율령제'의 구체적인 요소로서는 이전부터 지적되어온 것처럼 개신조 제 4조의 부문(副文)에 보이는 '호별(戶別)의 조(調)'가 서진(西晉) 이후의 남조(南朝)의 제도에서부터, 또 '관마(官馬)' 징집 규정이 북위(北魏)와 수(隋)로부터 유래한 듯 한 것¹⁴⁾, 덴지(天智)조 말부터 덴무(天武)조 관제(官制)의 6관이 중국의 상서 육부를 직접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일단 백제로부터 수용한 것을 모범으로 삼았다고 생각되는 것¹⁵⁾, 아스카키요미하라료의 태정관제(太政官制)에서 납언(納言)을 수·당의 제도와 달리 대·중·소로 구별한 것도 북주(北周)의 제도가 선례가 되었다는 것¹⁶⁾ 등을 들 수 있다.

사카모토 타로 이후의 일본 고대사 연구는 율령제의 성립을 체계적인 편찬법으로서의 '좁은 의미의 율령'의 성립과 동일시하여, 그 단계적인 발전 과정으로서 이해해왔다. 그러나 발표자가 주장한 것처럼 '좁은 의미의 율령'이 그 최종 단계로 여겨져 온 다이호 율령에서 처음으로 성립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율령제'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된다.

5. 신라의 '율령제'에 대하여

그런데 아스카키요미하라료나 다이호료가 편찬된 덴무조부터 몬무(文武)조 초기는, 실은 건당사(遣唐使)가 단절되었던 기간에 해당한다. 최근 한국 고대사 연구자인 이성시(李成市)

12) 大隅, 2008.

13) 大隅, 2006.

14) 井上, 1964.

15) 内藤, 1957.

16) 東野, 1984.

는 일본의 덴무·지토(持統)조와 동시기인 신라 문무왕(文武王)·신문왕(神文王)의 시대(661~692)의 ①조방제(条坊制)의 시행 등 왕경(王京)의 정비, ②9주·5경제(九州·五京制)를 중심으로 한 지방 및 군사 제도의 정비, ③5등관제(五等官制)의 채용 등에서 보이는 관제와 녹읍(祿邑)의 폐지와 월봉(月俸)지급 등 관인 급여제의 정비, ④사원 건립과 사원관계 관사(官司)의 정비 등 국가 불교의 전개, ⑤종묘 및 대·중·소 사제(祀制) 등에 보이는 중국적 제사 제도의 정비 등으로부터 성립된 일련의 중앙집권화 정책을 당율령제를 체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새로운 사료도 활용하여 골품제의 성립시기를 신문왕 대(681~692)로 보면서, 덴무 13년(684) 제정된 야쿠사(八色)의 카바네(姓)와의 동시대성도 지적하고 있다.¹⁷⁾ 덴무·지토조의 국가 체제가 동시기의 신라와 유사하다는 점은 이전부터 지적되어왔으나¹⁸⁾, 이성시의 견해에 따르면, 이 유사성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일본이 당의 율령제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신라의 수용 방식이 거의 유일한 참고군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7세기말 신라의 국가 체제 전체를 당제(唐制)의 수용이라는 관점으로 설명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다이호료의 시행을 전후한 시기의 후지와라큐(藤原宮)·헤이조큐(平城宮) 목간의 연기(年紀)를 검토한 키시 토시오(岸俊男)는 7세기 키요미하라료(淨御原令)제하(制下)에서의 양식이 한반도나 중국 남북조 시기의 것과 일치하는 것에 비해 다이호료 시행을 경계로 당과 같은 양식으로 변한 것에 더하여, 신라에서는 8세기 이후에도 중국 남북조 시기와 같은 오래된 양식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¹⁹⁾ 이성시의 주장처럼 일본에 있어서 신라를 매개로 한 당제 수용은 매우 중요했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신라의 국가 체제 자체는 그 이전부터 중국과의 교섭에 의해 이어져 온 남북조 시기의 요소도 짙게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의 법제에 대해서 일본 학계에서는 영휘율령(永徽律令) 등의 당율령을 형식적으로는 받들면서, 실제로는 왕이 반포하는 단행법이나 그것들을 모아 편찬한 격식에 근거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²⁰⁾ 이러한 법의 존재 방식은 아오키 카즈오가 정의한 '넓은 의미의 율령'에 해당하는데, 아오키 카즈오의 오우미료(近江令) 부정론에 더해 앞서 말한 발표자의 견해를 통해 본다면, 다이호 율령 시행 이전의 일본 율령도 또한 '넓은 의미의 율령'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말한 것처럼 7세기까지의 일본 국가 체제는 당보다도 남북조 시기의 국가 체제의 영향이 강했고, 해당 시기의 신라와 일본의 국가 체제는 이성시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의미로서도 눈에 띄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이호료(大寶令)의 편찬은 그때

17) 李, 2004.

18) 鈴木, 1982 등.

19) 岸, 1980.

20) 林, 1968 등.

까지의 국가 체제의 성격을 일신하여 당령(唐令)의 체계에 준거해서 새로 기술한 완전히 새로운 시도였던 것이다.

이 점은 통일기 신라에 있어서도 율령이 지나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 다이호 율령에 이르는 '좁은 의미의 율령'의 편찬을 국민 의식(national identity)과 연결 지어 온 메이지 이래의 일본인은 신라가 독자적인 율령을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신라 측에서 본다면, 일부러 율령을 편찬하지 않음으로서 당과 교섭하기 이전부터의 고유한 국가 체제를 온존시키고 당과는 다른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신라는 율령법의 직접적인 수용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율령과 한 쌍을 이루는 예전(禮典)의 수용에 대해서는 7세기 단계부터 일본 이상으로 적극적이었다. 신문왕 6년(686) 2월에는 당에 사신을 파견해 예(禮) 및 잡문서를 요청하여, 당 중종(中宗)으로부터 길흉요례(吉凶要禮)와 "문관사림(文館詞林)"에서 규계(規戒)에 관한 것을 발췌한 내용 50권을 하사받았다. 일본에서의 독자적인 율령 편찬을 동시대의 신라가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는 알 수 없으나, 율령과 예제(禮制)의 밀접한 관련성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신라와 비교해서 예제 수용이 늦었던 일본이 율령을 편찬하여도 중국적인 가치관에서 본다면, 매우 불완전한 것으로 비춰졌을 것은 쉬이 상상할 수 있다.

일본 고대사 연구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아스카키요미하라료(飛鳥淨御原令)의 편찬이 시작된 덴무 13년(684) 12월에 신라를 경유해 당에서 귀국한 대당(大唐) 학생인 하지노스쿠네오이(土師宿禰甥)와 시라이노후히토호네(白猪史宝然)는 후에 다이호 율령 편찬 멤버가 된다. 또 다른 편찬 멤버 중 한명인 이키노무라지하카토코(伊吉連博徳)는 지토 9년(695) 7월에 견신라사(遣新羅使)로 임명된다. 율령뿐만 아니라, 격식과 법서(法書)를 포함한 법전(法典)의 수입과 이를 읽어내기 위한 법 지식의 입수라는 관점에서 이 시기의 신라와의 교류는 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고 봐야만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일본 교과서에서의 율령 편찬사는 변함없이 견당사(遣唐使)를 통한 당 제도의 수입이라는 단일 국가사적인 시점에 머물고 있다. 일본과 신라 사이의 사절 왕래의 의의도 문화 교류의 문맥에서 이야기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의 한일교류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을 거라 생각된다.

이번 보고에서는 19세기말 이후의 일본 율령제 연구가 지녀온 단일 국가사적인 시점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그것이 현재 교과서 서술에 있어서도 질게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금세기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문부과학성이 정한 학습 지도 요령이나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반영되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재작년에 시행된 최신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지리역사 편(헤이세이(平成) 30년 고시)에서는 '역사의 해석, 설명, 논술'을 통한 지식, 개념의 깊이 있는 이해와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의 육성과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 학습법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이 강조되고, 특히 학생 스스로가 과제를 설정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앞서 든 문제들이 어떻게 극복되어 가는지, 한 명의 연구자로서도 그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참고 문헌〉

- 青木和夫, 「浄御原令と古代官僚制」
 (『古代学』3-2, 1954年, 同著『日本律令国家論攷』岩波書店, 1992年に収録)
- 池田温責任編集, 「唐令拾遺補」(東京大学出版会, 1997年)
- 石母田正, 「天皇と「諸蕃」-大宝令制定の意義に関連して-」
 (『法学志林』60-3-4合併号, 1963年, 同著, 『日本古代国家論 第1部』, 岩波書店, 1973年に収録)
- 井上光貞, 「郡司制度の成立年代について」
 (『古代学』1-2, 1952年, 『井上光貞著作集 第4巻 大化前代の国家と社会』, 岩波書店, 1985年に収録)
- 井上光貞, 「大化改新の詔の研究」
 (『史学雑誌』73-1~2, 1964年, 『井上光貞著作集 第1巻 日本古代国家の研究』, 岩波書店, 1985年に収録)
- 大隅清陽, 「大化改新論の現在-律令制研究の視角から-」(『日本歴史』700, 2006年)
- 大隅清陽, 「大宝律令の歴史的位相」
 (大津透編, 『日唐律令比較研究の新段階』, 山川出版社, 2008年に所収)
- 岸俊男, 「木簡と大宝令」
 (『木簡研究』2, 1980年, 同著, 『日本古代文物の研究』, 塙書房, 1988年に収録)
- 坂本太郎, 「大化改新の研究」
 (至文堂, 1938年, 『坂本太郎著作集 第6巻 大化改新』, 吉川弘文館, 1988年に収録)
- 鈴木靖民, 「日本律令国家と新羅・渤海」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第6巻 日本律令国家と東アジア』, 学生社, 1982年, 同著, 『古代対外関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年に収録)
- 津田左右吉, 「大化改新の研究」
 (『史苑』5-3~6-5, 1930~31年, 『津田左右吉全集 第3巻 日本上代史の研究』, 岩波書店, 1963年に収録)
- 天一閣博物館・中国社会科学院歴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校証, 『天一閣蔵明鈔本天聖令校証 附唐令復原研究』(中華書局, 2006年)
- 東野治之, 「大宝令前の官職をめぐる二, 三の問題」
 (狩野久編, 『日本古代の都城と国家』, 塙書房, 1984年, 同著, 『長屋王家木簡の研究』, 塙書房, 1996年に収録)
- 内藤乾吉, 「近江令の法官・理官について」
 (『法制史研究』9, 1957年, 同著, 『中国法政史考証』, 有斐閣, 1963年に収録)

仁井田陞,『唐令拾遺』(東方文化学院,1933年,東京大学出版会復刊,1964年)

西嶋定生,「序説-東アジア世界の形成-

(『岩波講座世界歴史 第4巻 古代4』,岩波書店,1970年,同著,『中国古代国家と東アジア世界』,東京大学出版会,1983年に収録)

林紀昭,「新羅律令に関する二、三の問題」(『法制史研究』17,1968年)

吉田孝,『律令国家と古代の社会』(岩波書店,1983年)

吉田孝,『日本の誕生(岩波新書)』(岩波書店,1997年)

李成市,『東アジア文化圏の形成』(山川出版社,2000年)

李成市,「新羅文武王・神文王代の集権政策と骨品制」(『日本史研究』500,2004年)

日本の教科書における東アジア古代史の記述と認識 - 法典整備の評価をめぐって -

大隅清 (山梨大学大学院総合研究部教育学域・教授)

1. 中国律令の継受と唐令復原研究

7世紀半ばの大化元年(645)に起きた政変である大化の改新を契機として、倭(日本)では中国唐の律令法の継受が始まり、8世紀初めには日本独自の大宝律令<たいほうりつりょう>が制定・施行される。今日の日本史学においては、一般に、その枠組みが維持されていた10世紀頃までの古代国家を「律令国家」<りつりょうこっか>、その国制を「律令制」<りつりょうせい>と呼んでいる。律令のうち、律は刑法に相当すると言われるが、その対象は今日のそれよりも広く、国家行政や社会秩序のあるべき姿を、刑罰を伴う禁止条項のまとまりとして示したものであり、令は、主として官僚機構による行政の手続きを、刑罰を伴わない条文の形で示したものである。

いわゆる法家思想に顕著なように、前近代中国における法とは、一般に、刑罰によって社会の秩序を維持するものと考えられていたので、令よりも律が基本法として重視され続け、唐律のテキストも、ほぼ完全なものが現在に伝わっている。ところが、令に規定されるような国家行政の具体的な内容は、時代による変遷が著しかったため、唐令のテキストは基本的に散逸してしまった。これに対し日本では、大宝律令の改訂版である養老律令<ようろうりつりょう>のうち、養老律はごく一部しか残らないが、養老令の本文は、その平安時代の注釈書である『令義解』<りょうのぎげ>や『令集解』<りょうのしゅうげ>などの形で、9割以上が現存しているという違いがある。

日本律令に関する近代的な研究は、19世紀の末に、主として法制史の分野から始まったが、それは、明治維新の王政復古のイデオロギーを背景に、当時公布されたばかりの大日本帝国憲法を古代の律令になぞらえ、それを研究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の「国体」の淵源を探るという意図を持っていた。継受法である日本律令の特色をとらえるためには、母法である唐律令との比較が必要であるが、前述のように、唐令の

写本は失われていたため、主として法学部における法制史学の分野において、養老令を参考にしつつ、中国の様々な書物に引用された唐令の逸文を組み合わせて、失われた唐令を推定復原することが試みられてきた。その成果は『唐令拾遺』(仁井田、1933)、『唐令拾遺補』(池田責任編集、1997)などに集成されている。

2. 坂本太郎の律令制成立史研究と教科書記述

法学部の法制史研究が進む一方で、日本史学の立場から律令制を研究の主題とし、それを古代国家の成立史と結びつけて論じたのが、昭和戦前期から戦後にかけて、東京大学文学部国史学科教授として活躍した坂本太郎<さかもとたろう>である。坂本は、1938年刊行の『大化改新の研究』(坂本、1838)において、『日本書紀』孝徳天皇大化2年(646)正月甲子朔条に見え、後の日本律令制の大枠を定めたとされる大化改新詔が、天智天皇7年(668)制定とされる近江令<おうみりょう>の内容によって修飾されている可能性を指摘した津田左右吉<つだそうきち>〔津田、1930~31〕に対し、改新詔は当時のままであると反論したうえで、改新以後の7世紀後半の歴史を、近江令、持統天皇3年(689)施行の飛鳥浄御原律令<あすかきよみはらりつりょう>を経て、大宝元~2年(701~2)施行の大宝律令に至る律令制度の形成過程として初めて体系的に叙述していた。

大化改新を日本史上初の王政復古とし、以後、唐律令の継受によって、天皇を中心とする中央集権体制としての律令制が整備されてゆくという坂本の歴史像は、近代天皇制のイデオロギーのもとに、大化改新、建武中興<けんむちゅうこう>、明治維新を日本史上の三大画期としてきた明治政府の歴史観を、官学アカデミズムの立場から実証的に裏付けようとするものでもあった。一部の研究者が坂本パラダイムとも呼んでいるこの強固な枠組みは、現在の日本の中学校、高等学校の歴史教科書においても大枠で維持されており、小学校の歴史教育においても、大化改新は古代史における画期として大きく扱われ続けている。

第二次大戦後、戦時中に弾圧されていた津田の業績の再評価が進むなか、その影響を受けた井上光貞<いのうえみつさだ>は、7世紀の金石文などにおいて、大宝令施行以前には、地方行政単位である「郡」が「評」と記載されていることを指摘し、『日本書紀』の改新詔は、その編纂時の現行法である大宝令で修飾されていると主張して(井上、1952)、坂本との間でいわゆる郡評論争が展開した。この論争は、1966~7年に行われた藤原宮<ふじわらきゅう>の発掘調査で出土した木簡群の検討により、「郡」字の使用が大宝令の施行によって始まることが確定した結果、井上の主張が通説化した。また青木和夫<あおきかずお>は、律令の語義を、中国先秦時代以来の歴史

的沿革にしたがって、広狭の二義、すなわち、単なる法規を意味し詔・勅などの形をとる単行法のみから成る「広義の律令」と、戸令、賦役令などの篇目に分類され体系性を持つ編纂法典としての「狭義の律令」に区分したうえで、いわゆる近江令は前者にあたり、体系的な編纂法としての令は飛鳥浄御原令に始まるとする近江令否定論を提唱した(青木、1954)。現在の高等学校の教科書においては、郡評論争が史料批判の事例の一つとして取り上げられ、また近江令の性格についても青木説による記述が一般化しているが、8世紀以後の日本の古代国家を「律令国家」としてとらえ、その成立を、大化改新から大宝律令の施行に至る法典の整備から説明する坂本学説の枠組みそのものは変わっていない。

3. 東アジア世界論と「律令国家群」

以上述べてきた研究の流れからもわかるように、「律令」や「律令制」を、ある特定の歴史段階に対応する法体系・国家体制とする発想は、近代日本の歴史研究に由来する。中国や韓国などの歴史研究における「律令」という語は、「法律」や「法令」と異ならない普通名詞であり、「律令国家」「律令時代」という語も、「法治国家」「法治時代」と同義になってしまうため、特定の時代を示す概念としては通常用いられない。また両地域における「法」は、儒教が理想とする行為規範・社会秩序である「礼」よりも一段劣る必要悪と見なされる傾向が強く、特に近代以前においては、「法」の整備を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に結びつける発想自体が希薄であったことにも留意すべきである。

その一方、戦後日本の歴史学界においては、中国史の西嶋定生くにしじまさだお>が東アジア世界論を提唱し、歴史的文化圏としての東アジアを特徴づける四つの指標として、漢字文化、儒教、漢訳仏教と並んで律令制を挙げたことによって(西嶋、1970)、律令制・律令国家という概念が、日本史のみならず、東洋史研究の場でも共有されるようになった。特に1970年代以降には、唐代史研究会などに集まった研究者によって、朝鮮・日本・ヴェトナム・チベットといった中国の周辺諸国を「律令国家群」としてとらえることも行われた。こうした研究動向は、学校で使われる教科書に明示的な形では反映されていないが、世界史の記述も含む中学校の歴史教科書のなかには、統一期の新羅が、唐の制度を採り入れて中央集権の仕組みを整えたことに触れているものも見られる。

西嶋定生による東アジア世界論の提唱をうけた日本古代史研究者の吉田孝くよしたたかし>は、「7世紀の東アジアにおいて、なぜ日本のみが律令を体系的に継受できたのか」という問いを設定し、その理由として、母法である中国律令が、社会規範である礼制とは別個のものであると同時に、基本的に行政法規のみから成り、王権の

あり方を直接には規定していなかったことに加えて、朝鮮諸国とは異なり、倭が唐から冊封されていなかったことが有利な条件として働いたことを挙げている〔吉田、1983・1997〕。こうした吉田の理解は、西嶋の東アジア世界論に加え、石母田正くいしもだしょうの「東夷の小帝国」論〔石母田、1963〕を前提としているが、この両説については、近年、一見世界史的な視野に立つようでありながら、実は日本史の枠組みを周辺に拡張したに過ぎず、日本史でしか通用しない一国史的なものであるとの批判もある〔李、2000など〕。

「7世紀の東アジアにおいて、なぜ日本のみが律令を体系的に継受できたのか」という問いは、明治以来の法制史研究の系譜を引くものでもあるが、実はそれは、「（独自の）律令を作った日本は（朝鮮諸国より）優れている」という認識を暗黙の前提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日本人が当たり前のように用いている「律令」「律令制」という用語は、近代以降に形成された「一国史」的な歴史認識の枠組みと、不可分なものなのである。

4. 北宋天聖令の発見と大宝令画期説

以上、明治以来の律令制研究の歩みと、それが教育現場や日本人の歴史認識に及ぼした影響について見てきたが、20世紀の末に、その前提を揺るがす大きな発見があった。1999年に中国・上海師範大学の戴建国が、浙江省寧波市の天一閣博物館に『官品令』という書名で所蔵されてきた明代の写本が、実は北宋の天聖7年（1029）に完成した天聖令の末尾四分の一（巻21～30）の写本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のである。2006年に中華書局から公刊され、その全体が明らかとなったこの天聖令は、唐代最後の令である開元25年（737）令をもとに、それを改変した宋代の現行法である宋令の条文をまず並べ、その後、当時既に用いられなくなっていた唐令の条文をそのまま載せている〔天一閣博物館・中国社会科学院歴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2006〕。その結果、従来は逸文などにより間接的に復原するしかなかった唐令の条文そのものが大量に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うえに、唐令を改めた宋令の条文も唐令を書き換えたものであるため、唐令の復原と日本令との比較研究の精度が飛躍的に高まるとともに、日唐令比較研究全般についても、新たな課題が与えら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

こうした研究動向のなかで、報告者は、689年施行の浄御原令と701年施行の大宝令の性格の違いについて改めて検討を行い、近年、次のような仮説を提示している〔大隅、2008〕。浄御原令は、それ以前から個別に発布されてきた詔などの単行法の集成であって、その制定に際しては、唐令の条文の個別的・選択的な継受は行われても、篇目としての体系的な継受は行われなかった。これに対し、大宝令の編纂におい

ては、唐令を篇目ごとに第1条から順番に検討し、それに対応する日本令の条文を確定してゆくような逐条的・体系的な継受が初めて行われた、というものである。

また報告者は、これとは別に、日本の律令制（仮に「広義の律令制」と呼ぶ）を、魏晋南北朝から隋代までの律令制を朝鮮半島経由で継受した部分（「ブレ律令制」と仮称）と、日本令の編纂の過程で唐令の体系に準拠して記述された部分（「狭義の律令制」と仮称）の二層構造としてとらえることを提唱したことがある〔大隅、2006〕。「ブレ律令制」の具体的な要素としては、従来から指摘されるように、改新詔第4条の副文に見える「戸別の調」が西晋以降の南朝の制度に、また「官馬」徴集の規定が北魏や隋のそれに由来するらしいこと〔井上、1964〕、天智朝末から天武朝の官制における六官が、中国の尚書六部を直接継受したものではなく、いったん百濟に継受されたものを範と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こと〔内藤、1957〕、飛鳥浄御原令の太政官制において、納言を隋唐の制と異なり大・中・小に分かつのも、北周の制に先例があること〔東野、1984〕など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

坂本太郎以来の日本古代史研究は、律令制の成立を、体系的な編纂法としての「狭義の律令」の成立と同一視し、その段階的な発展の過程として理解してきた。しかし筆者の主張のように、「狭義の律令」が、その最終段階とされてきた大宝律令で初めて成立したのだとすると、いわゆる「律令制」の成立過程についても、大幅な見直しが必要になってくる。

5. 新羅の「律令制」をめぐって

ところで、飛鳥浄御原令や大宝令が編纂された天武朝から文武朝初年にかけては、実は遣唐使の途絶期間にあたっている。近年、韓国古代史研究者の李成市は、日本の天武・持統朝と同時期の新羅の文武王・神文王の時代（661～692年）における、①条坊制の施行などの王京の整備、②九州・五京制を中心とする地方や軍事制度の整備、③五等官制の採用などに見られる官制と、禄邑の廃止と月俸支給などの官人給与制の整備、④寺院建立と寺院関係官司整備などの国家仏教の展開、⑤宗廟や大・中・小祀制などに見られる中国的な祭祀の整備、などから成る一連の中央集権化策を、唐律令制を体系的に継受したものと評価している。また、新たな史料も用いて骨品制の成立時期を神文王代（681～692年）に求めたうえで、天武13（684）年制定の八色<やくさ>の姓<かばね>との同時代性も指摘している〔李、2004〕。天武・持統朝の国制が、同時期の新羅のそれと類似することは従来から指摘されてきたが〔鈴木、1982など〕、李によれば、その類似は表面的なものではなく、当時の日本が唐の律令制を継受するにあたって、新羅によるその受容のあり方は、ほぼ唯一の参照系

であったことになる。

しかしその一方、7世紀末の新羅国制の全てを、唐制の継受という観点から説明できるかには疑問もある。大宝令の施行をはさんだ前後の時期の藤原宮・平城宮<へいじょうきゅう>木簡の年紀記載を検討した岸俊男<さしとしお>は、7世紀の浄御原令制下におけるその様式が、朝鮮半島や中国南北朝期のものと一致するのに対し、大宝令の施行を境に、唐と共通する様式になることに加えて、新羅においては、8世紀以後も、中国南北朝期と共通する古い記載様式が使われ続けたことを指摘している〔岸、1980〕。李成市の主張のように、日本にとって、新羅を媒介とした唐制継受は極めて重要であったが、その一方で、当時の新羅の国制そのものは、それ以前からの中国との交渉によって継受した、南北朝期の要素も色濃く残すもの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

新羅の法制については、日本の学界では、永徽律令などの唐律令を形式的には奉じつつ、実際には、王が發布する単行法や、それらを編纂した格式に基づいていたとされることが多い〔林、1968など〕。こうした法のあり方は、青木和夫の定義する「広義の律令」に相当するが、青木の近江令否定論に加え、前述した報告者の見解を踏まえれば、大宝律令施行以前の日本の律令もまた、「広義の律令」にとどまるものであった。前述のように、7世紀までの日本の国制は、唐よりも南北朝期の国制の強い影響下にあり、当該期の新羅と日本の国制は、李成市の主張とはやや異なる意味においても、著しい共通性を持つものであった。この意味で、大宝令の編纂とは、それまでの国制のそうした性格を一新し、唐令の体系に準拠して記述し直すという、全く新しい試みであったことになる。

この点は、統一期の新羅において、律令の持った意味を考えるうえでも重要である。大宝律令に至る「狭義の律令」の編纂を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に結びつけてきた明治以来の日本人は、新羅が独自の律令を「作れなかった」と考えやすい。しかし新羅の側から見れば、律令をあえて編纂しないことによって、唐と交渉する以前からの固有の国制を温存し、唐とは異なる独自性を維持できたと見ることもでき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また新羅は、律令法の直接的な継受には消極的であったが、律令とセットを成す礼典の受容については、7世紀の段階から日本以上に積極的であった。神文王6(686)年2月には唐に遣使して礼および雑文章を請い、唐の中宗より、吉凶要礼と『文館詞林』から規戒に関するものを抄出した50巻を賜っている。日本における独自の律令編纂を、同時代の新羅が知っていたか、知っていたとすればどのように認識していたのかは不明であるが、律令と礼制との密接な関連一つをとってみても、新羅と比べて礼制継受の遅れた日本が律令を編纂しても、中国的な価値観から見れば、極めて不完全なものになることは容易に想像されただろう。

日本古代史の研究者にはよく知られているが、飛鳥浄御原令の編纂が始まって

いた天武13年(684)12月に、新羅経由で唐から帰国した大唐学生の土師宿禰甥くはじのすくねおい>と白猪史宝然くしらいのふひとほね>は、後の大宝律令の編纂メンバーである。また同じく編纂メンバーの一人である伊吉連博徳くいさのむらじはかとこ>は、持統9年(695)7月に遣新羅使に任命されている。律令のみならず、格式や法書を含む法典テキストの舶載や、それを読みこなすための法知識の入手という点で、この時期の新羅との交流は、倭国にとって極めて重要であった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前述のように、日本の教科書における律令の編纂史は、相変わらず遣唐使を通じた唐の制度の輸入という一国史的な視点にとどまっている。日本と新羅との使節往来の意義も、文化交流の文脈で語られることが多いが、これは韓国における韓日交流史とも共通する傾向な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今回の報告では、19世紀末以来の日本の律令制研究がかかえてきた一国史的な視点の問題を指摘したうえで、それが現在の教科書記述にも色濃く残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今世紀以降の研究においては、それを乗り越える新たな成果が上がり始めているものの、残念ながら、それが文部科学省の定める学習指導要領や、学校現場で使われる教科書に反映されるには至っていない。しかし、一昨年に施行された最新の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地理歴史編(平成30年告示)では、「歴史の解釈、説明、論述」を通じた知識、概念の深い理解と「思考力、判断力、表現力等」の育成や、資料を活用し、歴史の学び方を習得する学習が謳われ、特に生徒自身が課題を設定し、自ら考えることが強調されている。こうした教育現場での実践を通して、上記のような問題がどのように克服されてゆくか、一研究者としても、その推移に注目してゆきたい。

<参考文献>

- 青木和夫「浄御原令と古代官僚制」(『古代学』3-2、1954年、同著『日本律令国家論攷』岩波書店、1992年に収録)
- 池田温責任編集『唐令拾遺補』(東京大学出版会、1997年)
- 石母田正「天皇と「諸蕃」-大宝令制定の意義に関連して-」(『法学志林』60-3・4合併号、1963年、同著『日本古代国家論 第1部』岩波書店、1973年に収録)
- 井上光貞「郡司制度の成立年代について」(『古代学』1-2、1952年、『井上光貞著作集 第4巻 大化前代の国家と社会』岩波書店、1985年に収録)
- 井上光貞「大化改新の詔の研究」(『史学雑誌』73-1~2、1964年、『井上光貞著作集 第1巻 日本古代国家の研究』岩波書店、1985年に収録)
- 大隅清陽「大化改新論の現在-律令制研究の視角から-」(『日本歴史』700、2006年)
- 大隅清陽「大宝律令の歴史的位相」(大津透編『日唐律令比較研究の新段階』山川出版社、2008年に所収)
- 岸俊男「木簡と大宝令」(『木簡研究』2、1980年、同著『日本古代文物の研究』塙書房、1988年に収録)
- 坂本太郎「大化改新の研究」(至文堂、1938年、『坂本太郎著作集 第6巻 大化改新』吉川弘文館、1988年に収録)
- 鈴木靖民「日本律令国家と新羅-渤海」(『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第6巻 日本律令国家と東アジア』学生社、1982年、同著『古代対外関係史の研究』吉川弘文館、1985年に収録)
- 津田左右吉「大化改新の研究」(『史苑』5-3~6-5、1930~31年、『津田左右吉全集 第3巻 日本上代史の研究』岩波書店、1963年に収録)
- 天一閣博物館・中国社会科学院歴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校証『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証 附唐令復原研究』(中華書局、2006年)
- 東野治之「大宝令前の官職をめぐる二、三の問題」(狩野久編『日本古代の都城と国家』塙書房、1984年、同著『長屋王家木簡の研究』塙書房、1996年に収録)
- 内藤乾吉「近江令の法官・理官について」(『法制史研究』9、1957年、同著『中国法政史考証』有斐閣、1963年に収録)
- 仁井田陞『唐令拾遺』(東方文化学院、1933年、東京大学出版会復刊、1964年)
- 西嶋定生「序説-東アジア世界の形成-」(『岩波講座世界歴史 第4巻 古代4』岩波書店、1970年、同著『中国古代国家と東アジア世界』東京大学出版会、1983年に収録)
- 林紀昭「新羅律令に関する二、三の問題」(『法制史研究』17、1968年)
- 吉田孝『律令国家と古代の社会』(岩波書店、1983年)
- 吉田孝『日本の誕生(岩波新書)』(岩波書店、1997年)
- 李成市『東アジア文化圏の形成』(山川出版社、2000年)
- 李成市「新羅文武王・神文王代の集権政策と骨品制」(『日本史研究』500、2004年)

일본 교과서의 임진왜란 및 조선사 관련 서술과 인식

호리신(堀新) 교수
(共立女子大學 문예학부)

분로쿠·게이초의 역(文祿·慶長の役, 임진왜란) 및 조선사에 관한 일본 교과서의 서술과 인식

호리 신(堀 新), 교리츠 여자대학(共立女子大学) 문예학부

2018년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이 개정되었다. '주체적·대화적이며 깊이 있는 학습'을 목표로 새로운 교과와 과목의 설치와 과목의 통폐합 등이 이루어져 (https://www.mext.go.jp/a_menu/shotou/new-cs/1384661.htm) 202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등학교의 각 학과에 공통되는 교과·과목 등 및 표준 단위 수

(개 정)

(현 행)

교과	과 목	표준 단위 수	이수 필수과목	교과	과 목	표준 단위수	이수 필수과목
지리 역사	지리 종합	2	○	지리 역사	세계사 A	2] ○
	지리 탐구	3			세계사 B	4	
	역사 종합	2	○		일본사 A	2] ○
	일본사 탐구	3			일본사 B	4	
	세계사 탐구	3			지리 A	2	
			지리 B		4		

지리역사과에서는 지리A·지리B·세계사A·세계사B·일본사A·일본사B 6과목에서 지리 종합·지리 탐구·역사 종합·세계사 탐구·일본사 탐구 5과목으로 변경되었다. 지리 종합은 지리A를 기초로 한 과목이고, 역사 종합은 세계사A와 일본사A를 종합한 과목으로 신설 과목이면서 필수 과목이기도 하다. 지리 탐구는 지리B를 기초로 한 과목이고, 일본사 탐구는 일본사B를 기초로 한 과목으로 둘 다 선택 과목이다. 고등학생은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지리 종합과 역사 종합을 배우고,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에 지리 탐구, 세계사 탐구, 일본사

탐구 중에서 하나 또는 두 과목을 배우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학습 지도 요령에서는 역사 종합의 목표로서 근현대사 속에서의 '세계와 그 안의 일본'을 넓고 상호적인 시야 속에서 다루면서 ①역사를 이해하는 힘, ②역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적절하게 조사하여 정리하는 힘, ③역사 사상의 의미와 특색에 대하여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여 설명·논의할 수 있는 힘, ④근현대사의 사상에 대하여 보다 좋은 사회의 실현을 위해 탐구하는 태도, ⑤일본 국민으로서의 자각·자국의 역사에 대한 애정·타국과 타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함을 자각하기 등의 자질·능력을 육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사는 암기 과목이라는 이미지로부터 벗어나 이해력과 탐구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획기적이다. 한편, ⑤일본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애국심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당시 정권의 역사 의식과 관계가 없지 않다.

역사 종합은 일본사와 세계사를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역사 과목으로 18세기 이후의 근현대사를 배우는 과목이다. 18세기 이후의 근현대사를 배우는 것은 일본사A·세계사A와 같지만, 실제 일본사A 교과서에서는 고대부터 일본사의 흐름을 개관하는 것도 있고, 교과서에 따라 각기 달랐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전근대사를 완전히 무시하고서는 근현대사를 배울 수 없다(배울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교과서 집필자와 교과서 회사의 뜻이 깔려 있다.

이번 보고에서는 금년도에 막 시작된 일본사 탐구·세계사 탐구는 일단 차치하고, 2년째에 접어든 역사 종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역사 종합은 18세기 이후를 대상으로 한 과목이기에 원래는 도오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침략 전쟁과 조선통신사는 대상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많다. 필수 과목으로서 고등학생 전원이 배우는 과목이고, 역사 종합 이외의 역사계열 과목을 배우지 않는 고등학생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일본 중세와 근세 중에서, 역사 종합 교과서의 서술 속 17세기 무렵까지의 조선사와 조일(朝日) 관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 표로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기재하고 있는 것은 이성계의 조선 왕조 건국(1392), 무로마치(室町)~에도(江戸)시대의 조일 무역, 도오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전쟁(1592~98),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에 대해서이다. 이하, 순서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역사 종합 · 내용 비교 일람표 (별첨)

· 조선왕조의 건국 (1392년)

4종(No.2, 7, 8, 9)의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다. 그 중 No.7, 8, 9는 머리말인 '역사의 창(歴史の扉)' 등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본문(#별첨표 파란 블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No.2 뿐이다. 이래서는 조선 왕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조일무역 (무로마치 ~ 에도시대)

4개의 창구(근세 일본의 대외관계 창구, 쓰시마(対馬)·나가사키(長崎)·사츠마(薩摩)·마츠마에(松前))를 포함한다는 면에서는 모든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다. 단, 4개의 창구의 개념도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경우도 많다.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전쟁 (1592~98년)

다수의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데,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교과서도 5종(No.1, 4, 6, 11, 12)이다. 또 기재되어 있어도 머리말인 '역사의 창' 등에서만 서술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상세한 교과서(No.5)는 본문에서 그 명칭을 이야기하고 주석에서 자세히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같은 출판사 안에서도 짓교 출판(実教出版, No.4, 5)이나 도쿄 쇼세키(東京書籍, No.11, 12)의 경우, 기재 방식이 전혀 다르다.

· 조선통신사 (에도시대)

대부분의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교과서 3종(No.1, 8, 11) 이외에 도판 등이 게재되어 있을 뿐인 교과서도 2종(No.10, 12)이다. 한편, 본문에서 조선통신사를 다루며 도판 등도 함께 게재하고 있는 교과서 4종(No.2, 4, 5, 6), 통신사와 관련해서 부산 왜관을 다루는 교과서 3종(No.4, 9, 10), 한글(No.9, 10), 명·청(明·淸) 교체기에 싹튼 조선왕조의 소중화(小中華) 의식(No.5, 6)도 있다. 이번에 검토한 항목 중에서는 가장 게재율이 높고, 기재 방식이 구체적이다.

· 기타

그 밖에 1종의 교과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열거하자면, 최승희(No.5), 이상화와 고다이 나오(小平奈緒)(No.6), 양반(No.7), 불국사(No.9), 대장경(No.10), 한복(No.11)가 있다. 이들의 기재는 각각의 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보인다.

가장 채택률이 높은(16.9%) 테이코쿠 쇼인·역사 종합(帝国書院·歴史総合, No.9)은 불국사와 한글도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또 가장 많은 정보를 기재한 교과서는 짓교출판·역사 종합(実教出版·歴史総合, No.5)이다. 최승희와 조선왕조의 소중화 의식, 조선통신사의 경로, 조선통신사에 관한 독자적인 그림 및 조각(쓰치우라 제례도(土浦御祭礼之図), 미하루 하리코 인형(三春張子人形))을 실고 있다.

역사 종합은 머리말에서 '아시아의 역사' 등을 서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조선사에 관한 기술은 적다. 도

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전쟁과 조선통신사에 대한 서술이 없는 교과서가 있을 정도이다. 이들 교과서는 간이판(簡易版)이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17세기까지의 역사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은데, 전근대의 조일 관계를 경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근현대 조일관계 서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가 되겠다.

역사 종합 교과서 12종의 채택률은 분산되어 있고, 일본사B나 일본사 탐구 정도로 특정 교과서에 집중되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또 일본사B나 일본사 탐구와는 달리, 야마카와 출판사(山川出版社)의 채택률이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앞으로도 각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No.9 테이코쿠 쇼인·역사 종합	No.5 킨코 출판·역사 종합	No.3 야마카와 출판·역사 종합

[참고] 역사 종합 · 내용 비교 일람표

	출판사·교과서명	채택률 (%)	머리말 (역사의 창 등)		분문 (18세기의 아시아 등)		
			분문	도판	분문	주석	도판
1	아미카와 출판-우리들의 역사(山川出版-私たちの歴史)	7.6	(4개의 창구)				에도(江戸)시대 대외교역도
2	아미카와 출판-현대의 역사 종합(山川出版-現代の歴史総合)	10.7	조일 무역	조선통신사 내조도(朝鮮通信使來朝圖)	조선왕조 성립,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침략, 통신사		조선국신사회권(朝鮮國信使繪卷), 동래부사접왜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
3	아미카와 출판-역사 종합(山川出版-歴史総合)	15.2		(동아시아 지도)	블로쿠 게이초의 막(임진왜란)	통신사	(일본의 대외관계)
4	짓코 출판-상술(詳述) 역사 종합(実教出版-詳述歴史総合)	10.5		(16C 세계 지도)	부산 왜관, 조선 통신사		4개의 창구, 조선통신사
5	짓코 출판-역사 종합(実教出版-歴史総合)	10.2	최승희 (무용)	최승희 사진, 인터뷰 기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조선통신사, 4개의 입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내용, 조선의 중화 문명 계승자 의식	쓰치우라 제례도(土浦御祭之図), 미하루 하리코 인행(三巻張子人形), 조선 통신사 경로, 4개의 창구
6	시미즈 쇼인 역사 종합(清水書院-歴史総合)	2.2		이상화와 고다이라 나요(小平菫), 식민지 해방을 기뻐하는 서울 시민	통신사, 조선의 소중화(小中華) 의식		조선통신사 병풍, 영국 상관장(商館長) 일기
7	다이 이치 가쿠슈샤 신(新) 역사 종합(第一学習社-新歴史総合)	6.3	조선 건국, 조선 침략, 4개의 창구		양반, 통신사, 조선의 경제와 사회		(18C 아시아 지도)
8	다이 이치 가쿠슈샤 역사 종합(第一学習社-歴史総合)	5.7	조선 건국, 조선 침략, (4개의 창구)				
9	테이코쿠 쇼인 역사 종합(帝国書院-歴史総合)	16.9	조선 건국, 한글	불국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연표)	조선통신사, 부산 왜관		주변제국과의 연결도
10	도쿄 쇼세키 상해(詳解) 역사 종합(東京書籍-詳解歴史総合)	2.0		해인사 대장경, 한글, 조선 통신사 환대도(朝鮮通信使款待圖) 병풍, 도요토미 정권의 조선 침략연표)	(4개의 창구)		부산 왜관, 일본의 무역 관계 지도
11	도쿄 쇼세키 신선(新選) 역사 종합(東京書籍-新選歴史総合)	12.0		한복	(4개의 창구)		일본의 무역 관계 지도
12	메이제이샤-우리들의 역사 종합(明成社-私たちの歴史総合)	0.6			4개의 국가, 조선과의 무역		조선통신사 내조도, 4개의 창구 지도

文禄・慶長の役および朝鮮史に関する日本の教科書の 記述と認識

堀 新(HORI Shin, 共立女子大学文芸学部教授)

日本では2018年に高校の学習指導要領が改訂された。「主体的・対話的で深い学び」が目標となり、新しい教科の設置や科目の統廃合などが行われ (https://www.mext.go.jp/a_menu/shotou/new-cs/1384661.htm)、2022年度から施行されている。

高等学校の各学科に共通する教科・科目等及び標準単位数

〔改訂〕				〔現行〕			
教科	科目	標準単位数	必修科目	教科	科目	標準単位数	必修科目
地理 歴史	地理総合	2	○	地理 歴史	世界史A	2	○
	地理探究	3	○		世界史B	4	
	歴史総合	2			日本史A	2	
	日本史探究	3			日本史B	4	
	世界史探究	3			地理A	2	
				地理B	4		

地理歴史科では、地理A・地理B・世界史A・世界史B・日本史A・日本史Bの6科目から、地理総合・地理探究・歴史総合・世界史探究・日本史探究の5科目となった。地理総合は地理Aをベースとした科目、歴史総合は世界史Aと日本史Aを統合した科目で、ともに新設科目かつ必修科目である。地理探究は地理Bをベースとした科目、世界史探究は世界史Bをベースとした科目、日本史探究は日本史Bをベースとした科目で、いずれも選択科目である。高校生は、1年次、あるいは2年次で地理総合と歴史総合を学び、2年次か3年次で地理探究、世界史探究、日本史探究のなかから1ないし2科目を学ぶことになると思われる。

この学習指導要領では、歴史総合の目標を、近現代史における「世界とその中の日本」を広く相互的な視野から捉えながら、①歴史を理解する力、②歴史に関する様々な情報を適切に調べてまとめる力、③歴史事象の意味や特色について多面的・多角的に考察して説明・議論できる力、④近現代史の事象についてよりよい社会の実現のために探究する態度、⑤日本国民としての自覚・自国の歴史への愛情・他国や他国の文化を尊重することの大切さの自覚—などの資質・能力を育成することと定めている。歴史を暗記科目から脱却させて理解力や探究力を育成しようという意図は画期的である。その一方で、⑤日本国民としての自覚や愛国心の育成を目標としている点

は、当時の政権の歴史認識と無関係ではない。

歴史総合は、日本史と世界史を統合的に学習する歴史科目で、18世紀以降の近現代史を学ぶ科目である。18世紀以降の近現代史を学ぶことは日本史A・世界史Aと同様であるが、実際の日本史A教科書では古代から日本史の流れを概観しているものもあり、教科書によって様々であった。この背景には、前近代史を全く無視しては近現代史を学ぶことはできない(できるはずがない)という教科書執筆者や教科書会社の意思があった。

本報告では、今年度始まったばかりの日本史探究・世界史探究はひとまず置き、2年目を迎えている歴史総合について検討したい。歴史総合は18世紀以降を対象とするものであるから、本来は豊臣秀吉の朝鮮侵略戦争や朝鮮通信使は対象外ともいえるが、実際はこれらの事項を取り上げている教科書は多い。必修科目として高校生全員が学ぶ科目であり、これ以外に歴史系科目を学ばない高校生も出てくることも十分ありうるので、その内容を注視する必要がある。

では日本中世と近世のうち、歴史総合の教科書記述のうち、おおむね17世紀までの朝鮮史や日朝関係に関する記述を抜き出した一覧表を作成した。そこで記載されているのは、李成桂による朝鮮王朝の建国(1392年)、室町~江戸時代の日朝貿易、豊臣秀吉による朝鮮侵略戦争(1592~98年)、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についてである。以下、順に検討しよう。

歴史総合・内容比較一覧表

出版社・教科書名	採択率 (%)	巻頭(歴史の扉など)		本文(18世紀のアジアなど)		
		本文	図版	本文	注	図版
1 山川出版・私たちの歴史	7.6	四つの窓口				江戸時代の対外交易図
2 山川出版・現代の歴史総合	10.7	日朝貿易	朝鮮通信使来朝図	朝鮮王朝成立、豊臣秀吉の朝鮮侵略、通信使		朝鮮通信使絵巻、東洋通信使絵巻図
3 山川出版・歴史総合	15.2		(東アジア地図)	文禄・慶長の役、	通信使	(日本の対外関係)
4 実教出版・詳説歴史総合	10.5		(16C世界地図)	釜山の倭館、朝鮮通信使		四つの口、朝鮮通信使
5 実教出版・歴史総合	10.2	継承書(教訓)	崔承喜写真・インタビュー記事	豊臣秀吉の朝鮮侵略、朝鮮通信使、四つの口	豊臣秀吉の朝鮮侵略(内訳)、朝鮮の中継文明継承者意識	土浦御祭礼の図、三春強子人形、朝鮮通信使経路、四つの口、
6 清水書院・歴史総合	2.2		李相花と小平宗純、横浜地解放を喜ぶソウル市民	通信使、朝鮮の小中華意識、		朝鮮通信使の扉面、イギリス船長日記
7 第一学習社・新歴史総合	6.3	朝鮮建国、朝鮮侵略、四つの口、		商談、通信使、朝鮮の経済と社会		(18Cアジア地図)
8 第一学習社・歴史総合	5.1	朝鮮建国、朝鮮侵略、四つの口、				
9 帝國書院・歴史総合	16.9	朝鮮建国、ハングル	仏園寺、豊臣秀吉の朝鮮侵略(年表)	朝鮮通信使、釜山の倭館		周辺諸国とのつながり図
10 東京書籍・詳説歴史総合	2.0		海印寺の大観経、ハングル、朝鮮通信使待客図、豊臣政権の朝鮮侵略(年表)	四つの口		釜山の倭館、日本の貿易関係地図
11 東京書籍・新選歴史総合	12.0		韓屋	四つの口		日本の貿易関係地図
12 明成社・私たちの歴史総合	0.6			四つの口、朝鮮との貿易		朝鮮通信使来朝図、四つの口図

・朝鮮王朝の建国 (1392年)

4種 (№2,7,8,9) の教科書に記載されている。このうち№7,8,9は巻頭の「歴史の扉」などにあるのみで、本文 (水色網掛け) にあるのは№2のみである。これでは朝鮮王朝に対する理解は深まらないであろう。

・日朝貿易 (室町～江戸時代)

四つの口 (近世日本の対外関係窓口、対馬・長崎・薩摩・松前) を含めれば、全ての教科書に記載されている。ただし四つの口の概念図などが記載されるのみのものも多い。

・豊臣秀吉の朝鮮侵略戦争 (1592～98年)

多くの教科書に掲載されているが、記載のない教科書5種 (№1,4,6,11,12) もある。また記載されているものでも、巻頭の「歴史の扉」などにのみのももある。最も詳しい教科書 (№5) は、本文でその名称をあげ、さらに註で詳しくその内容を述べているのは注目される。また、同じ出版社でも実教出版 (№4,5) や東京書籍 (№10,11) では、その取り上げ方は全く異なっている。

・朝鮮通信使 (江戸時代)

ほとんどの教科書に記載されているが、記載のない教科書3種 (№1,8,11) の他、図版等が掲載されているだけの教科書2種 (№10,12) もある。その一方で、本文で朝鮮通信使に触れてなおかつ図版等も掲載している教科書4種 (№2,4,5,6.)、関連して釜山の倭館に触れた教科書3種 (№4,9,10)、ハンゲル (№9,10)、明清交替によって朝鮮王朝に芽生えた小中華意識 (№5,6) もある。今回検討した項目のなかでは、最も掲載率が高く、その取り上げ方も濃密である。

・その他

その他に1種のみに記載されているもの等を列挙すると、崔承喜 (№5) 李相花と小平奈緒 (№6)、両班 (№7)、仏国寺 (№9)、大蔵経 (№10)、韓服 (№11) がある。これらはそれぞれの教科書執筆者や出版社の意向が強く反映されたものであろう。

最も採択率が高い (16.9%) 帝国書院・歴史総合 (№9) は、仏国寺やハンゲルにも触れている。記載内容が豊富である。また最も多くの情報を記載した教科書は、実教出版・歴史総合 (№5) である。崔承喜や朝鮮王朝の小中華意識、朝鮮通信使の

経路、朝鮮通信に関する独自の画像（土浦御祭礼之図、三春張子人形）を掲載している。

歴史総合は巻頭に「アジアの歴史」等を記載するものもあるが、その部分は中国を中心になっている教科書が大半である。全体的に朝鮮史に関する記載は少ない。豊臣秀吉の朝鮮侵略戦争や朝鮮通信使について記載のない教科書があるほどである。それらは簡易版とでもいうべき教科書で、17世紀までの歴史にほとんど触れていないものではあるが、前近代の日朝関係を軽視している。そのことが近現代の日朝関係の記述にどのように影響しているか、今後の検討課題である。

歴史総合12種の教科書の採択率は分散しており、日本史Bや日本史探究ほど特定の教科書に集中はしていない。またこれも日本史Bや日本史探究とは異なり、山川出版社の採択率が年々減少する傾向がある。そのため今後とも各教科書の記述に注視する必要がある。

		
No9帝国書院・歴史総合	No5実教出版・歴史総合	No3山川出版・歴史総合

베트남 역사교과서의 동아시아 서술

쯔엉 투이 중(Truong Thuy Dung)교수
(베트남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베트남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동아시아 서술

트롱 투이 둥 (Truong, Thuy Dung)(베트남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머리말

지난 10년간 베트남에서 교과서, 특히 역사 교과서 편찬이 큰 화두였다.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해 역사교육이 취해야 하는 입장과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교과서에서 어떠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역사적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과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편찬해야 하는가?’ 등이 논의되었다. 교과서 편찬을 둘러싼 논쟁은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들도 경험하고 있는 문제다. 교과서, 특히 역사 교과서는 여러 학문과 분야에서 발견된 사실을 취합한 내용을 담기 때문에 학계와 대중으로부터 수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¹⁾

기존 역사 교과서에서 새 역사 교과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의 변화 등 베트남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편찬방식의 변화를 보다 면밀히 평가할 수 있었다. 이것이 본 발표문의 핵심 주제다.

1. 베트남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개관

베트남은 2023-2024학년도까지 두 가지 교과서를 함께 사용한다. 현재 베트남 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10학년 및 11학년 역사 교과서는 새로 수립된 일반교육과정 (General Education Curriculum)을 바탕으로 제작된 교과서다. 이 교육과정은 교육훈련부 장관이 발표한 2018년 12월 26일자 시행규칙 제32/2018/TT-BGDĐT호에 따라 발표되었다. 신규 교육과정에 따른 12학년 역사 교과서는 현재 제작 및 평가 단계에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12학년 (고등학교) 학생들은 2023-2024학년도에는 2006년 일반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기존 교과서를 사용하고, 2024-2025학년도에 새 역사 교과서로 교체할 예정이다.

1) Trần Anh Đức, “Những vấn đề toàn cầu của sách giáo khoa Lịch sử trong kỷ nguyên số hoá” [디지털 시대의 역사 교과서라는 전지구적 문제]. <https://spiderum.com/bai-dang/NHUNG-VAN-DE-TOAN-CAU-CUA-SACH-GIAO-KHOA-LICH-SU-TRONG-KI-NGUYEN-SO-HOA-1014>, 2021년 5월 28일 게시.

2018년에 시행규칙 제32/2018/TT-BGDĐT호에 따라 새로운 일반교육과정²⁾이 선포된 당시 역사는 선택과목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었다. 즉, 베트남의 모든 고등학생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진로가 역사와 관련이 있는 학생들만 역사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었다. 필수과목은 문학, 외국어 1, 체육, 국방 및 안보교육, 체험활동, 진로지향과 지역교육 등 7개 과목에 불과했다.²⁾

그러나 2018년에 발표된 신규 일반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선택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많은 교육전문가와 대중의 반대에 부딪혔다. 베트남 국회 문화교육위원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³⁾ 국회는 논의 끝에 제15차 국회에서 세 번째 결의안을 통해 유권자, 시민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고등학교 역사과목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전통교육 및 학생 인격함양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요청했다.⁴⁾

국회의 의견을 접수한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기존에 발표한 시행규칙 제32/2018/TT-BGDĐT호를 보완하고자 2022년 8월 3일 시행규칙 제13/2022/TT-BGDĐT호를 발표했다.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라 역사가 베트남 고등학교의 필수과목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새 교과서와 기존 교과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 공통점

- + 구성: 두 교과서 모두 기초학습 부분과 심화학습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학습 부분은 모든 고등학생이 사용하고, 심화학습 부분은 진로지향에 따라 사회과학 중 역사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 + 내용: 두 교과서 모두 선사시대에서 근대까지의 세계사와 베트남 역사에 대해 다룬다.

2) Chương trình giáo dục phổ thông - Chương trình tổng thể [일반교육과정, 종합교육과정] p.12. 2018년 12월 26일 교육훈련부 장관이 시행규칙 제 32/2018/TT-GDĐT 호와 함께 발표.

3) Thành Chung, "Ủy ban Văn hoá, giáo dục của Quốc hội: Đề nghị lịch sử là môn học bắt buộc" [국회 문화교육위원회: 역사과목의 필수과목 지정 권고]. <https://tuoitre.vn/uy-ban-van-hoa-giao-duc-cua-quoc-hoi-de-nghi-lich-su-la-mon-hoc-bat-buoc-20220522231436393.htm>, 2022년 5월 23일 게시.

4) Thành Chung, "Quốc hội yêu cầu môn Lịch sử có cả phần bắt buộc và lựa chọn" [국회, 역사과목에 필수요소와 선택요소 모두 포함시킬 것 요청]. <https://tuoitre.vn/quoc-hoi-yeu-cau-mon-lich-su-co-ca-phan-bat-buoc-va-lua-chon-20220627144211657.htm>, 2022년 6월 17일 게시.

• 차이점

- + 학습방식: 새 교과서도 기초학습 부분과 심화학습 부분으로 나뉘어 있지만, 학습방식에 차이가 있다. 기초학습 부분이 여러 주제로 구분되어 있고, 모든 학생은 각자 선택한 과정이나 진로지향과 무관하게 기초학습 부분에 포함된 모든 주제를 학습하게 되어 있다.
- + 지식의 양: 새 역사 교과서에서는 지식의 양을 줄이고 학생들의 자기학습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단원에 포함되는 지식의 양을 줄였다.
- + 내용: 기존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가장 오래된 사건부터 시작하여 최근의 사건으로 나아가는 연대기적 방식을 취했다. 새 교과서는 선형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제별 또는 단면별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편집자가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담을 수 있다.
- + 제작자: 기존 교과서는 단일 출판사 (Vietnam Education Publishing House)를 통해 간행된 반면, 새 교과서의 경우 고등학교와 학생들이 여러 출판사가 제작한 교과서 중 하나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교과서 3종을 3개 출판사가 제작하고 있다. 「창의적 지평 (Creative Horizon)」시리즈는 베트남교육출판사 (Vietnam Education Publishing House)가, 「지식과 생활의 연결 (Connecting Knowledge with Life)」시리즈는 베트남교육출판사가 제작한다. 「카이트 세트 (Kite set)」는 베트남 교육출판투자합작사 (VEPIC, Vietnam Educational Equipment and Publishing Investment Company)가 하노이대학교 교육출판사 (Hanoi University of Education Publishing House), 후에대학교 교육출판사 (Hue University of Education Publishing House), 호치민시립대학교 교육출판사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Education Publishing House)와 협업하여 제작한다.

3종 모두 교육훈련부가 발표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며, 학교에 도입되기 전에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친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단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교과서를 제작하는 구조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방식이고, 최근 몇년간 베트남 교육에서 나타난 변화가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새 교과서가 최근에 도입되었고 10학년 및 11학년 교과서만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 교과서의 효과를 평가하려면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새 교과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세계은행, 유니세프,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덴마크 국제협력단 (DANIDA) 등 여러 국제기구의 교육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앤디 스마트 (Andy Smart) 박사는 “여러 국가와 함께 일해본 경험과 고등

학교 교과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심화적 연구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새 교과서가 배포되어 사용되면 (특히 역사나 언어와 같은 사회과학 과목의 교과서는) 복합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⁵⁾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교과서를 편찬하지 않을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비판적 의견을 동력으로 삼아 교과서를 개정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베트남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동북아 국가 서술

동북아 국가는 베트남 고등학교 교과서의 세계사 섹션에서 다루는 주제 중 하나다. 기존 교과서와 새 교과서 간에 동북아 국가에 대한 학습내용의 분배에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각 동북아 국가에 대해 교과서가 제공하는 지식의 양이 균일하지 않다. 베트남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동북아 국가 중 중국과 일본이 가장 많이 언급된다.

기존 교과서는 기초섹션에서 일본과 동북아 국가를 별도의 단원에서 다루거나 1개 이상의 섹션을 할애했다. 새 교과서에서는 역사와 관련한 진로를 선택한 일부 학생들만 학습하는 주제별 섹션에서만 일본과 기타 동북아 국가에 대해 언급한다.

일본과 중국에 대한 내용은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역사적 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다룰 수도 있고, 세계사 섹션의 다른 여러 부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1914-1918)과 제2차 세계대전 (1939-1945)에 대한 내용에서 등장하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체계와 냉전에 대한 내용에서 등장한다.

신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편찬되는 12학년 역사 교과서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발표문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일본, 중국 및 기타 동북아 국가의 역사에 대한 내용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및 군사적으로 베트남 역사와 상호작용한 과정의 맥락에서 서술된다.

· 일본

기존 교과서에서는 일본사에 대한 내용을 ‘일본의 발전과정’과 ‘일본과 베트남, 동북아 지역 및 세계와의 관계’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 19세기 초부터 2000년까지의 일본사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5) Phương Chi, “Góc nhìn chuyên gia về sách giáo khoa Việt Nam” [베트남 교과서에 대한 전문가 의견], Tạp chí Giáo dục [교육학술지], <https://tapchigiaoduc.moet.gov.vn/vi/news/tin-tuc-su-kien/goc-nhin-cua-chuyen-gia-quoc-t-e-ve-sach-giao-khoa-viet-nam-612.html>, 2020년 11월 9일 게시.

• 한국

한국은 기존 12학년 역사 교과서의 '9단원: 냉전 및 탈냉전 시기의 국제관계'에서 6·25전쟁(1950-1953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언급된다. 관련 내용에 할애된 분량은 적다. 미국과 소련의 남한 및 북한 통치와 38선의 분계선 설정 등 6·25전쟁으로 이어진 주요 사건들 중 일부만 다루는 정도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각각 1948년과 1949년에 수립되었고, 양국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단원은 6·25전쟁이 냉전의 '산물'이며 남북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대립한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마무리된다.

• 동북아 국가 소개

12학년 역사 교과서의 3단원에 동북아 국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단원의 첫 번째 섹션은 면적, 인구, 천연자원, 정치적 특성 등 동북아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동북아의 총 면적이 1,020만 평방 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14억 7천만 명(2000년 기준)이며,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을 제외한 모든 동북아 국가들이 식민지배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냉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한반도의 분단, 남한과 북한 정부의 수립, 6·25전쟁도 이 부분에서 다룬다.

이 단원에서는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취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20세기 후반에 동북아 지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했고 삶의 질이 72위 경제대국이 되었고, 1980-1990년대와 21세기 초에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큰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단원의 후반부에서는 중국과 1949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이 이룬 발전에 모든 분량을 할애했다.

베트남 고등학교 전 학년(10, 11 및 12학년) 역사 교과서에서 동북아 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가르치지만, 국가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동북아 국가는 일본과 중국이다.

3. 베트남 역사 교과서의 중국 관련 서술

기존 역사 교과서와 새 역사 교과서 모두 세계사 섹션에서 중국사에 대한 내용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다. 여기에는 아시아 지역사와 세계사의 과정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과 입지, 아시아 국가들과 세계에 대해 중국이 가지는 영향력,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과정

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유지해온 긴밀한 관계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베트남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중국 관련 서술은 '중국사'와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한다.

• 중국사

중국사 서술에 있어서 기존 교과서와 새 교과서가 보이는 차이를 파악하기란 어렵지 않다. 특히 고대 및 중세 중국사를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기존 교과서는 중국 봉건왕조를 순서대로 나열하며 연대기적 방식으로 중국사를 다룸으로써 진, 한, 당, 명, 청 등 주요 왕조에 초점을 두고, 이 시기에 중국이 이룬 문화적 성취도 함께 언급한다.

새 교과서의 경우 중국이 발전과정에서 거둔 성취를 바탕으로 주로 문명사적 관점에서 중국의 고대사와 중세사를 다룬다. 문자 (상나라 극초기에 발명), 이념과 종교 (유교, 도교, 불교), 역사 (사마천의 「사기」), 문학 (고전, 당시, 「삼국지」, 「홍루몽」, 「서유기」), 건축 (만리장성, 자금성), 인쇄술, 제지, 화약, 나침반 등 과학기술의 발명 등이 언급된다.

기존 11학년 교과서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해당하는 중국사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 단원에서는 아편전쟁 (1840-1842)에서 패배하고 난징조약을 체결한 후의 중국에 대해 주로 다룬다. 독립적 봉건국가였던 중국은 난징조약을 기점으로 반봉건-식민사회로 전화되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미국과 유럽은 점진적으로 중국을 침략하고 분열시켰다. 독일은 산둥지역을, 영국은 양쯔강 삼각주 (장강)를, 프랑스는 윈난, 광시와 광둥을, 러시아와 일본은 동북지역을 점령했다.

19세기 중반부터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과 만주왕조의 타협적 태도에 당면한 중국인들은 식민주의와 봉건제에 맞서 싸우기 위한 반란을 이어갔다. 홍수전이 이끈 태평천국의 난 (1851-1864), 랑치차오와 캉유웨이 가 이끈 무술변법 (1898), 의화단 운동 (1899-1901), 쑨원이 이끈 신해혁명 (1911)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신해혁명에서의 승리가 쑨원을 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의 건국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전제군주제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봉건계급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기 때문에 봉건세력과 군이 권력을 장악했다.

한편, 2018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11학년 신규 교과서는 중국사의 또 다른 이슈인 사회주의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 이 부분에서 3종 신규 교과서 시리즈 (「지식과 생활의 연결」, 「창의적 지평」, 「카이트」)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지식과 생활의 연결」과 「카이트」 시리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사회주의를 구축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창의적 지평」 시리즈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만 다룬다. 그러나 세 교과서 모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그리고 1978년 12월 개혁을 단행한 이래 기아 퇴치와 빈곤 감소를 통해 경제, 과학기술, 문화 및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등 중국이 경제와 사회주의에서 거둔 눈부신 성과를 강조한다. 새로 편찬된 교과서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의 업데이트

된 통계를 반영한 부분이 많다.

• 중국과 베트남 역사의 상호작용

중국사에 대해 별도로 다루는 부분 외에 동남아 역사, 특히 베트남 역사에 대한 섹션의 다른 내용에서도 중국이 등장한다. 교과서 3종 모두 중국의 성과에 대해 서술하면서 중국 문명이 한국, 일본, 베트남과 같은 이웃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한다.

베트남 역사 섹션의 두 부분에서 중국이 등장한다. 첫 번째 부분은 중국의 문화적 성취를 수용하며 영향을 받은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부분은 베트남 민중이 중국의 봉건왕조를 상대로 벌인 저항전쟁, 봉기, 해방전쟁과 현대사에서 두 국가 사이에 벌어진 갈등과 분쟁을 통해 군사적 역사에 초점을 둔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글, 문학, 종교, 봉건국의 모델, 법률 등의 분야에서 고대에 중국 문명이 대월 문명이 미친 막대한 영향과 중세에 중국의 봉건제가 베트남 왕조에 미친 영향을 엿볼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지하에서 베트남인들이 일으킨 봉기에 대한 내용과 베트남 봉건국의 해방과 자주성의 보호를 위해 투쟁한 과정에 대한 서술에서 중국이 등장한다. 한나라에 대한 하이바쯔 봉기 (40), 응오 왕조에 대한 바찌에우 봉기 (248), 양나라와 수나라에 대한 리비 봉기 (542-544), 당나라에 대한 퉁흥 봉기 (766-791), 남한군에 대한 저항전쟁 (938), 송군에 대한 저항전쟁 (981), 송군에 대한 저항전쟁 (1975-1977), 몽골-원군에 대한 저항전쟁 (1258, 1285, 1288), 명군에 대한 저항전쟁 (1406-1407) 등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반란과 저항의 사례다.

중월 국경전쟁 (1979)은 「창의적 지평」의 '20단원: 베트남의 위대한 민족통일'에서 언급된다. 그러나 이 전쟁이 11학년 신규 역사 교과서의 핵심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2018 교과과정에 따라 중월 국경전쟁은 12학년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창의적 지평」 교과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월 국경전쟁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는지 논하기는 어렵다.

2018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편찬되는 교과서에는 중국이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동해의 영토분쟁 및 베트남과 동해 문제가 새로이 포함되었다. 새 교과서 3종 모두 베트남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동해에서 주권을 확립한 과정과 동해에 대한 주권문제 해결에 대한 베트남의 방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과서 3종 모두 고등학생의 인지수준에 적합한 양의 지식으로 단원을 구성했으며,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동해에 대한 단원에도 교과서가 새로 편찬되면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으므로 고등학생들이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들의 복잡한 상

호작용과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심화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결론

베트남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기존 교과서와 새 교과서에 담긴 지식의 양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보면 학습해야 하는 지식의 규모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인지능력과 독립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베트남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과 요구조건에 따라 역사 교과서가 각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교과서와 새 교과서 모두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분량이나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 국가별로 차이가 컸다. 중국과 일본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이는 두 국가가 동북아 지역, 전 세계, 그리고 베트남에서 가지는 영향력과 입지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새 교과서는 현대에 나타난 중국의 역사문제 대신 근대에 발생한 중국의 역사문제에 대해 다룬다. 이 또한 세계현대사의 역사적 과정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들이 지니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다.

새 교과서는 중립적 언어를 사용하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하며, 최신 데이터와 역사문제를 반영한다. 1979년 중월 국경전쟁이나 동해를 둘러싼 영토분쟁과 같이 과거에 민감한 문제로 간주되었던 사건들이 새 교과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존중과 함께 역사적 사건에 관한 베트남 청소년들의 인지능력에 대한 교과서 집필진의 신뢰를 보여준다. 학생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제관계의 변화를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엿보인다.

새 역사 교과서는 올바른 방향성을 취했다. 역사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참고자료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 다른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관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역사는 특정 집단이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이 들려주는 수많은 이야기의 집합체다.

더불어 교과서 편찬의 결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오류와 오타자가 있을 수 있고, 지식과 자료의 양이 학생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교과서 제작환경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새 교과서의 단점에 대한 피드백이 제기될 것이다. 학습/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교과서에 담긴 지식에만 의존하여 역사문제에 대한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지양하고 교과서를 참조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Description of East Asia in a Vietnamese History Textbooks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Truong, Thuy Dung
Institute of History,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troduction

The issue of compiling textbooks in general, and History textbooks in particular, has been topical in Vietnam in the last decade. The discussions generally revolved around topics such as the position and role of History for high school students, from which to compile a suitable set of textbooks for them. Which events need to be mentioned thoroughly in the textbook content? How should textbook content be compiled to ensure respect for historical objectivity? In fact, debates about textbook compilation are not only an issue in Vietnam but in many other countries. Textbooks, especially History textbooks, are a collection of discoveries from many disciplines and fields and must receive countless criticism mechanisms from both academic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¹⁾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between the old and new History textbooks, we have the opportunity to better evaluate the changes in the compilation of textbooks for high school students in Vietnam, including the changes in the transmission of content about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Vietnamese History textbooks. This is also the primary content we will delve into in this article.

1) Trần Anh Đức, “Những vấn đề toàn cầu của sách giáo khoa Lịch sử trong kỷ nguyên số hoá” [Global Issues of History Textbooks in the Digital Era], available at <https://spiderum.com/bai-dang/NHUNG-VAN-DE-TOAN-CAU-CUA-SACH-GIAO-KHOA-LICH-SU-TRONG-KI-NGUYEN-SO-HOA-1014>, posted on May 28, 2021.

1. A General View on History Textbooks for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Until the 2023-2024 school year, Vietnam uses two sets of textbooks in parallel. The History textbooks for grades 10 and 11 published and put into use in high schools in Vietnam today are a set of books compiled based on the new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This curriculum is issued according to Circular No. 32/2018/TT-BGDĐT dated December 26, 2018,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raining. Meanwhile, the 12th-grade History textbook set of the new curriculum is in the process of being compiled and evaluated. Therefore, 12th-grade students at high schools in Vietnam in the 2023-2024 school year use the old textbooks, which are compiled based on the 2006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According to the schedule, the new 12th-grade History textbooks will replace the old textbooks in the 2024-2025 school year.

It should be noted that, when promulgating the new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in 2018, according to Circular No. 32/2018/TT-BGDĐT, the subject of History was classified as a group of selected subjects. This means that not all high school students in Vietnam study History in high school. Only students with a career orientation related to History subject at higher levels will choose this subject. Accordingly, students only have seven compulsory subjects: Literature; Foreign language 1; Physical education;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education; Experiential activities, career orientation, and Local education.²⁾

However,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2018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the matter of History becoming an optional subject has encountered many objections from many educational experts as well as the majority of people. Receiving peoples opinions, during the 3rd Plenary Session of the Culture and Educa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the Committee proposed making History a compulsory subject.³⁾ After discussions, the

2) Chương trình giáo dục phổ thông – Chương trình tổng thể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Comprehensive Curriculum] p.12, issued together with the Circular No. 32/2018/TT-GDĐT, December 26, 2018 by Minister of Education and Training.

3) Thành Chung, “Ủy ban Văn hoá, giáo dục của Quốc hội: Đề nghị lịch sử là môn học bắt buộc” [National Assembly’s Culture and Education Committee: Recommend History as a Mandatory Subject],

National Assembly issued the 3rd Resolution at 15th National Assembly, which required studying the opinions of constituents, people, and National Assembly deputies and designing a History subject in high school education program that includes both compulsory and optional parts reasonably and scientifically, ensuring the highest efficiency in traditional education and personality development for students.⁴⁾

Receiving opinions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Vietnam issued Circular No. 13/2022/TT-BGDĐT on August 3, 2022, supplementing Circular 32/2018/TT-BGDĐT issued previously. With this new Circular, History officially becomes a mandatory subject for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So,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new and old textbooks?

Similarities

- + Format: Both sets of books have a basic part and an advanced part for two groups of students. The basic set is for all high school students; on the contrary, the advanced part is for career-oriented students in the social sciences with History subject.
- + Content: Both sets of books cover the content of World History and Vietnamese History from prehistoric times to modern times.

• Differences

- + Presenting: Although there are basic and advanced parts, the new book series is presented differently. In it, the basic part is divided into different topics. All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chosen modules or any career orientation, will study these historical topics.
- + Load of knowledge: with the orientation of reducing the amount of knowledge and improving students' self-study ability, new History textbooks tend to reduce the load of knowledge in every lesson.

available at

<https://tuoitre.vn/uy-ban-van-hoa-giao-duc-cua-quoc-hoi-de-nghi-lich-su-la-mon-hoc-bat-buoc-20220522231436393.htm>, posted on May 23, 2022.

4) Thành Chung, “Quốc hội yêu cầu môn Lịch sử có cả phần bắt buộc và lựa chọn” [Congress Requires History to Have Both Mandatory and Optional Sections], available at <https://tuoitre.vn/quoc-hoi-yeu-cau-mon-lich-su-co-ca-phan-bat-buoc-va-lua-chon-20220627144211657.htm>, posted on June 17, 2022.

- + Content: The old books are presented largely according to chronological principles, with the earliest occurring to current events. The new textbook series is presented by topic or cross-section instead of a linear presentation. Therefore, at the same time, the editor can design many different topics.
- + Regarding the producers: If the old textbook set had only one publisher, Vietnam Education Publishing House, then for the new curriculum textbook set, schools in Vietnam and high school students have more choices for textbooks. Currently, there are three publishers of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operating together with three different book series: The Creative Horizon series published by Vietnam Education Publishing House, the Connecting Knowledge with Life series published by Vietnam Education Publishing House, and the Kite set, which was cooperated to compile by Vietnam Educational Equipment and Publishing Investment Company (VEPIC) in collaboration with Hanoi University of Education Publishing House, Hue University of Education Publishing House, and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Education Publishing House.

All three sets of books are based on the curriculum framework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are scrutinized through many stages before being introduced into schools.

The existence of one curriculum and many sets of textbooks is not a new trend in the world, but it is still relatively new to Vietnam, demonstrating the update of Vietnamese education in recent years. Due to the fact that the new textbooks were put into use shortly and only the textbooks for grades 10 and 11 have been completed, we need more time to be abl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textbooks. Criticism about the new textbooks is inevitable. As Dr. Andy Smart, education expert consultant for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UNICEF, USAID, and DANIDA, commented: "According to experience working with many countries and in-depth research on educational high schools curriculum and their textbooks, I find that when a new set of textbooks is put into widespread use, it is inevitable that there will be complex feedback, especially with social sciences, like history or language" ⁵⁾. However, that should not and cannot be

5) Phương Chi, "Góc nhìn chuyên gia về sách giáo khoa Việt Nam" [Expert Views on Vietnamese Textbooks], *Tap chí Giáo dục* [Journal of Education] available at

a reason for us not to compile new textbooks. Critical opinions should become the driving force so that every time we reform textbooks, we can have better sets of "reference materials" for students.

2. Description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History Textbooks for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one of the topics mentioned in the World History section, designed for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teaching content about these countries in old and new textbooks; as such, the load of knowledge for each Northeast Asian country is not the same.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China and Japan are primarily mentioned in History teaching content for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While the old textbooks devoted a separate lesson or at least a section to Japan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general, in the Basic section, in the new textbooks, Japan and other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only mentioned in the thematic section for some students choosing careers related to History.

Content about Japan and China can be presented separately regarding the historical process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and can also be integrated into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History section. For example, Japan appears in content about the First World War (1914-1918) and the Second World War (1939-1945), and China appears in content about the system of socialist countries and the Cold War.

Because the 12th-grade History textbook compiled based on the new high school curriculum has not yet been officially released, we do not mention this topic in this research article.

The content of the history of Japan, China, and other Northeast Asian countries is also shown in the process of interacting with Vietnamese history in many different aspects: politically, economically, culturally, socially, and military.

- **Japan**

The content of Japanese history in the old textbooks, as mentioned, is shown from two perspectiv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Japan and Japan's relationship with Vietnam, the region, and the world. In the old textbook series, Japanese history is presented in detail from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to the year 2000.

- **Korea**

Korea is mentioned through the content of the Korean War (1950-1953) in Lesson 9: *International Relations*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period of the old 12th grade History textbook. The amount of knowledge for this content is somewhat humble; it only mentions some of the main events that led to this war,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occupying North and South Korea and taking the 38th parallel as the boundary line. The two government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re established in 1948 and 1949, respectively.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between the two sides on July 27, 1953. The lesson concludes that the Korean War was a "product" of the Cold War and the first direct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sides.

- **General introduction to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old 12th-grade History textbook also devoted space to presenting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Lesson 3. The first section of the lesson is a general introduction to Northeast Asia, such as acreage, population, natural resources,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the total area of Northeast Asia is 10.2 million square kilometers, with about 1.47 billion people (in the year 2000). Before World War II, Northeast Asian countries, except Japan, were all enslaved by colonialism.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the establishment of two governments in the North and South, and the Korean War are also reviewed in this content.

The lesson also mentions the economic achievement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Northeast Asia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and people's lives improved markedly. Of the four Asian economic "dragons," there are three in Northeast Asia: South Korea, Hong Kong, and Taiwan. Japan has become the second-largest economy in the world. During the 1980s and 1990s and early years of the twenty-first century, China's economy had the fastest and highest growth rate globally.

However, the second part of the lesson is devoted entirely to presenting China and its development from 1949 to 2000.

Thus, it can be seen that the content of Northeast Asian history is mentioned and taught in History textbooks for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in all three grades 10, 11, and 12. However, the level is differentiated due to each country. The two Northeast Asian countries with the most mention are Japan and China.

2. Description of China in Vietnamese History Textbooks

Content about Chinese history occupies ample space in the World History section of both new and old history textbooks. This is rooted in many different reasons, such as China's role and position in the regional and world-historical process, China's influence on countries in the region and the world, an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Vietnam in the historical process from ancient times to current.

It can be seen that when describing China in History textbooks for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we can study from two aspects: Chinese History and China's relationship with Vietnam.

- **Chinese History**

In terms of Chinese history, it is no challenge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presentation of the new series textbooks and the old series textbooks, especially the history of this country in the ancient and medieval periods. The old textbooks we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chronological method, that is, presented sequentially through the feudal dynasties of China, emphasizing prominent dynasties, such as the Qin and Han dynasties, the Tang Dynasty, and the Ming and Qing dynasties. In addition, China's cultural achievements during that period are also mentioned.

In the new textbooks, China's ancient and medieval history is studied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izational history with the typical achievements that this country achieved in its development process. For example, writing words (writing words were created very early in the Shang Dynasty), ideology and religion (Confucianism, Taoism, Buddhism); History (History – Sima Qian); Literature (The Classics, Tang Poetry,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Dream of the Red Chamber, Journey to the West); Architecture (Great Wall, Forbidden City); Scientific and technical inventions such as printing technique, paper making, gunpowder, and the compass.

Another period in Chinese history introduced in the old 11th-grade textbook is China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main content of this lesson is about China after its defeat in the Opium War (1840-1842) and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Nanjing, which opened the process of transforming China from an independent feudal country to a colonized, semi-feudal country. European and American imperialist countries gradually invaded and divided China: Germany occupied the Shandong region; Britain occupied the Yangtze River Delta (Changjiang); France occupied Yunnan, Guangxi, and Guangdong; Russia and Japan occupied the Northeast.

Faced with the invasion of imperialist countries and the compromising attitude of the Manchu Court, since the mid-nineteenth century, the Chinese people have continuously rebelled to fight against colonialism and feudalism: the Taiping Rebellion led by Hong Xiu Quan (1851-1864); The Wuxu Reform of Liang Qichao and Kang Youwei (1898); Yihetuan Movement (1899-1901); The Xinhai Revolution was led by Sun Yat-sen (1911). The initial victory of the Xinhai Revolution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with Sun Yat-sen as President, ending China's absolute monarchy. However, because the feudal class was not completely eliminated, feudal and military forces took power in China.

Meanwhile, the new 11th-grade History textbook, based on the 2018 high school curriculum, focuses on another issue in Chinese history, which is the development of socialism in this country. Regarding this content,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book series: Connecting Knowledge to Life, Creative Horizons, and Kite. While the two series, Connecting Knowledge to Life and the Kite, show the process of building socialism from the period after World War II until now, the Creative Horizon series limits the content to the range of 1991 to the present. However, in

general, all three books emphasize the main contents of building socialism in China, such as the bir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and outstanding achievements in economics and socialism in China, for example, economics, science-technology, culture - education, solving social problems, i.e., hunger eradication and poverty reduc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reform began in December 1978. Because this is a newly compiled book, there are a lot of updated statistics until the year 2021.

• China in Its Interaction with Vietnamese History

Besides the specific content about Chinese history, China also appears in other content in the history sections of Southeast Asia and especially Vietnamese history. When presenting China's fundamental achievements, textbooks all affirm that Chinese Civilization has strongly influenced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Vietnam.

In the Vietnam History section, China emerged in two main aspects: Vietnam receiving and being influenced by China's cultural achievements, and the second part focusing on military history through liberation wars, uprisings, and resistance wars of the Vietnamese people against the Chinese feudal dynasties, and the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contemporary history.

In the first aspect, we can see the strong influences of Chinese civilization on Dai Viet Civilization in ancient times and the influence of Chinese feudalism on Vietnamese dynasties in the medieval period. For example, writing, literature, religion, feudal state models, and codes.

In the second aspect, China appears through the content of the uprisings of the Vietnamese people under Chinese rule and the process of fighting for liberation and protecting the independence of the Vietnamese feudal states; some prominent uprisings and resistance wars are Hai Ba Trung Uprising against the Han Dynasty (40), Ba Trieu Uprising against the Ngo Dynasty (248); Ly Bi Uprising against the Liang and Sui Dynasties (542-544), Phung Hung Uprising against the Tang Dynasty (766-791), Resistance War against the Southern Han army (938), Resistance War against the Song army (981), Resistance War against the Song army (1075-1077), Resistance War against the Mongol-Yuan army (1258, 1285, 1288), Resistance War against the Ming army (1406-1407).

The event of the Vietnamese-Chinese Border War (1979) is mentioned in Lesson 20: Vietnam's Great National Unity of the set *Creative Horizons*; however, because this is not the main content for the new 11th-grade History textbook, subsequently, it has not been detailed. As designed by the 2018 Curriculum, this content belongs to Grade 12. Because this book has not been released yet, we cannot discuss much about how the Vietnamese textbook describes this event.

The new content of the textbooks, based on the 2018 high school curriculum, is to include the issue of Vietnam and the East Sea and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Sea, in which China is a claimant. All three sets of books provide students with basic knowledge abou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Vietnam's sovereignty in the East Sea, both historically and legally, as well as Vietnam's policy in resolving sovereignty issues in the East Sea.

In general, all three sets of books study and design lessons with a moderate amount of knowledge, suitable for the cognitive level of high school students, and present historical events objectively. The lessons related to the East Sea also show the updating trend of the new textbooks, thus creating conditions for high school students to understand the complex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of countries regionally and globally. This provides a basis to debate or learn deeply about contemporary issues, thereby expressing their perspective on historical issues.

Conclusion

From reviews on the content of History textbooks for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we can draw the following initial conclusions:

The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knowledge in the old and new textbooks demonstrate the adaption of History textbooks according to the new orientation and requirements of Vietnamese education, which is to reduce the knowledge load for students and develop students' cognitive abilities and independent thinking.

Content allocation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varies significantly in terms of load and historical periods covered in both the old and new textbooks. China and Japan are mostly mentioned, among others. This may stem from the influence and

position of these countries in the region, the world, and Vietnam as well. Similarly, the space for contemporary Chinese historical issues replaced by modern historical issues in the new textbooks is also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influence and importance of historical events toward the historical process of contemporary global history.

The textbooks uses neutral language and present historical events objectively. The new textbooks were updated with recent data and historical issues. The events that were once considered sensitive, such as the 1979 Northern border war and disputes over sovereignty in the East Sea, are included in the new book series, not only shows that the textbooks respected historical truth but also reveal the confidence of textbook compilers in the cognitive ability of the young Vietnamese generation regarding historical events. From studying history to being able to understand and respond appropriately to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new History textbooks a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which defines textbook function accurately in that it is a reference to tell historical stories and needs to diversify perspectives by using other reference materials. History is not a single story told by a single group of people; it is a collection of countless stories from groups in a society.

In addition, we need to admit frankly the flaws in textbook compilation. It could be errors in knowledge, spelling errors, and inappropriate load of knowledge and materials to the student's level. With an open textbook environment like today, there will soon be feedback on undesirable things, if any, in new textbooks. It is important that students and teachers should only use textbooks as a reference channel instead of narrowing and depending on the knowledge that textbooks provide to learn about historical issues.

The Description of East Asia in a Vietnamese History Textbooks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Truong, Thuy Dung
Institute of History,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troduction

The issue of compiling textbooks in general, and History textbooks in particular, has been topical in Vietnam in the last decade. The discussions generally revolved around topics such as the position and role of History for high school students, from which to compile a suitable set of textbooks for them. Which events need to be mentioned thoroughly in the textbook content? How should textbook content be compiled to ensure respect for historical objectivity? In fact, debates about textbook compilation are not only an issue in Vietnam but in many other countries. Textbooks, especially History textbooks, are a collection of discoveries from many disciplines and fields and must receive countless criticism mechanisms from both academic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¹⁾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between the old and new History textbooks, we have the opportunity to better evaluate the changes in the compilation of textbooks for high school students in Vietnam, including the changes in the transmission of content about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Vietnamese History textbooks. This is also the primary content we will delve into in this article.

1. A General View on History Textbooks for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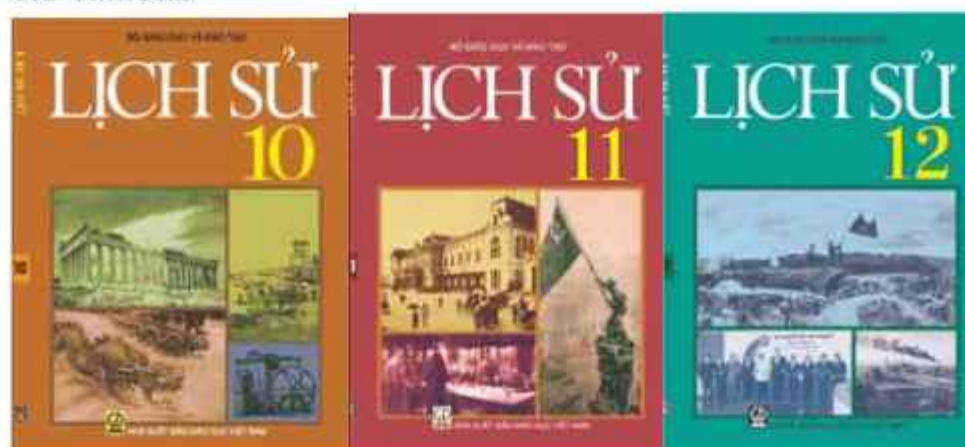
Until the 2023-2024 school year, Vietnam uses two sets of textbooks in parallel.

1) Trần Anh Đức, “Những vấn đề toàn cầu của sách giáo khoa Lịch sử trong kỷ nguyên số hoá” [Global Issues of History Textbooks in the Digital Era], available at <https://spidenum.com/bai-dang/NHUNG-VAN-DE-TOAN-CAU-CUA-SACH-GIAO-KHOA-LICH-SU-TRONG-KI-NGUYEN-SO-HOA-1014>, posted on May 28, 2021.

The History textbooks for grades 10 and 11 published and put into use in high schools in Vietnam today are a set of books compiled based on the new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This curriculum is issued according to Circular No. 32/2018/TT-BGDĐT dated December 26, 2018,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raining. Meanwhile, the 12th-grade History textbook set of the new curriculum is in the process of being compiled and evaluated. Therefore, 12th-grade students at high schools in Vietnam in the 2023-2024 school year use the old textbooks, which are compiled based on the 2006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According to the schedule, the new 12th-grade History textbooks will replace the old textbooks in the 2024-2025 school year.

Fig.1. Images of New and Old Textbooks

Old Textbooks



New Text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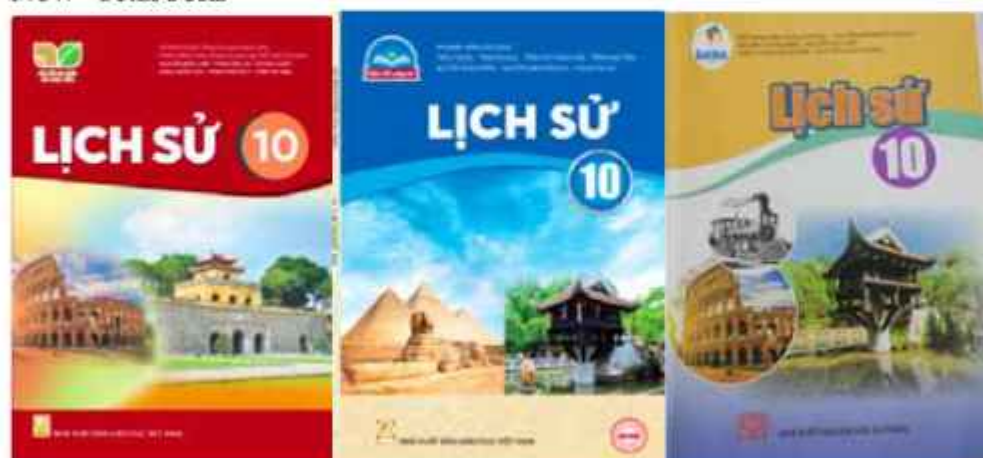


Fig.2. Schedule for Replacing Old by New Textbooks

Schedule	Grade
2020-2021	Grade 1
2021-2022	Grade 2 and Grade 6
2022-2023	Grade 3, Grade 7, and Grade 10
2023-2024	Grade 4, Grade 8, and Grade 11
2024-2025	Grade 5, Grade 9, and Grade 12

It should be noted that, when promulgating the new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in 2018, according to Circular No. 32/2018/TT-BGDĐT, the subject of History was classified as a group of selected subjects. This means that not all high school students in Vietnam study History in high school. Only students with a career orientation related to History subject at higher levels will choose this subject. Accordingly, students only have seven compulsory subjects: Literature; Foreign language 1; Physical education;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education; Experiential activities, career orientation, and Local education.²⁾

However,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2018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the matter of History becoming an optional subject has encountered many objections from many educational experts as well as the majority of people. Receiving peoples opinions, during the 3rd Plenary Session of the Culture and Educa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the Committee proposed making History a compulsory subject.³⁾ After discussions, the National Assembly issued the 3rd Resolution at 15th National Assembly, which required studying the opinions of constituents, people, and National Assembly deputies and designing a History subject in high school education program that includes both compulsory and optional parts reasonably and scientifically, ensuring the highest efficiency in traditional education and personality development for students.⁴⁾

2) Chương trình giáo dục phổ thông – Chương trình tổng thể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Comprehensive Curriculum] p.12, issued together with the Circular No. 32/2018/TT-GDDĐT, December 26, 2018 by Minister of Education and Training.

3) Thành Chung, “Ủy ban Văn hoá, giáo dục của Quốc hội: Đề nghị lịch sử là môn học bắt buộc” [National Assembly’s Culture and Education Committee: Recommend History as a Mandatory Subject], available at <https://tuoitre.vn/uy-ban-van-hoa-giao-duc-cua-quoc-hoi-de-nghi-lich-su-la-mon-hoc-bat-buoc-20220522231436393.htm>, posted on May 23, 2022.

4) Thành Chung, “Quốc hội yêu cầu môn Lịch sử có cả phần bắt buộc và lựa chọn” [Congress Requires History to Have Both Mandatory and Optional Sections], available at

Receiving opinions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Vietnam issued Circular No. 13/2022/TT-BGDĐT on August 3, 2022, supplementing Circular 32/2018/TT-BGDĐT issued previously. With this new Circular, History officially becomes a mandatory subject for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So,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new and old textbooks?

Similarities

- + Format: Both sets of books have a basic part and an advanced part for two groups of students. The basic set is for all high school students; on the contrary, the advanced part is for career-oriented students in the social sciences with History subject.
- + Content: Both sets of books cover the content of World History and Vietnamese History from prehistoric times to modern times.

• Differences

+ Presenting: Although there are basic and advanced parts, the new book series is presented differently. In it, the basic part is divided into different topics. All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chosen modules or any career orientation, will study these historical topics.

Grade 10: includes seven topics

Topic 1: History and Historiography

Topic 2: The Role of History

Topic 3: Ancient and Medieval World Civilizations

Topic 4: Industrial Revolutions in World History

Topic 5: Southeast Asian Civilizations in Ancient and Medieval Times

Topic 6: Civilizations in Vietnam (before 1858)

Topic 7: Vietnamese Ethnic Communities

Grade 11: includes six topics

Topic 1: Bourgeois Revolutions and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Topic 2: Socialism from 1917 to the Present

Topic 3: The Process of Gaining National Independence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Topic 4: National Protection and National Liberation Wars in Vietnamese History
(before the August Revolution of 1945)

Topic 5: Major Reforms in Vietnamese History (before 1858)

Topic 6: History of Protecting Vietnam's Sovereignty,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in the East Sea

In addition, students with a career orientation related to History, in addition to general history topics, will be able to choose from the following history topics (*chuyên đề*):

Grade 10: includes three topics

Topic 10.1. Aspects of History

Topic 10.2. Preserving and Promoting Cultural Heritage Values in Vietnam

Topic 10.3. Vietnamese States and Laws in History

Grade 11: includes three topics

Topic 11.1. History of Vietnamese Traditional Arts

Topic 11.2. War and Peace in the Twentieth Century

Topic 11.3. Notables in Vietnamese History

- + Load of knowledge: with the orientation of reducing the amount of knowledge and improving students' self-study ability, new History textbooks tend to reduce the load of knowledge in every lesson.
- + Content: The old books are presented largely according to chronological principles, with the earliest occurring to current events. The new textbook series is presented by topic or cross-section instead of a linear presentation. Therefore, at the same time, the editor can design many different topics.
- + Regarding the producers: If the old textbook set had only one publisher, Vietnam Education Publishing House, then for the new curriculum textbook set, schools in Vietnam and high school students have more choices for textbooks. Currently, there are three publishers of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operating together with three different book series: The Creative Horizon series published by Vietnam Education Publishing House, the Connecting Knowledge with Life series published by Vietnam Education Publishing House, and the Kite set, which was cooperated to compile by Vietnam Educational Equipment and Publishing Investment Company (VEPIC) in collaboration with Hanoi University of Education Publishing House, Hue University of Education Publishing House, and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Education Publishing House.

All three sets of books are based on the curriculum framework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are scrutinized through many stages before being introduced into schools.

The existence of one curriculum and many sets of textbooks is not a new trend in the world, but it is still relatively new to Vietnam, demonstrating the update of Vietnamese education in recent years. Due to the fact that the new textbooks were put into use shortly and only the textbooks for grades 10 and 11 have been completed, we need more time to be abl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textbooks. Criticism about the new textbooks is inevitable. As Dr. Andy Smart, education expert consultant for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UNICEF, USAID, and DANIDA, commented: "According to experience working with many countries and in-depth research on educational high schools curriculum and their textbooks, I find that when a new set of textbooks is put into widespread use, it is inevitable that there will be complex feedback, especially with social sciences, like history or language"⁵⁾. However, that should not and cannot be a reason for us not to compile new textbooks. Critical opinions should become the driving force so that every time we reform textbooks, we can have better sets of "reference materials" for students.

5) Phương Chi, "Góc nhìn chuyên gia về sách giáo khoa Việt Nam" [Expert Views on Vietnamese Textbooks], *Tap chí Giáo dục* [Journal of Education] available at <https://tapchigiaoduc.moet.gov.vn/vi/news/tin-tuc-su-kien/goc-nhin-cua-chuyen-gia-quo-te-ve-sach-giao-khoa-vi-et-nam-612.html>, posted on November 9, 2020.

1. Description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History Textbooks for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one of the topics mentioned in the World History section, designed for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teaching content about these countries in old and new textbooks; as such, the load of knowledge for each Northeast Asian country is not the same.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China and Japan are primarily mentioned in History teaching content for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While the old textbooks devoted a separate lesson or at least a section to Japan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general, in the Basic section, in the new textbooks, Japan and other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only mentioned in the thematic section for some students choosing careers related to History.

Content about Japan and China can be presented separately regarding the historical process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and can also be integrated into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History section. For example, Japan appears in content about the First World War (1914-1918) and the Second World War (1939-1945), and China appears in content about the system of socialist countries and the Cold War.

Grade 11, Old textbook

Lesson 4: Japan

Lesson 6: World War I (1914-1918)

Lesson 14: Japan between the Two World Wars (1918-1939)

Lesson 17: World War II (1939-1945)

Grade 12, Old textbook

Lesson 3: Northeast Asian Countries (covering content from 1945 to 2000)

Lesson 8: Japan (covering content from 1945 to 2000)

Lesson 9: International Relations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Period

New textbook

Topic 12.2. Japan: Historical Journey from 1945 to the Present⁶⁾

6)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History Subject*, issued together with Circular No. 13/2022/TT-BGDĐT dated August 3, 2022,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raining.

Because the 12th-grade History textbook compiled based on the new high school curriculum has not yet been officially released, we do not mention this topic in this research article.

The content of the history of Japan, China, and other Northeast Asian countries is also shown in the process of interacting with Vietnamese history in many different aspects: politically, economically, culturally, socially, and military.

• Japan

The content of Japanese history in the old textbooks, as mentioned, is shown from two perspectiv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Japan and Japan's relationship with Vietnam, the region, and the world.

In the old textbook series, Japanese history is presented in detail from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to the year 2000.

In the grade 11 textbook, the lesson Japan refers to the development period from the nineteenth century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main contents conveyed include:

- + The crisis of the Tokugawa shogunate in the mid-19th century and military pressure from Wester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demanded that Japan open its doors at first.
- + The movement to fight against the Shogun and the collapse of the Shogunate regime. In January 1868, Emperor Meiji ascended the throne and implemented a series of progressive reforms to bring Japan out of its status as a backward feudal country. This reform, known as the Meiji Restoration, occurred in all fields: politics, economics, military, and education.
- + In the last 30 years of the nineteenth century, especially after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 capitalism developed rapidly in Japan.
- + Economic development created conditions for Japan to implement a policy of invasion and expansion. Japan transitioned to the imperialist stage, associated with wars of aggression: Taiwan War (1874), Sino-Japanese War (1894-1895), and imperialist war: Russia-Japan War (1904-1905). Victories in these wars brought Japan many beneficial treaties of land and finance, accelerating

economic development.

- + Despite moving towards capitalism, Japan still maintained feudal land ownership. The aristocracy, especially the Samurai, still had great political advantage. They advocate building Japan with military power. That situation made the Japanese empire characterized by militaristic imperialism.

Also, in the 11th-grade History textbook, Lesson 14 presented the situation of Japan between the two world wars time (1918-1939) with the following main points:

- + Japan is the only country in Asia classified as a capitalist power.
- + After World War I, due to the decline in the economic capacity of European capitalist countries, Japan had the conditions to increase commodity production and exports, accelerating economic growth.
- + However, economic development in Japan lacks stability. In 1929, the collapse of the U.S. stock market led to a great depression of capitalism, in general, causing the Japanese economy to decline severely. The economic crisis leads to many political and social instability.
- + To overcome the crisis and solve difficulties caused by the lack of raw materials and commodity consumption markets, the Japanese authorities advocate militarizing the state apparatus, waging wars of aggression, and expanding land abroad. Japan stepped up its war of aggression against China. In September 1931, Japan invaded Northeast China and turned this entire rich land into a colony. In 1933, Japan set up a puppet government, placing Puyi - China's last emperor - as head of the so-called "Manchukuo". Northeast China became the springboard for new military adventures of the Japanese army. Japan became a furnace of war in Asia and the world.

In lesson 16 of the old 11th-grade History textbook, Japan is analyzed as a primary factor leading to World War II (1939-1945) and the spread of the war to the Pacific region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re has been many debates regarding Japan's participation in this war, especially the event of the U.S. dropping two atomic bombs on the Japanese cities of Hiroshima and Nagasaki (August 1945). Accordingly, there are two main lines of debate: with the damage that the Japanese people have suffered from this bombing, should Japan be recognized as a victim of

war, or is it the price to pay for their aggression that caused this world war, or in other words, as Eisuke Saito used, it was the act of bombing to liberate.⁷⁾ Describing Japanese events during World War II, Vietnamese textbooks use neutral words, providing basic facts for students to have data and make their judgments instead of imposing a point of view or way of thinking.

The following contents of Japan after World War II to the year 2000 are shown in Lesson 8 of the 12th grade History textbook, old series.

- + The defeat of the Fascist side in World War II, of which Japan was a primary representative, led to severe consequences for Japan. Three million people died and went missing, 40% of urban areas, 80% of ships, 34% of industrial machinery were destroyed, and 13 million people were unemployed. The disaster of hunger and cold threatened the entire country of Japan.
- + On behalf of Allied forces, the U.S. occupied Japan from 1945 to 1952.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was still allowed to exist and operate. During this time, Japanese militarism was eliminated, and economic reforms were implemented. Relying on policy flexibility and U.S. aid, by 1950-1951, Japan had restored its economy to pre-war levels.
- + The Japanese economy had rapid development in the 1950s and 1960s, especially the period 1960-1973, which is considered a period of miraculous development of the Japanese economy with economic growth rates in the years 1960-1969 increased to 10.8%; in the period 1970-1973, although the rate decreased, it still reached an average of 7.8%/year. Thanks to that, Japan became one of the three major economic and financial centers of the world, along with the U.S. and Western Europe.
- + Due to the impact of the world energy crisis, from 1973 onwards, the Japanese economy often had short periods of recession. However,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1980s, Japan has become the world's number one financial superpower, with gold and foreign currency reserves three times that of the U.S. and 1.5

7) Eisuke Saito, "How Can We Teach Old Foe's Wound? Analysis on Description of the Atomic Bombs in Vietnamese and Singaporean Textbooks", p.132, PDF version available at https://www.academia.edu/62384584/How_Can_We_Teach_The_Old_Foes_Wounds_Analysis_on_Descriptions_of_the_Atomic_Bombs_in_Vietnamese_and_Singaporean_Textbooks

times tha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Japan is also the world's largest creditor.

In the 1990s, Japan continued to maintain its position as one of the three major economic and financial centers of the world. During this time, Japan also achieved outstanding achiev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especially space science, thanks to effective cooperation with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politics, after 38 consecutive years of ruling power (1955-1993), from 1993 to 2000, the government in Japan belonged to opposition parties or coalitions of different parties. In foreign policy, Japan maintains a clos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while attaching importance to relationships with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expanding partnerships globally, focusing on developing relationships with other countries in Southeast Asia.

- **Korea**

Korea is mentioned through the content of the Korean War (1950-1953) in Lesson 9: *International Relations*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period of the old 12th grade History textbook. The amount of knowledge for this content is somewhat humble; it only mentions some of the main events that led to this war,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occupying North and South Korea and taking the 38th parallel as the boundary line. The two government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re established in 1948 and 1949, respectively.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between the two sides on July 27, 1953. The lesson concludes that the Korean War was a "product" of the Cold War and the first direct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sides.

- **General introduction to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old 12th-grade History textbook also devoted space to presenting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Lesson 3. The first section of the lesson is a general introduction to Northeast Asia, such as acreage, population, natural resources,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the total area of Northeast Asia is 10.2 million square kilometers, with about 1.47 billion people (in the year 2000). Before World War II,

Northeast Asian countries, except Japan, were all enslaved by colonialism.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the establishment of two governments in the North and South, and the Korean War are also reviewed in this content.

The lesson also mentions the economic achievement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Northeast Asia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and people's lives improved markedly. Of the four Asian economic "dragons," there are three in Northeast Asia: South Korea, Hong Kong, and Taiwan. Japan has become the second-largest economy in the world. During the 1980s and 1990s and early years of the twenty-first century, China's economy had the fastest and highest growth rate globally.

However, the second part of the lesson is devoted entirely to presenting China and its development from 1949 to 2000.

Thus, it can be seen that the content of Northeast Asian history is mentioned and taught in History textbooks for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in all three grades 10, 11, and 12. However, the level is differentiated due to each country. The two Northeast Asian countries with the most mention are Japan and China.

1. Description of China in Vietnamese History Textbooks

Content about Chinese history occupies ample space in the World History section of both new and old history textbooks. This is rooted in many different reasons, such as China's role and position in the regional and world-historical process, China's influence on countries in the region and the world, an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Vietnam in the historical process from ancient times to current.

- *The content of Chinese history, shown in the old History textbooks:*

Grade 10

Lesson 3: Ancient Eastern Countries

Lesson 5: Feudal China

Lesson 15: Vietnam under Chinese Rule and the Struggles for National Independence (From the 2nd century BC to the early 10th century)

Lesson 16: Vietnam under Chinese Rule and the Struggles for National

Independence (From the 2nd century BC to the early 10th century)
(Continued)

Lesson 17: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eudal States (From the 10th century to the 15th century)

Lesson 19: Resistance Wars against Foreign Invaders from the Tenth to Fifteenth Centuries

Lesson 21: Changes of the Feudal States from the Sixteenth to Eighteenth Centuries

Grade 11

Lesson 3: China (19th century - early 20th century)

Lesson 15: Revolutionary Movements in China and India (1918-1939)

Grade 12

Lesson 17: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from after September 2, 1945 to before December 19, 1946

Lesson 25: Socialism Building and National Protection War (1976-1986)

- *The content of Chinese history, shown in the new History textbooks:*

Grade	Topic	Connecting Knowledge to Life	Creative Horizons	Kite
Grade 10	Topic 3: Ancient and Medieval World Civilizations	Lesson 5: Civilization concept - Eastern Civilizations in the Ancient and Medieval Periods	Lesson 7: Ancient and medieval Chinese civilization	Lesson 6: Eastern Civilizations
	Topic 5: Southeast Asian Civilization	Lesson 9: The Establishing Foundation of Southeast Asian Civilizations in the Ancient and Medieval Periods	Lesson 13: The Establishing Foundation of Southeast Asian Civilizations in the Ancient and Medieval Periods	Lesson 10: The Establishing Foundation of Southeast Asian Civilizations in the Ancient and Medieval Periods
		Lesson 10: Development and Achievements of Southeast Asian Civilizations in the Ancient and Medieval Periods	Lesson 14: Development and Achievements of Southeast Asian Civilizations in the Ancient and Medieval Periods	Lesson 11: Development and Achievements of Southeast Asian Civilizations in the Ancient and Medieval Periods
	Topic 6: Civilizations in Vietnam (before 1858)	Lesson 12: Dai Viet Civilization	Lesson 18: Dai Viet Civilization	Lesson 14: The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Dai Viet Civilization
			Lesson 15:	

				Achievements of Dai Viet Civilization
	Topic 7: Vietnamese Ethnic Community	Lesson 13: Material and Spiritual Life of Vietnamese Ethnic Communities	Lesson 19: Ethics in Vietnam	Lesson 16: Ethics in Vietnam
		Lesson 14: Vietnam's Great National Unity	Lesson 20: Vietnam's Great National Unity	Lesson 17: Vietnam's Great National Unity
Grade 11	Topic 2: Socialism from 1917 to the Present	Lesson 4: The Development of Socialism since the World War II to the Present	Lesson 4: Socialism from 1991 to the Present	Lesson 4: The Development of Socialism since the World War II to the Present
	Topic 4: Wars to Protect the Fatherland and Wars of National Liberation in Vietnamese History (before the August Revolution of 1945)	Lesson 7: Overview of the National Protection Wars in Vietnamese History	Lesson 7: Overview of the National Protection Wars in Vietnamese History	Lesson 7: Overview of the National Protection Wars in Vietnamese History
		Lesson 8: Uprisings and Liberation Wars in Vietnamese History (from the 3rd century BC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Lesson 8: Uprisings and Liberation Wars in Vietnamese History (from the 3rd century BC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Lesson 8: Uprisings and Liberation Wars in Vietnamese History (from the 3rd century BC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pic 6: History of Protecting Vietnam's Sovereignty,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in the East Sea	Lesson 12: Location and Importance of the East Sea	Lesson 12: Location and Importance of the East Sea	Lesson 12: Location and Importance of the East Sea
		Lesson 13: Vietnam and the East Sea	Lesson 13: Vietnam and the East Sea	Lesson 13: Vietnam and the East Sea

The above table implies some points as follows:

The textbooks are compiled based on the general requirements of the History curriculum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Vietnam. Each set of textbooks can design different lessons but must ensure the requirements for each lesson. Therefore, in general, the quantitative knowledge of all three new science books is quite similar.

In addition, listing the lessons above also shows us that the content of Chinese History is highly frequented in Vietnamese History textbooks. To have a more specific comparison, we can go into the detailed content of the lessons.

First, it can be seen that when describing China in History textbooks for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we can study from two aspects: Chinese History and China's relationship with Vietnam.

• *Chinese History*

In terms of Chinese history, it is no challenge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presentation of the new series textbooks and the old series textbooks, especially the

history of this country in the ancient and medieval periods. The old textbooks we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chronological method, that is, presented sequentially through the feudal dynasties of China, emphasizing prominent dynasties, such as the Qin and Han dynasties, the Tang Dynasty, and the Ming and Qing dynasties. In addition, China's cultural achievements during that period are also mentioned.

In the new textbooks, China's ancient and medieval history is studied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izational history with the typical achievements that this country achieved in its development process. For example, writing words (writing words were created very early in the Shang Dynasty), ideology and religion (Confucianism, Taoism, Buddhism); History (History - Sima Qian); Literature (The Classics, Tang Poetry,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Dream of the Red Chamber, Journey to the West); Architecture (Great Wall, Forbidden City); Scientific and technical inventions such as printing technique, paper making, gunpowder, and the compass.

Another period in Chinese history introduced in the old 11th-grade textbook is China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main content of this lesson is about China after its defeat in the Opium War (1840-1842) and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Nanjing, which opened the process of transforming China from an independent feudal country to a colonized, semi-feudal country. European and American imperialist countries gradually invaded and divided China: Germany occupied the Shandong region; Britain occupied the Yangtze River Delta (Changjiang); France occupied Yunnan, Guangxi, and Guangdong; Russia and Japan occupied the Northeast.

Faced with the invasion of imperialist countries and the compromising attitude of the Manchu Court, since the mid-nineteenth century, the Chinese people have continuously rebelled to fight against colonialism and feudalism: the Taiping Rebellion led by Hong Xiu Quan (1851-1864); The Wuxu Reform of Liang Qichao and Kang Youwei (1898); Yihetuan Movement (1899-1901); The Xinhai Revolution was led by Sun Yat-sen (1911). The initial victory of the Xinhai Revolution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with Sun Yat-sen as President, ending China's absolute monarchy. However, because the feudal class was not completely eliminated, feudal and military forces took power in China.

Meanwhile, the new 11th-grade History textbook, based on the 2018 high school

curriculum, focuses on another issue in Chinese history, which is the development of socialism in this country. Regarding this content,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book series: *Connecting Knowledge to Life*, *Creative Horizons*, and *Kite*. While the two series, *Connecting Knowledge to Life* and the *Kite*, show the process of building socialism from the period after World War II until now, the *Creative Horizon* series limits the content to the range of 1991 to the present. However, in general, all three books emphasize the main contents of building socialism in China, such as the bir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and outstanding achievements in economics and socialism in China, for example, economics, science-technology, culture - education, solving social problems, i.e., hunger eradication and poverty reduc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reform began in December 1978. Because this is a newly compiled book, there are a lot of updated statistics until the year 2021.

- *China in Its Interaction with Vietnamese History*

Besides the specific content about Chinese history, China also appears in other content in the history sections of Southeast Asia and especially Vietnamese history. When presenting China's fundamental achievements, textbooks all affirm that Chinese Civilization has strongly influenced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Vietnam.

In the Vietnam History section, China emerged in two main aspects: Vietnam receiving and being influenced by China's cultural achievements, and the second part focusing on military history through liberation wars, uprisings, and resistance wars of the Vietnamese people against the Chinese feudal dynasties, and the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contemporary history.

In the first aspect, we can see the strong influences of Chinese civilization on Dai Viet Civilization in ancient times and the influence of Chinese feudalism on Vietnamese dynasties in the medieval period. For example, writing, literature, religion, feudal state models, and codes.

In the second aspect, China appears through the content of the uprisings of the Vietnamese people under Chinese rule and the process of fighting for liberation and protecting the independence of the Vietnamese feudal states; some prominent uprisings and resistance wars are Hai Ba Trung Uprising against the Han Dynasty (40), Ba Trieu Uprising

against the Ngo Dynasty (248); Ly Bi Uprising against the Liang and Sui Dynasties (542-544), Phung Hung Uprising against the Tang Dynasty (766-791), Resistance War against the Southern Han army (938), Resistance War against the Song army (981), Resistance War against the Song army (1975-1977), Resistance War against the Mongol-Yuan army (1258, 1285, 1288), Resistance War against the Ming army (1406-1407).

The event of the Vietnamese-Chinese Border War (1979) is mentioned in Lesson 20: *Vietnam's Great National Unity* of the set *Creative Horizons*; however, because this is not the main content for the new 11th-grade History textbook, subsequently, it has not been detailed. As designed by the 2018 Curriculum, this content belongs to Grade 12. Because this book has not been released yet, we cannot discuss much about how the Vietnamese textbook describes this event. However, as the requirements of the 2018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for History subject clearly states, "The content of fighting to protect the Fatherland from after April 1975 until now need to impart to the students so that they are

- Be able to collect and use historical documents to learn about the struggles to protect the Fatherland from April 1975 to the present.
- Be able to present an overview of the historical context and main developments of the war to protect the Fatherland in the Southwest and Northern border areas (from after April 1975 to the 1980s); the struggle to protect national sovereignty in the northern border area and East Sea from 1979 to present.

The issue detailing the border war between Vietnam and China, in the latest publications of Vietnamese historians, received positive feedback from readers.⁸⁾ The specific implementation of this content in textbooks also demonstrates a trend of historical objectivity, as well as creating conditions for students to have a multi-dimensional, comprehensive approach to historical events in a scientific view. Including the content of border wars in textbooks result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listening to and receiving opinions from experts, researchers, and the Vietnamese people. As former Deputy Minister of Education and Training Nguyen Vinh Hien once said: "Through different channels, the Ministry has heard the

8) Xuan Loc Doan, "Vietnam opens up about past clashes with China", *Asia Times*, available at <https://asiatimes.com/2019/02/vietnam-opens-up-about-past-clashes-with-china/>, posted on February 19, 2019.

opinions of experts and historians about the need to include the content of wars into textbooks with appropriate capacity.⁹⁾

The new content of the textbooks, based on the 2018 high school curriculum, is to include the issue of Vietnam and the East Sea and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Sea, in which China is a claimant. All three sets of books provide students with basic knowledge abou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Vietnam's sovereignty in the East Sea, both historically and legally, as well as Vietnam's policy in resolving sovereignty issues in the East Sea. Vietnam persists to the perspective that,

"Vietnam advocates resolving disputes in the East Sea through peaceful means in the spirit of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in this content, in addition to the main text, the extended knowledge for students is included in the books with precious materials. For example,

The 11th-grade History textbook Lesson 13: *Vietnam and the East Sea*, the set Connecting Knowledge to Life has included the following document in the "Do you know" part,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British insurance company demanded compensation from China for failing to ensure maritime security when its fishermen took goods from the ship *Bellona* (Germany) that sank in the Paracel Islands. However, the Manchu government refused to compensate on the grounds that the Paracel Islands did not belong to China's sovereignty.¹⁰⁾

In general, all three sets of books study and design lessons with a moderate amount of knowledge, suitable for the cognitive level of high school students, and present historical events objectively. The lessons related to the East Sea also show the updating trend of the new textbooks, thus creating conditions for high school students to understand the complex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of countries regionally and globally. This provides a basis to debate or learn deeply about contemporary issues, thereby expressing their perspective on historical issues.

9) Văn Chung, "Bộ Giáo dục sẽ đưa chiến tranh biên giới, hải đảo vào SGK"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include border and island wars in textbooks], available at <https://dantri.com.vn/giao-duc/bo-giao-duc-se-dua-chien-tranh-bien-gioi-hai-dao-vao-sgk-20160222194322978.htm>, posted on February 22, 2016.

10) History textbook, Grade 11, p.85, extracted data from Nguyễn Quang Ngọc, *Hoàng Sa, Trường Sa, Chủ quyền của Việt Nam: Tư liệu và sự thật lịch sử* [Taracel and Spratly Islands, Vietnam's sovereignty: Documents and Historical Truth], Hanoi Publisher, 2017, p.185.

Conclusion

From reviews on the content of History textbooks for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we can draw the following initial conclusions:

The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knowledge in the old and new textbooks demonstrate the adaption of History textbooks according to the new orientation and requirements of Vietnamese education, which is to reduce the knowledge load for students and develop students' cognitive abilities and independent thinking.

Content allocation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varies significantly in terms of load and historical periods covered in both the old and new textbooks. China and Japan are mostly mentioned, among others. This may stem from the influence and position of these countries in the region, the world, and Vietnam as well. Similarly, the space for contemporary Chinese historical issues replaced by modern historical issues in the new textbooks is also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influence and importance of historical events toward the historical process of contemporary global history.

The textbooks uses neutral language and present historical events objectively. The new textbooks were updated with recent data and historical issues. The events that were once considered sensitive, such as the 1979 Northern border war and disputes over sovereignty in the East Sea, are included in the new book series, not only shows that the textbooks respected historical truth but also reveal the confidence of textbook compilers in the cognitive ability of the young Vietnamese generation regarding historical events. From studying history to being able to understand and respond appropriately to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Of course, as researcher Tran Anh Duc once wrote: "History textbooks, whether they like it or not, cannot completely escape the political influence from the nation/state; they must play a role in ensuring the delicate balance between knowledge and political power. Regardless of any social model or institution, whether it belongs to a highly democratic system or a less democratic system, there is a mechanism that allows the state to intervene in the compilation of textbooks, specifically history textbooks. This engagement often goes in the direction of trying to minimize discourse that could harm the general order, stability, and unity of the nation-state community as well as foreign policy risks."¹¹⁾

11) Trần Anh Đức, "Những vấn đề toàn cầu của sách giáo khoa Lịch sử trong kỷ nguyên số hoá" [Global Issues of History Textbooks in the Digital Era], available at

History textbooks must establish a path at the boundary between prejudice, bias classification systems, and even power pressure on the one hand and multiple voices and tolerant attitudes from social life on the other.

The new History textbooks a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which defines textbook function accurately in that it is a reference to tell historical stories and needs to diversify perspectives by using other reference materials. History is not a single story told by a single group of people; it is a collection of countless stories from groups in a society.

In addition, we need to admit frankly the flaws in textbook compilation. It could be errors in knowledge, spelling errors, and inappropriate load of knowledge and materials to the student's level. With an open textbook environment like today, there will soon be feedback on undesirable things, if any, in new textbooks. It is important that students and teachers should only use textbooks as a reference channel instead of narrowing and depending on the knowledge that textbooks provide to learn about historical issues.

몽골 역사교과서의 동아시아 서술

오랑고아 잠스란 교수(Urangua Jamsran)
몽골국립대 역사학과

몽골 역사 교과서의 동아시아사 서술

오랑고아 (몽골국립대 역사학 교수)

발표에 앞서 현대 몽골의 일반교육 과정과 교육개혁에 대한 문제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1980년대 후반, 몽골의 민주화 개혁 운동이 교육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분야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은 10년에 걸쳐 지속되었고, 구체제와 신체제의 경계 속에서 수년간 교육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지금도 그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몇 차례의 개혁과정을 거쳤다.

1. 2004~2006년에 1차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육 과정의 가이드라인 수립 (4+4+2제)
2. 2004~2008년에 학제를 10년제에서 11년제로 전환
3. 2008년에 학제를 12년제(5+4+2제)로 전환하고, 교육 내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에 따라 수립하고 실무에 적용

몽골 교육법에서 "몽골 교육의 목적은 지성과 도덕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을 갖추고, 인문학적 윤리를 추구하고, 독립적으로 배우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몽골은 국내에서 채택한 프로그램과 기준,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적 원칙을 따른다. 이를 테면, 2015년 5월 유엔 교육문화과학기구(UNESCO)는 지속가능발전 4번째 목표에 기반하여 교육포럼을 조직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교육의 비전으로 '통일된 목표와 열망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라는 인천 선언을 추구하고 있다. 선언문은 또한 "양질의 교육은 생산성과 지식 개발을 촉진하고 읽고 쓰는 능력과 수학 학습과 유사한 분석, 문제 해결, 인지, 개인 개발 및 의사소통을 개발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몽골은 글로벌 공교육의 비전과 정책에 따라 2015~2016년부터 '국가 핵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2018년에 개정하였다. 동 프로그램에서: "...유능한 청년, 국민, 그들의 지식 및 지속적인 학습 능력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경제적 자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토대이다."라고 밝히며 교육, 연구, 혁신 개발 정책의 틀 내에서 학교 교과서를 집필하고 출판하는 작업이 착수되었다.

역사사회과목의 목적에 대해 "학생들이 역사와 사회 현상을 인식하고, 민족적 자긍심과 문화를 계승하며, 인류 공통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2017년 여름, 국가 핵심 프로그램에 따라 집필된 최초의 교과서는 10학년이

배우는 "몽골 역사 X"이다. 동 교과서 집필에 강툴가(T.Gantulga), 델게르자르갈(P.Delgerjargal), 양흐바야르(D. Ankhbayar), 막마르(P. Myagmar), 솔몽(S. Tsolmon), 에르데네툴가(H.Erdenetulga)가 참여했다. 교과서는 여러 차례 재판되었으며, 2019년판 전자 버전은 <https://econtent.edu.m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 교과서를 통해 몽골의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1991년 회원가입, 1993년 첫 사업 실시-저지)은 몽골 초중고 교과서 출판에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현재 역사 교과서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시행하는 "경제적 위기 시기의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출판되어 학교 도서관에 배포되며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몽골 교육은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정규 교육의 커리큘럼과 내용, 기준은 국가가 정하고 관련 법률로 조율하며, 소유 형태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 교육의 내용은 시민의 요구에 맞춰 개방적이며 유연성을 갖고 있다. 교육 기관은 국가, 지방정부, 민간이 소유하며 종교 활동을 금지한다. 외국 및 국제 프로그램을 도입한 일반학교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 기준은 교육과학부가 정한다. 여기에는 교육 환경, 위생, 안전, 교사의 전문성, 교과서 및 교재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종(多種) 역사 교과서 집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몽골은 발전 변화 속에서 수년 동안 새로운 교육제도를 마련하려는 데에 노력했다. 이를테면 2006~2010년 미국 등 외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있는 다종 교과서 편찬 시도가 대표적이다. 2006년에 몽골 정부는 "몽골 교육 마스터 플랜 2006-2015"¹⁾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교과서의 질과 보급을 위한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 교과서 제작, 출판, 배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과서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여러 종류의 교과서에서 선택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었다. 2005~2006년에는 역사 수업을 위해 3 종류의 교과서가 출판되었으며²⁾ 학교가 교과서를 채택하였다. 강툴가(T. Gantulga)가 주필하여 8학년과 9학년 학생들을 위한 "자습서"(2005)와 교사들을 위한 "지도서"(2006)를 출판했다. 당시는 10학년제에서 11학년제로 개정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다종 교과서는 1회 출판되었고 2008년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2009년 교육부는 다종 교과서에 대해 연구조사를 진행한 후 다종 교과서 채택을 중단했다. 다양한 종류의 교

1) 2002년 8월 16일자 몽골 정부의 결의안 제 192 호에 따라 "몽골 교육 마스터 플랜 2006-2015"이 채택 https://www.num.edu.mn/files/ZHSHUA/3.4.EDU_MP_mon.pdf

2) Ц.Гантулга тэргүүтэй, О.Сүхбаатар тэргүүтэй, О.Сүхбаатар тэргүүтэй зохиолчидтой сурах бичгүүд гарсан

과서에서 좋은 교과서를 선택하여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이 당시에는 선진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할 때 어려움이 따랐다. 게다가 출판사들은 자신들이 출판한 교과서를 학교에 '강요'하는 시도가 있었고, 때로는 '뇌물수수'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는 당시 출판사에는 교과서 집필에 대한 편집위원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다종 교과서 제작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정 교과서 기준 마련

몇 년간의 경험은 다른 변화를 요구하였고 교과서를 통일된 기준과 엄격한 절차로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집필팀과 해당 프로젝트의 선정 및 출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다. 2010년부터 몽골은 1종 교과서를 채택하는 이전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다. 또한 그 시기에 몽골은 학제를 12년제로 전환했다.

교과서 편찬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발표되었고, 선정된 팀의 교과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였다. 입찰된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선정하며, 교과서는 현행 기준과 규정에 따라 집필되었다.

역사 수업의 목적은 학생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개발하며, 역사연구 방법과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는 역사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역사적 사료를 다루고, 교훈적인 부분을 실천하며 새로운 지식을 독립적으로 습득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몽골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수업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1~3학년에서 '지역학' 수업을 통해 몽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한다.
2. 중학교 6~9학년에서 몽골사와 세계사를 병행하여 학습한다.
3. 고등학교 10, 11학년에서 몽골사를 학습한다.

이처럼 6~9학년 역사 수업에서는 '역사' 교과서라는 이름 하에 몽골사와 세계사를 함께 가르친다. 단, 10학년과 11학년에는 '몽골사'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역사 수업에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대학에서 사회인문학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은 고등학생은 몽골 역사 및 세계사 과정을 선택하여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다. 선택 유형의 역사 수업에는 교과서가 없으며, 교육연구소에서 개발한 '학습지침'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이 진행된다.

현재 몽골에서는 역사교육을 위한 국가프로그램 외에 일부 사립학교와 일부 공립학교에서 캠브리지 국제교육과정(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은 160개국 10,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도입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의 11개 사회 및 인문학 과목 중에 역사가 포함된다. 역사 수업에서 History 0470, History-American (US) 0409, History(9-1) 0977의 3가지 프로그램이 인덱스와 함께 제공된다.³⁾ 이 프로그램은 역사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 외에도 학습 결과, 특히 학습자의 능력과 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몽골 일반교육의 국가 핵심 프로그램의 역사 수업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여기에는 배울 점이 있다. 예를 들어 교수법, 기술, 평가 시스템, 커리큘럼, 교재, 시험 시스템 등을 창의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의 변화

사회주의 시기 1949년부터 집권당인 몽골 인민혁명당에서 교과서 내용에 대해 엄격한 이념적 통제를 실시했으나, 이는 몽골에 다당제가 수립된 1990년 이후 폐지되었다. 교과서의 내용은 저자들이 직접 결정하고, 현장에서는 학문의 자유가 확립되었다. 교육부는 교과서를 선택하여 감수하고 인쇄와 배포를 담당했다. 단, 교과서는 교육부가 정한 기준, 절차, 프로그램에 따라 집필되어야 했다.

사회주의 시기의 교과서는 몽골의 역사를 현재 몽골의 영토에 한정하여 서술하였지만, 지금은 몽골 전민족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기에 자국 문화의 한계를 넘어 보다 글로벌한 접근 방식으로 열린 의식을 갖도록 한다. 그리하여 몽골사와 세계사를 함께 배우면서 몽골사와 세계사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I. 몽골사와 세계사를 함께 서술한 교과서:

6학년용 “역사 VI” 교과서⁴⁾에는 고대 인류 문명과 고대 국가의 역사가 서술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몽골의 역사와 중국의 고대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지리적 위치, 산업, 생활 양식, 문자, 차 문화, 만리장성, 고대 왕국, 역사적 인물 진시황, 공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또한 최초의 몽골 국가(흉노, 선비, 유연)가 중국과 어떠한 상호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중국의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고 유목 사회와 정착 사회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3) Б.Чинзориг. Кембрижийн олон улсын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 дэх түүхийн хичээлийн онцлог. “Түүхийн сургалт: хэрэгжилт, асуудал, шийдэ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лын илтгэлийн эмхэтгэл, УБ., 2021, тал 38

4) “Түүх VI” У. Туяа, П.Дэлгэржаргал, Б.Чинзориг, Д.Янжинжав. Ред. Дэлгэрсайхан Ц. Дөрөв дэх хэвлэл. УБ., Очирпресс, 2019, 83 тал нүүр

7학년용 “역사 VII” 교과서⁵⁾에는 중세사가 서술되어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몽골제국의 역사와 몽골제국이 정복한 지역의 역사가 간략하게 소개되었다. 여기에는:

- 중국의 당, 송 (4페이지)
- 중세 일본 (3페이지)
- 1211~1213년에 여진 금나라를 어떻게 정복했는지(0.5페이지)
- 1218년 고려는 몽골에 예속되어 속국이 되었고, 이후 조선이 건국된 후 명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조선인의 산업, 언어, 종교에 관해 (0.5페이지)
- 몽골의 원나라를 장의 항목에 넣었고(5페이지), 당시 원나라는 일본을 두 번 침공했지만 실패한 것에 관해 서술했다. (1.5페이지)

교과서에 수록된 새로운 내용

“칭기스칸은 몽골 민족을 부흥시킨 민족적 영웅이며, 그의 공적과 유산은 위대하다.”
 “원나라를 중국이 아닌 몽골 대원이다”고 서술했다”

이 교과서에는 몽골사와 유럽사에 대한 내용이 많지만, 동아시아사에 대한 서술은 적다.

8학년에서는 “역사 VIII” 교과서를 통해 근현대사를 가르친다.⁶⁾ 동아시아: 몽골의 역사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몽골에 대한 정책이 많이 차지하며 일본의 역사는 2페이지에 달한다. 반면에 조선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거나 부분적인 정보만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8학년 교과서도 이전 6,7학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몽골의 역사와 서구 문명의 역사를 많이 서술하고 있지만, 주목되는 점은 6,7학년 교과서보다 동양의 생활과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새로운 내용

-내몽골 역사에 관해
 “몽골은 만주 청나라의 “영토”, “속국”, “종속국” 이었다”라고 한다.

9학년용 “역사 IX”⁷⁾ 교과서는 현대사 이론테면 1911년 몽골 독립 부흥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다룬다. 동아시아에서는 만주국과 일본 간의 전쟁사에 대한 문제가 서술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는 몽골의 역사만 서술되어 있다.

5) “Түүх VII” Ж.Гэрэлбадрах, Х.Баярмаа, А.Алтанбагана. Ред:Ц.Баасандорж, Д.Пунцагсүрэн, Гурав дахь хэвлэл. УБ.,2019, 150 тал нүүртэй

6) “Түүх VIII” Ц.Гангулга нар. Гурав дахь хэвлэл. Ред. С.Цолмон,УБ.,2019, 148 тал нүүр

7) “Түүх IX” С.Амарсанаа, О.Багсайхан, З.Лонжид, Д.Нансалмаа, О.Оюунгунгалаг, Б.Пунсалдулам, У.Туяа, Ред. О.Пүрэв, Хоёр дахь хэвлэл. УБ., 2019, 161 тал нүүр

II. 몽골 역사 교과서:

10학년용 “몽골 역사 X”⁸⁾ 교과서는 몽골의 고대부터 17세기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11학년용 “몽골 역사 XI”⁹⁾ 교과서는 17세기부터 21세기 초까지의 몽골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들 교과서는 35시간의 수업만 제공하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어렵고 역사적 내용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전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열거하는 형태로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목적을 두었지만, 현행 교과서에서는 지도, 도표, 도형, 역사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역량을 키워 나간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0학년과 11학년 역사 교과서는 역사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8) “Монголын түүх X”. Ц.Гантулга, П.Дэлгэржаргал, Д.Анхбаяр, П.Мягмар, С.Цолмон, Х.Эрдэнэтулга. Ред. Ц.Цэрэндорж. Хоёр дахь хэвлэл УБ., 2018, 72 тал нүүр

9) Монголын түүх XI” Ц.Гантулга, Л.Алтанзаяа, Ч.Болдбаатар, П.Мягмар, Б.Нацагдорж, Х.Эрдэнэтулга. Ред: Н.Хишигт. Гуравдахь хэвлэл. УБ., 2019, 72 тал нүүр

10

МОНГОЛЫН ТҮҮХ 10-рхөдөн үндэсний үзэл

СУРАХ БИЧИГ АШИГЛАХ ЗӨВЛӨМЖ

Сурах бичиг нь үндсэн бичиг, он тооллын зураг, сэдвийн тусламж агуулга, түүхийн баримт, эх сурвалж, сурвалжийг шинжлэх дэглэм, түүхийн бичиг агуулга, мэдээлэл гүйцэтгэх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дэглэм, тусламж агуулга, үндсэн бичиг бичиг үзэл, сэдвийн үндсэн агуулга, үндсэн бичиг, бие даан ажлаа, агуулга дэглэм, гүйцэтгэх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дэглэм, мэдээлэл багцан бөгөөд та бүхэн үүнийг бусад хэргүүдэд нэгт хэлбэр ашиглаарай. Бүхний он тооллын зураг нь тухайн бүтэц агуулга он цагийн хяналт, үзэл, зөв үзлийн тухайн тойр үзэлтэй танилдуулж, өмнөх мэдээлэл сэрхэн санааг тань тусална.

Бүхээр хэргүүдийг сурах бичигт дараа дугуй танил тэмдэгт тэмдэгт.

**ТҮЛХҮҮР АСУУЛТ****Хөдөлгөөн**

Сэдвийн тусламж агуулгаас та бүхэн тухайн сэдвийн гол тусламж агуулгаас нэг бичигээр олж, мэдэж болохтой тул аллага танилдууларай.

1

СУРВАЛЖ**Сурвалж**

Сурвалжийн бүтэц тухайн сэдвийн хэлбэр түүхийн баримт, эх сурвалжаас хасалтан оруулж өгсөн бөгөөд үндсэн бичигтэй холбож, сурвалж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дэглэм, мэдээлэл багцан бөгөөд та бүхэн үүнийг бусад хэргүүдэд нэгт хэлбэр ашиглаарай. Бүхний он тооллын зураг нь тухайн бүтэц агуулга он цагийн хяналт, үзэл, зөв үзлийн тухайн тойр үзэлтэй танилдуулж, өмнөх мэдээлэл сэрхэн санааг тань тусална.

**ТҮЛХҮҮР НЭР ТОМЬЁО****Хөдөлгөөн**

Тусламж агуулгаас та бүхэн тухайн сэдвийн агуулгаас хасалтан оруулж өгсөн бөгөөд үндсэн бичигтэй холбож, сурвалж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дэглэм, мэдээлэл багцан бөгөөд та бүхэн үүнийг бусад хэргүүдэд нэгт хэлбэр ашиглаарай.

**СУРВАЛЖИЙГ ШИНЖЛЭЭРЭИ****Сурвалж**

Сурвалжийг шинжлэх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дэглэм, мэдээлэл багцан бөгөөд та бүхэн үүнийг бусад хэргүүдэд нэгт хэлбэр ашиглаарай. Бүхний он тооллын зураг нь тухайн бүтэц агуулга он цагийн хяналт, үзэл, зөв үзлийн тухайн тойр үзэлтэй танилдуулж, өмнөх мэдээлэл сэрхэн санааг тань тусална.

**ГАЗРЫН ЗУРАГ ДЭЭР АЖИЛЛААРАЙ****Хөдөлгөөн**

Газрын зураг дээр ажиглаарай хасалтан оруулж өгсөн тухайн газрын зураг болон дүрэн мэдээлэлтэй ажиглаж, мэдээлэл багцан бөгөөд та бүхэн үүнийг бусад хэргүүдэд нэгт хэлбэр ашиглаарай.

**ТҮҮХЧЛЭН БОДООРОЙ****Хөдөлгөөн**

Үндсэн бичигтэй танилдуулж, өмнөх мэдээлэл сэрхэн санааг тань тусална.

**МЭДЭЭЛЭЛ ГҮЙЦЭТГЭХ ҮЙЛ АЖИЛЛАГАА****Хөдөлгөөн**

Мэдээлэл гүйцэтгэх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дэглэм, мэдээлэл багцан бөгөөд та бүхэн үүнийг бусад хэргүүдэд нэгт хэлбэр ашиглаарай.

Сурвалж ба бүхний тусламж агуулгаас хасалтан оруулж өгсөн бөгөөд үндсэн бичигтэй холбож, сурвалж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дэглэм, мэдээлэл багцан бөгөөд та бүхэн үүнийг бусад хэргүүдэд нэгт хэлбэр ашиглаарай.

4

교과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결론

현행 몽골의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동아시아사를 포함한 동양사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 매우 부적합하다. 몇 년 전 세계사 교과서를 따로 집필할 당시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가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되었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에서 서양사의 비중을 줄이

고, 동양사, 특히 동아시아사를 좀 더 많이 서술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는 동쪽 이웃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한다. 또한 역사 교과서 집필 작업에 동양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고학년을 위한 세계사 교과서는 없다.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서는 근현대 세계사를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 12학년에는 역사를 선택하여 배우는데 학생들은 몽골사만 선택한다. 그 이유는 대학 입시가 몽골사로만 치뤄 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계사 공부를 포기한다.

역사 수업이 인간 발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역사적 사건의 내용을 전달하면서:저자) 현상을 연구하려는 호기심과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 속에서 교과서의 교훈적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의 본문은 점점 줄어들어 이는 현행 교과서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교과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간단하고 일반적인 정보 및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 동기 및 원인에 대한 분석적 사고가 부족하다.
 - 사료가 제시되지만 이에 대한 설명과 적용 방법이 부족하다.
 - 내용이 반복되며 깊이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
- 그러므로 교과서 내용의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Сургалтын цөм хөтөлбөр батлах тухай. БСШУ-ны сайдын албан даалгавар. 2015 оны 7 сарын 10. Дугаар А\302.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Суурь боловсрол, сургуулийн өмнөх боловсролын сургалтын цөм хөтөлбөрийг Үндэсний тҮвшинд хэрэгжүүлэх тухай. БСШУ-ны сайдын албан даалгавар. 2015 оны 7 сарын 10. Дугаар 03.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Төрөөс боловсролын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о (2014-2024).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2015 оны 12 дугаар тогтоолын хавсралт

БҮрэн дунд боловсролын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 Сайжруулсан хоёр дахь хэвлэл. БСШУСЯ, УБ, 2019

Ерөнхий боловсролын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ийн хэрэгжилт, түүнд нөлөөлж буй хүчин зүйл. Судалгааны тайлан. БСШУСЯ, Боловсролын ХҮрээлэн, Улаанбаатар, 2019

Сургалтын хэрэглэгдэхүүний жишиг жагсаалт.MLAB 2.0


Түүхийн сурах бичиг: <https://econtent.edu.mn/>

"1939 онд Япон Монголд довтолсон нь:Монголын дунд сургуулийн түүхийн хичээлийн агуулгын судалгаа" (Сумитомо сангийн тэтгэлэгт судалгааны тайлан) УБ,2010

Такахаши КозҮэ. Монгол, Японы дунд сургуулийн түүхийн сурах бичиг дэх түүхийн ойлголтын зарим асуудал. "Лавай" сэтгүүл. УБ,2005, тал 25-30


Ж.Гэрэлбадрах.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сургалт: түүхийн сурах бичиг дэх Дорнын түүх (Солонгос, Япон, Хятад)-ийг өгүүлэх онцлог шинж. "Зүүн Азийн түүхийн сурах бичиг."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БНСУ-ын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түүхийн сан, СөҮл. 2007.11.15-16. 2008 онд солонгосоор хэвлэгдсэн

С.Цолмон, Ц.Цэрэндорж.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сурах бичигт Солонгосын талаар өгүүлсэн нь."A Proposal for a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Mongolia" 2012 Korea-Mongolia Forum, May 22,2012.p.85-91



Description of East Asia in Mongolian History Textbooks

*Urangua J.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Department of History*




Content of presentation


- 1990 democratic transition and changes in education system
- The purpose of history classes
- Features of current textbooks
- East Asian countries in history textbooks
- Conclusion

1990 democratic transition and changes in education system

-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10 years.
- 3 stages of education reform
 - In 2004-2006, build the " Framework of General Education School Content" /4+4+2/
 - In 2004-2008, the 10-year education system was transferred to the 11-year education system /5+4+2/
 - Since 2008, the general education years was extended to 12 years /5+4+3/

- The Education Law of Mongolia stipulates that "the purpose of education in Mongolia is to develop citizens with appropriate intellectual, moral, and physical abilities, who uphold humanism, and who are able to study, work, and live independently.
- The vision of global education is being followed by what is defined by the Incheon Declaration, which is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with unified goals and aspirations that reaches everyone."
- - The declaration also emphasizes that "quality education promotes productivity and knowledge development, develops analytical, problem-solving, cognitive, personal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skills similar to learning literacy and mathematics."

- 
- In accordance with the vision and policy of global public education, Mongolia started implementing the "National Core Program" in the 2015-2016 academic years, and it was revised and updated in 2018.
 - In the program: "... skilled youths, competent communities, their knowledge and ability to continuously learn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resources, and the basis for improving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Within this framework, the work of writing and publishing school textbooks catered to such philosophy started.
 - The goal of the history and social studies course explained as "Students will develop into citizens who have a way of knowing history and social events and phenomena, inherit their national pride and culture, and respect the common values of humanity."
 - The program, content and standards of formal education are established by the state and regulated by relevant laws, which must be followed universally regardless of the form of school ownership.

- 
- Mongolia joined the Asian Development Bank as a member in 1991, received the first project in 1993. The ADP to this day, still provides a lot of help and support in printing textbooks for elementary schools in Mongolia. History textbooks are being printed and distributed to school librar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ject to Support Education in Times of Economic Difficulty" implemented by ADB, and are not allowed to be re-sold or sold for profit.
 - Thus, in the summer of 2017, the first textbook written under the National Core Program was released, the textbook "Mongolian History-X" for the 10th grade curriculum.
 - The electronic version of the 2019 edition is available at <https://econtent.edu.mn/>. These curriculums are in use today for learning purposes.
 - There are two types of education in Mongolia: "formal education" and "informal education".

Multi-version textbook

- In 2006-2010, the Mongolian Ministry of Education created and used 3 different textbooks for History.
- This was implemen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extbooks and ensure fair competition for distribution. But it was canceled.
- Firstly,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bribery and corruption were exposed as publication companies began bribing school administrative officials to sign deals to print more books.

Secondly, Mongolian publishing companies had a very weak board of redactors which resulted a poor quality of textbooks.

Lastly, it became very difficult for students to switch school as their textbooks were very unfamiliar and different from ones they used to study when they switched schools.

A single textbook

- In 2010, the old mode of using one textbook per subject was changed. At that time, the school had transitioned to 12 years of studying.
- The right to create textbook is now to be acquired through a ministry tender. Textbooks will be written according to the programs, standards and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now selects which entity gets the right to create the textbooks.
- Therefore, history textbooks are oriented towards a philosophy that the purpose of history lesson is to develop students' cognition, to have students learn self-directed learning methods, and to help students learn the methods and abilities of researching history.

History is taught in Mongolian schools as follows

1. In the 1st-3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y learn about the local history and culture of Mongolia within the "Local Studies" course.
2. Mongolian history and World history will be combined in the 6th - 9th grades of middle school.
3. In the 10th and 11th grades of high school, Mongolian history will be studied.
 - In this way, the textbooks with the general name "History" are used for the combined and side-by-side study of Mongolian and World history in the History lesson of the 6th, 7th, 8th and 9th grades of the Mongolian National High School. However, in the 10th and 11th grades, the course "Mongolian History" must be taken.

- There are two types of history lessons: "compulsory viewing" and "optional viewing".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further studying at university in social and humanitarian fields can choose Mongolian History and World History courses to study in depth. There is no textbook for the elective History course, and the course 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Study Guidelines" program developed by the Institute of Education Research.
- Currently, in our country, in addition to using the national program for history education, Cambridge International Program (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 is implemented in some private schools and some public schools.
- In the course of history, 3 programs are offered with the index: History 0470, History-American (US) 0409, and History(9-1) 0977.
- There is no way to coordinate the content of the program with the History course of the Mongolian National Curriculum of General Education.
- But there is something to learn from this. For example: teaching methods,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curriculum, materials, examination system etc. can be implemented creatively.

Textbook content update

- During the socialist period,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mposed strict ideological control over the contents of textbooks (since 1949), which was abolished after 1990 when the multi-party system was formed in Mongolia. The content of the textbooks was decided by the authors themselves, and academic freedom was established in the field.
- In the textbooks during the socialist era, the history of Mongolia was written within the territory of the current Mongolia, but now it is written including the history of all Mongol ethnic groups.
- When viewing Mongolian history and World history in combination, Mongolian history and World history are viewed side by side. In this way, it is believed that they should be helped to get out of the confines of their native culture and have an "open consciousness" with a more global approach

History of East Asian countries in history textbooks

1. Textbooks that include Mongolian and World History:

The textbook "History VI" for the 6th grade contains the history of ancient human civilization and ancient states. From East Asia, the history of Mongolia and the ancient period of Chinese history are included here.

For example, the author wrote about China's geographical location, farming, lifestyle, literacy, tea culture, the Great Wall, ancient kingdoms, historical figures Qin Shi Huangdi, and Confucius. It also shows how the first Mongolian states (Hunnu, Xianbi, Zhuzhang) interacted with China.

Historical references from Chinese sources was widely used.

This textbook makes the difference between nomadic and farming-based societies quite well.

- The textbook "History VII" for class 7th includes the history of the Middle Ages. Here, the history of the Mongol Empire and other nations from East Asian countries and history of the territories conquered by the Mongol Empire:
 - China's Tang and Song states (4 pages)
 - Medieval Japan (3 pages)
 - How the Golden Kingdom of Zurchid was conquered in 1211-1213 (0.5 pages)
 - Korea was subordinated to Mongolia in 1218 and became a dependent country, then the Chuson state was established, and then it was accepted by the Ming state. (0.5 pages)
 - Great Yuan of Mongolia is included as a chapters in the group (page 5). Here is a story about the failed two invasions of Japan by the Yuan Dynasty and Japan at that time (1.5 pages)
 - New ideas included in the textbook:
 - "Genghis Khan is a national hero who revived the Mongolian nation, and his merits and legacy are great."
 - "The country of Yuan was written as Great Yuan of Mongolia, not of China"
- This textbook contains a lot about Mongolian history and European history. But the history of East Asia occupies very little space.

- In the 8th grade, the history of the modern era is taught using the textbook "History VIII". From East Asia; History of Mongolia tells a lot about the Ming and Qing policies towards Mongolia.
- The history of Japan occupies 2 pag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very brief or half a page of information about the country of Chuson.
- In general, this textbook, like the previous two textbooks, contains a lot of history of Mongolia and the history of Western civilization, but one commendable thing is the life and culture of Eastern countries added
- New Ideas added to the textbook:
 - Parts from Inner Mongolian history were added
 - "Mongolia was a "dominion" or "dependent" region " of the Qing Dynasty.
- The textbook "History IX" to be read in the 9th grade covers modern history or history from the revival of Mongolian independence in 1911 to the present day. From East Asia, the issue of the history of the war with Manchuria and Japan is reflected. But there is nothing about Korea and China. In general, only Mongolian history is written in the textbook.

II. Mongolian history textbooks

- The "History of Mongolia X" textbook, which must be studied in the 10th grade, covers the history of Mongolia from the earliest times to the 17th century.
- The textbook "History of Mongolia XI", which must be studied in grade 11th, writes about Mongolian history from the XVII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XXI century.
- These textbooks are only for 35 hours of lessons, so their content is very difficult to judge and there is very little historical text.

Thus, previous textbooks focused only on providing historical knowledge by writing down historical events, but in current textbooks, historical events are briefly written in history lessons, as well as maps, diagrams, diagrams, and historical sources are included, so that students can analyze it independently and together. It is characterized by the inclusion of things that develop students' creative thinking and comprehensive competence by completing various tasks. In particular, Mongolian history textbooks for grades 10 and 11 are aimed at providing more comprehensive competence in history.

Historical text

Chronology

Key questions

Primary sources

Key concepts

Exercises with sources

Exercises with maps

Comparative exercises

For extra learning

Conclusions

- It is very inappropriate that the History textbooks used in Mongolia's general education schools have very little coverage of the history of the East, including the history of East Asia. A few years ago, when World History textbooks were written separately, the history of East Asian countries was less detaile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duce the predominance of Western history in History textbooks, and to include more Eastern, especially East Asian, history. The future generation should be well acquainted with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eastern neighboring countries.
- It is desirable to include more professional scientists who study the history of the East in the composition of the authors of history textbooks.
- There are currently no World History textbooks available for senior grades. In other words, viewing the history of the New Age of World History is being neglected in general educational public schools. In the 12th grade, history can be studied as an elective, but students almost always choose Mongolian history. This is because the university entrance exam's history section only includes Mongolian history. Meanwhile, the subject of World History is entirely missed out.

- The requirement that the history lesson should not only provide scientific knowledge about human development (by conveying the content of historical events - J.U.), but also arouse interest, enthusiasm and aspiration to study the phenomena, leads to considerable attention to the didactic part of the textbook. Because of this, the main text of the textbook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Because of this, it is observed that there are common shortcomings in the textbooks currently in use.
 - Among them, the content of the textbook:
 - A lot of brief, general information, and a lot of content to recall concepts
 - The understandings for the motivation and reason behind why the history is this way is not analyzed or taught
 - Sources are provided, but their explanations and contemplation are not good
 - leading to situations where content overlaps but lacks depth of content.
-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further improvement for Mongolian public education textbooks. Especially the content needs to be updated.

